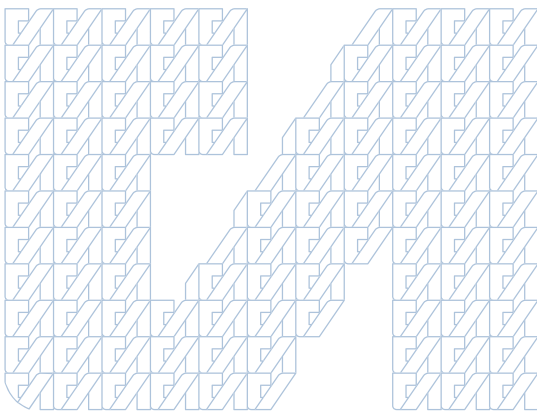


세종시 문화재 현황과 효율적 관리 및 가치제고 방안

민경선



연구책임

• 민경선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원

• 손예령 / 세종연구실 위촉연구원

정책연구 2018-48

세종시 문화재 현황과 효율적 관리 및 가치 제고 방안

발행인 박 재 목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처 신진기획인쇄사 (전화: 042-638-788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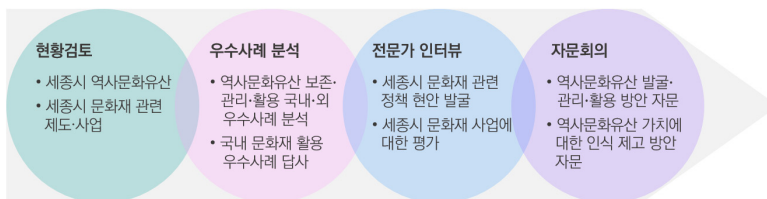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 배경 및 목적

-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산재된 관내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현재 세종시는 4건의 국가지정문화재와 27건의 시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2018년 4월 기준), 타 시·도에 비하면 보유 건수가 상당히 적어서 지속적인 문화재 발굴과 관리가 요구됨
- 세종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 및 창조적 활용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이에 본 연구는 세종시 역사문화유산의 현황 검토, 국내·외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의 사례 분석,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회의를 통해 세종시 문화재 관리 및 활용에서의 문제점과 앞으로 추구해야 할 세종시 문화재 정책의 기본방향, 목표, 추진 전략 및 과제를 도출하였음
- 본 연구는 세종시의 보유 지정문화재가 적은 만큼, 문화재 정책의 관심을 지정문화재에서 나아가 비지정 역사문화유산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며, 이에 문화재와 역사문화유산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나 ‘역사문화유산’의 용어를 선호함



[세종시 문화재 진흥 방안 도출 과정]

■ 연구결과

□ 문화재 관련 국제협약과 법률

-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호하여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고자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과 2003년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
- 우리나라도 문화유산의 보호와 가치 제고를 위해 1988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2005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가입하였음
 - 이후 당사국으로서 문화유산을 보호 및 진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우리나라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유·무형의 문화재를 보호해왔으나, 2005년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신규 제정하게 됨

□ 세종시 문화재 관련 조례 및 정책 여건

- 세종시는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리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으며,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문화재청이 5년 주기로 수립·발표하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기본계획>은 각각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법」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법정계획으로, 문화재청은 이에 수반된 과제 및 사업을 수행하여 효과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하고, 무형문화재를 보존 및 진흥시키고자 노력함
-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지속 가능한 문화재보호 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세종시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5

개년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참고하고 세종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과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하였음

□ **세종시 문화재, 향토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현황(2018.4. 기준)**

- 세종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총 4건(보물 2건, 천연기념물 1건, 국가민속문화재 1건), ‘시지정문화재’를 총 27건(유형문화재 13건, 무형문화재 3건, 기념물 11건), ‘문화재자료’를 총 13건 보유함
- 이 외에도 세종시에는 향토문화유산 68건, 전통사찰 8개소가 있음

□ **세종시 문화재 관리와 활용 현황**

-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은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문화체육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 중 ‘관광문화재과’의 ‘문화재’계에서 세종시 문화재 지정·보존·관리·활용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세종시는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에서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를 통한 역사문화 환경조성”이라는 정책사업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세종시의 주요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사업은 크게 ①문화재 관리, ②국가지정문화재 정비, ③시지정문화재 정비, ④향토문화유산 및 충효열시설물 정비로 구분됨

□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우수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본 연구는 국내(서울시, 부여군, 익산시) 및 해외(프랑스, 일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세종시 문화재 진흥을 위해 참고할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 문화재 보호·관리·활용을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조직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문화재청과 세종시, 그리고 그 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해야할 것임

- 문화재 관리·활용 담당 조직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세종시의 경우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업무는 자치분권문화국 관광문화재과의 문화재계에서 담당함
 - 문화재 담당업무가 하위 팀으로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담당 사업의 폭이 비교적 넓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한 전문가 양성 기관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지속가능한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서는 문화재 관련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세종시에서도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전문가 양성 기관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과학적인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과학기술을 활용해 문화유산을 관리·활용하고 있는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세종시도 정밀한 과학기술을 활용해 문화재를 보존·관리·감독하고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제공해 문화재 활용을 활성화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스토리 자원 발굴을 통해 효과적으로 문화재 활용
 - 세종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하면 문화재 보유 건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세종시에서도 지역 내 전해 내려오는 독자적인 역사와 이와 관련된 문화유산들을 지정하여, 유적과 유물, 지역 축제·전통·산업 등을 연계시킨 역사문화유산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진흥 방안

□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 세종시 문화재와 관련 제도 및 정책 사업 현황 분석, 국내·외 역사문화유산 관리·활용 사례 분석, 전문가 인터뷰, 자문회의를 통해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3대 목표, 4대 추진전략을 도출함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방향 설정]

구분	내용
기본 방향	역사문화유산 활용으로 세종시 브랜드 가치 향상
목표	역사문화유산 관리·보존 체계의 전문화 역사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기회 확대 역사문화유산 활용 다각화
추진 전략	(관리·보존) 역사문화유산 관리·보존 체계 전문화 (발굴·지정) 비지정 역사문화유산 조사·발굴·지정 확대 (연구·교육) 역사문화유산 연구 및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활용·향유) 다각적인 역사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및 향유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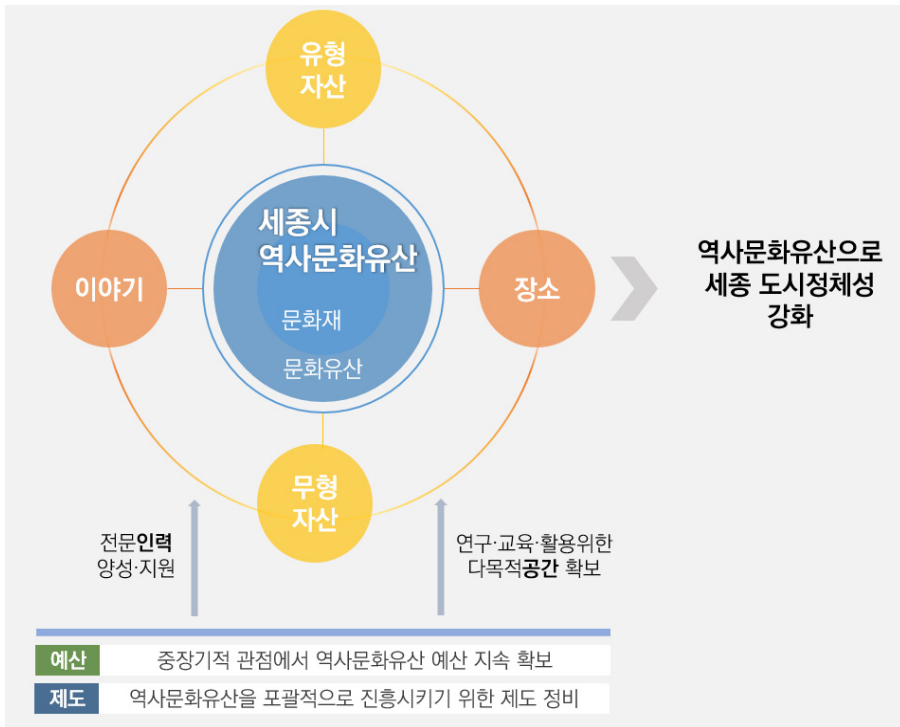
- 추진과제는 앞서 제시한 4대 추진전략별로 구분해 제시하였음
-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체계 구축과 다각적인 활용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과제의 추진시기를 설계하고 단계적으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추진전략별 추진과제 제안]

분야	주요 제안사업	추진단계		
		단기	중기	장기
관리·보존	문화재 담당 조직에 전문 학예사 확대 배치			
	문화재 담당 조직을 주요업무 단위로 세분화			
	문화재 분야 법정 계획 고도화			
	문화재 유형별 관리·보존 방안 마련			
	문화재 정기조사를 통해 관리·보존 현황 파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운영			
	과학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관리·보존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발굴·지정	비지정 역사문화유산 조사·발굴·지정 확대			
	세종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역량 강화			
	대상별 역사문화유산 교육 교재 개발			
	공무원 대상 역사문화유산 교육 확대			
연구·교육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지원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주민협의회 운영			
	역사문화유산 지도 제작			
	역사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지역의 관광자원을 엮은 역사문화유산 홍보			
활용·향유	역사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 정책제언 1: 역사문화유산 진흥 사업의 지속성 확보

- 건강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역사문화유산의 폭을 확대하고, 이것의 활용·진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 전문인력 및 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는 세종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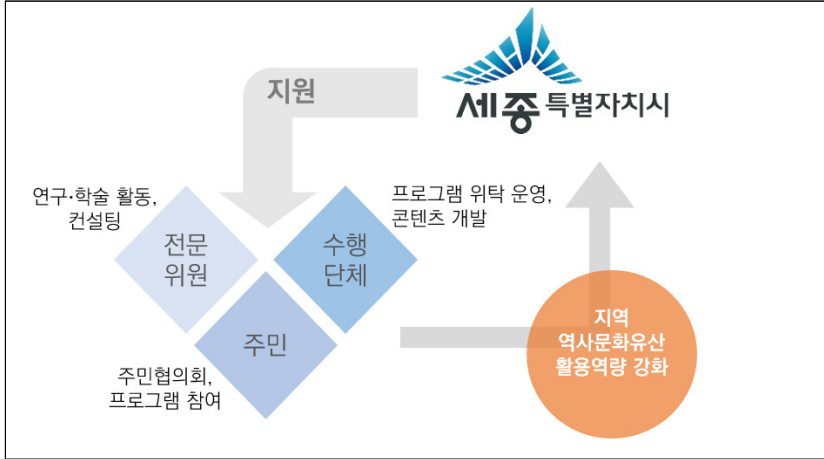


[역사문화유산 진흥 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

□ 정책제언 2: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활용 역량 강화

- 문화재 활용 사업의 기획력 제고, 운영체계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업 수행을 통한 지역활성화 및 역사문화유산 진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단체', 문화유산의 가치,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대한 연구와 컨설팅을 제공할 '전문가 단체', 그리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평가할 '주민'을 연결하고, 이들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관의 역할이 필요함

- 이에 세종시-문화재 활용 사업 수행 단체-전문가(문화재 전문위원)-주민(역사문화유산 주민협의회)으로 구성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이들 간 교류협력을 지원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활용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역사문화유산 활용역량 강화]

- **정책제언 3: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담당 조직 확대와 정책 전문성 제고**
 - 본 연구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대한 국내·외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세종시의 역사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나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 세종시 문화재계(2018.11월 기준)의 인력으로는 제안한 신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현실적 제약이 클 것이라 판단됨
 - 따라서 문화재 업무의 유형을 큰 틀에서 구분해 업무 특성에 따라 팀을 구분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조직에 배치되어 정책 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종시 문화재 업무 담당 조직의 정비와 인력 충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함

차 례

1장 서론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4
2장 문화재 정책 관련 문헌 고찰	7
1. 문화재의 개념 및 유형	7
2. 문화재 관련 국제협약과 법률 및 조례	9
1) 유네스코 협약	9
2) 문화재 관련 법률	13
3) 세종시 문화재 관련 조례	17
3. 문화재 정책 여건	20
1) 문화재청의 주요 문화재 업무 계획 및 사업	20
2) 세종시의 주요 문화재 업무 계획 및 사업	28
4. 소결	32
3장 세종시 문화재 현황	37
1. 문화재 일반 현황	37
1) 국가지정문화재	37
2) 시지정문화재	39
3) 문화재자료	43
4) 향토문화유산	45

5) 전통사찰	48
6) 비지정 문화유산 현황	48
2. 문화재 관리와 활용 현황	51
1) 2018 세종시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사업	51
2) 2018 세종시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사업 예산	55
3. 소결	56
4장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우수사례 조사	63
1. 해외사례	63
1) 프랑스	63
2) 일본	72
2. 국내사례	84
1) 서울시	84
2) 부여군	92
3) 익산시	106
3. 소결	114
5장 세종시 문화재 관리 및 가치제고 방안	121
1. 기본방향 및 목표	121
2. 추진전략	122
3. 추진과제	123
1) 관리·보존: 역사문화유산 관리·보존 체계 전문화	124
2) 발굴·지정: 비지정 역사문화유산 조사·발굴·지정 확대	141
3) 연구·교육: 역사문화유산 연구 및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145
4) 활용·향유: 다각적인 역사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및 향유 기회 확대	152

6장 결론	163
1. 연구결과 종합	163
1) 세종시 문화재 현황 분석	163
2) 역사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164
3)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진흥 방안 제시	165
2. 정책제언	167
1) 역사문화유산 진흥 사업의 지속성 확보	167
2)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활용 역량 강화	168
3)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담당 조직 확대와 정책 전문성 제고	171
참고문헌	172

표 차례

[표 2-1] 문화재의 정의	7
[표 2-2] 문화재의 유형	8
[표 2-3]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주요내용	10
[표 2-4]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주요내용	12
[표 2-5] 「문화재보호법」 주요내용	14
[표 2-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6
[표 2-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주요내용	17
[표 2-8]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주요내용 · 18	
[표 2-9]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 19	
[표 2-10]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17~2021)>의 주요내용	21
[표 2-11]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기본계획(2017~2021)>의 주요내용 · 24	
[표 2-12] 2018 문화재청 주요업무 추진체계	25
[표 2-13] 2018 문화재청 주요업무 내용	27
[표 2-14] <2018 세종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의 주요 추진사업 · 28	
[표 2-15] 2018 세종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시행계획	30
[표 3-1] 세종시 보물	38
[표 3-2] 세종시 천연기념물	38
[표 3-3] 세종시 국가민속문화재	39
[표 3-4] 세종시 유형문화재	40
[표 3-5] 세종시 무형문화재	41
[표 3-6] 세종시 기념물	42
[표 3-7] 세종시 문화재자료	45
[표 3-8] 세종시 향토문화유산	46
[표 3-9] 세종시 전통사찰	48
[표 3-10] 2018년 문화재 지정 검토 대상	49

[표 3-11] 2018 세종시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사업	53
[표 3-12] 세종시 ‘김종서장군’ 관련 문화재 활용 사업	54
[표 3-13] 2018 세종시 문화재 지원 및 활용 사업 예산	55
[표 3-14] 지역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57
[표 3-15] 지역별 시·도지정문화재 현황	58
[표 3-16] 지역별 문화재자료 현황	59
[표 3-17] 시·도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2018년 2월 기준)	59
[표 4-1] 프랑스 문화부의 조직 구성	65
[표 4-2] 프랑스의 주요 문화유산 관련 법률	66
[표 4-3] 프랑스의 문화재 관련 주요 교육기관	69
[표 4-4] 일본의 문화청 조직	73
[표 4-5] 일본의 문화재 관리 관련 기관	74
[표 4-6] 일본의 주요 문화재 관련 법률	77
[표 4-7] 일본의 역사적 경관 유지를 위한 법률	78
[표 4-8] ‘과거 문화재 정책’과 ‘일본 유산 정책’ 비교	80
[표 4-9] 가나자와의 전통공예 교육기관	81
[표 4-10] 2018 가나자와 마치 박람회 개요	82
[표 4-11]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주요업무	85
[표 4-12]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예산	86
[표 4-13]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주요내용	87
[표 4-14]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	88
[표 4-15] 2018 서울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의 주요 중점과제 ·	90
[표 4-16]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주요업무	93
[표 4-17] 2018년도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예산	94
[표 4-18]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주요내용	95
[표 4-19]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주요내용 ·	96
[표 4-20] 부여군 문화재 관련 주요추진시책	97
[표 4-21] 부여군 성곽유적 보존관리 및 활용	98

[표 4-2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주요추진업무	99
[표 4-23]	부여군 백제왕도 핵심유적 개요	100
[표 4-24]	부여군 핵심유적별 기본구상	100
[표 4-25]	국립부여박물관 주요업무	101
[표 4-2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개설학과	102
[표 4-27]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과정	104
[표 4-28]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주요업무	107
[표 4-29]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예산	108
[표 4-30]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내용	109
[표 4-31]	익산시 문화재 활용	110
[표 4-32]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사업	110
[표 4-33]	익산시 백제왕도 핵심유적 개요	111
[표 4-34]	익산시 핵심유적별 관리 및 활용현황	112
[표 5-1]	기본방향 및 목표	121
[표 5-2]	추진전략	122
[표 5-3]	추진과제	123
[표 5-4]	지역별 문화재 관리 인력 현황(2018년 3월 기준)	124
[표 5-5]	세종시 문화재계 담당업무	125
[표 5-6]	서울시 문화재 담당 조직 업무 현황(2018년 10월 기준)	127
[표 5-7]	서울시 종로구 및 송파구 문화재 담당 조직 업무 현황	128
[표 5-8]	세종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의 고도화 방향 제안 ..	131
[표 5-9]	「세종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조사 관련 개정 사항	133
[표 5-10]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조사 관련 규정	134
[표 5-11]	「인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상 전수교육관 업무 및 기능	136
[표 5-12]	2018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사례	137
[표 5-13]	등록문화재의 개념과 범위	141

[표 5-14] ‘미래유산’ 관련 조례	142
[표 5-15] 시·도별 등록문화재 현황(2018.10.31.기준)	143
[표 5-16] 역사문화유산 연구 기관	146
[표 5-17] 전통문화교육원의 ‘직무교육과정’ 개요	150
[표 5-18] 지역문화유산교육의 유형	151
[표 6-1]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방향 설정	165
[표 6-2]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과제 및 추진단계 제안	166
[표 6-3] 2019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의 ‘시범육성형’ 심사기준 ·	169

그림 차례

[그림 2-1] 한국의 세계유산	11
[그림 2-2]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11
[그림 2-3] <2018 세종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의 추진방향 ·	29
[그림 3-1] 국가지정문화재의 유형과 지정 절차	37
[그림 3-2] 세종시 보물	38
[그림 3-3] 세종시 유형문화재	41
[그림 3-4] 세종시 기념물	43
[그림 3-5] 문화재자료 지정 절차	44
[그림 3-6] 세종시 문화재자료	44
[그림 3-7] 2018년 문화재 지정 검토 대상	50
[그림 3-8]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 조직	51
[그림 3-9] 2018 세종시 문화재 정책사업목표 및 주요내용	52
[그림 4-1] 문화유산법전에서 정의하는 문화재의 유형 및 관련 타 법전 ·	67
[그림 4-2] 2017년 ‘문화유산의 날’ 전경	67
[그림 4-3] 파리 건축 문화재 단지 내부	70
[그림 4-4]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 조직도	75
[그림 4-5] 일본 고도(古都) 전경	78
[그림 4-6] ‘일본 유산’ 인증로고	79
[그림 4-7] 2017 가나자와 마치 박람회	82
[그림 4-8]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조직	84
[그림 4-9] 2018 서울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89
[그림 4-10] 서울시가 문화재 관리에 활용한 3D도면	91
[그림 4-11] 부여군의 문화재 관련 실과 및 문화재사업소	92
[그림 4-12] 부여군 내 백제문화단지 및 백제역사문화관 전경	105

[그림 4-13] 익산시 문화산업국 조직	106
[그림 5-1] 문화재 유형별 관리·보존 방안 제안	132
[그림 5-2] 구글 아트 앤 컬처 ‘정조대왕 능행차’ 360°영상 캡처 화면 ..	138
[그림 5-3] 역사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프로세스	140
[그림 5-4] 비지정 역사문화유산 조사·보수·지정 절차 제안	144
[그림 5-5]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대상 교재	147
[그림 5-6] 문화재청 자유학기제 교재 구성	148
[그림 5-7] 경기도 <지도 위 쿵쿵 문화유산 줍줍>	154
[그림 5-8] 역사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발굴 체계 제안	155
[그림 5-9] 문화재청의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강원도 소개	157
[그림 5-10] 관광자원 연계 요소	157
[그림 5-11] 역사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체계 구축	159
[그림 6-1] 세종시 문화재 진흥 방안 도출 과정	163
[그림 6-2] 역사문화유산 진흥 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	168
[그림 6-3]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역사문화유산 활용역량 강화	170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출범 이후 산재된 관내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현재 세종시는 4건의 국가지정문화재와 27건의 시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2018년 4월 기준), 타 시·도에 비하면 보유 건수가 상당히 적어서 지속적인 문화재 발굴과 관리가 요구됨
- 세종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 및 창조적 활용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2) 연구 목적

- 세종시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유 현황과 활용 실태 조사
- 문화재 활용 및 가치화와 관련된 국내외의 우수사례를 분석해 세종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문화유산 발굴·관리·활용 방안을 제안
-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 활용을 통해 세종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연계방안 모색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 자료 활용 기준년도로 2018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

(2) 공간적 범위

- 세종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를 연구대상으로 보고, 세종시 전체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

(3) 내용적 범위

- 문화재의 개념 및 유형 검토
- 문화재 정책 여건 검토
-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우수사례 조사·분석
- 세종시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유산 현황 파악
- 세종시 문화재 관리 및 가치제고 방안 도출

2) 연구 방법

- 문헌조사: 법률 및 조례, 통계자료, 현황자료,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언론기사 등 검토·분석
- 현장답사: 국내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우수사례 답사
- 인 터 뷰: 세종시 문화재 업무 관계자, 문화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종시 문화재 관리 및 활용 관련 현황 파악
- 자문회의: 세종시 문화재 관리 방안, 비지정 문화유산 추가 발굴 및 지정 방안, 창의적인 문화재 활용 전략 마련

문화재 정책 관련 문헌 고찰

1. 문화재의 개념 및 유형
2. 문화재 관련 국제협약과 법률 및 조례
3. 문화재 정책 여건
4. 소결

2장 문화재 정책 관련 문헌 고찰

1. 문화재의 개념 및 유형

-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065호)은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함

[표 2-1] 문화재의 정의

구분	내용
정의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①유형문화재, ②무형문화재, ③기념물, ④민속문화재)의 것을 말함

자료: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065호), 제2조.

- 그리고 동법은 문화재의 유형을 ①유형문화재, ②무형문화재, ③기념물, ④민속문화재로 구분됨
 -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를 의미함
 -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로 재분류됨
 - 기념물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㊸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 함

-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의미함

[표 2-2] 문화재의 유형

유형	정의
유형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무형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기념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자료: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065호), 제2조.

- 이 연구는 ‘문화재’,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혼용함. 단, 문화유산이 포괄하는 의미가 문화재보다 넓다고 판단하여 문화유산의 용어 사용을 선호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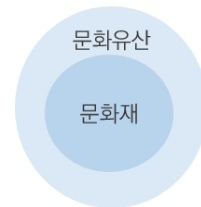
2. 문화재 관련 국제협약과 법률 및 조례

1) 유네스코 협약

(1)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은 1972년 11월 제17차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88년 해당 협약에 가입하였음
 - 이는 유네스코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쇠퇴 및 파괴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를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 협약임
- 협약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정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국제적 보호,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 조성, 국제 원조를 위한 조건, 교육 사업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 2018년 6월 기준 167개국의 1,088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석굴암·불국사’(1995년 등재), ‘화성’(1997년), ‘남한산성’(2014년) 등 13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함(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센터 홈페이지)

1) 문화재는 일찍이 서구에서 ‘기념물’(moment)로 통용되었으며, 이러한 기념물의 역사적 대상물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대상의 폭을 넓히면서 근대를 통해 ‘문화재’와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로 대체됨. 이러한 두 용어의 명확한 차이점을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국제문서에서는 1945년 유네스코가 창설되었을 때 그 창설 목적에 ‘유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문화재’는 유네스코가 주최한 1954년 헤이그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사용됨. ‘문화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뜻하는 제한적 의미가 있으며, 이는 현재 시점에서 대상물이 갖는 희소성과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좁은 의미의 자산이라 할 수 있음(박신의, 2016: 8쪽).



[표 2-3]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주요내용

구분	내용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 등이 해당됨 ◦ 자연유산: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특정 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나아가서 자연 의미관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등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 및 국제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계약국은 자국 내에 위치하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효과적 또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적합한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문화 및 자연유산이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며 지역개발 계획에 유산 보호를 반영한 종합정책을 채택함 나.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직원체제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단을 갖는 기관을 자국 내에 설치함 다. 학문적, 기술적 연구 및 조사를 발전시키고 자국의 문화 또는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작성함 라.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의 분야에 있어서 전국적 또는 지역적 훈련기구의 설치 또는 확충을 촉진하고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장려함 ◦ 계약국은 문화 및 자연유산이 세계의 유산이라는 것, 따라서 그 유산의 보호에 협력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의무라는 것을 인식함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해 정부간위원회(세계유산위원회)를 유네스코에 설치함 ◦ 계약국은 가능한 한 자국 영토내의 문화 및 자연유산 중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잠정목록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함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을 위한 기금, 즉 '세계유산기금'을 설립함
국제 원조를 위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계약국은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것을 위해 국제 원조를 요청할 수 있음

자료: 유네스코(1972),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석굴암-불국사

자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화성

[그림 2-1] 한국의 세계유산

(2)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 2003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32차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체결하였고, 우리나라는 2005년 2월 열 한 번째로 협약에 가입함
-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의 쇠퇴, 소멸 및 파괴라는 심각한 위협이 초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다자간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국제 공동체가 협력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해 나가기 위해 해당 협약을 채택함



판소리

자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한산 모시짜기

[그림 2-2]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표 2-4]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협약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나. 관련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의 보장 다. 지방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및 이러한 유산에 대한 상호 존중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라. 국제적 협력 및 원조 제공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문화유산”은 다음의 분야로 명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나. 공연 예술 다.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마. 전통 공예 기술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당사국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국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나. 자국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요소를 공동체·집단 및 관련 비정부기구의 참여하에 감정하고 규정 •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개발 및 증진시키고자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기능을 증진하고 이러한 유산의 보호를 기획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 나.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권한 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함 다. 특히 위협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에 주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기술적·예술적 연구 및 연구 방법을 촉진함 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적·기술적·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함 •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다음을 위해 노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식제고 및 정보 프로그램, (2) 관련 공동체 및 집단 내의 특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3)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리 및 과학적 연구 등 능력형성 활동, (4) 비공식적 지식전수 수단을 통해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존중 및 고양의 보장 나. 유산을 위협하는 위협과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된 활동을 일반 대중에게 홍보 다.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을 위하여 존재할 필요가 있는 자연공간 및 기념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의 증진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문화유산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러한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화를 장려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는 관련된 당사국의 제안에 따라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을 작성·갱신·공표함 • 당사국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인류공통의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양자·지역 및 국제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함

자료: 유네스코(2003),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관련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의 보장, ㉢지방·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및 이러한 유산에 대한 상호 존중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국제적 협력 및 원조 제공이라는 목적을 지님
- 협약에는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역할 및 보호를 위한 조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수행되어야 할 보호활동과 국제협력 및 원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음
- 2018년 3월 기준으로 128개국 378건(공동 등재 27건 포함)이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및 종묘 제례악(2001년 등재), 판소리(2003년), 줄다리기(2015년), 제주해녀문화(2016년) 등 19건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함
 - 1997년 유네스코 제29차 총회는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Proclamation of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채택되면서 유네스코는 더 이상 걸작을 선정하지 않도록 하였고, 기존에 선정되었던 무형유산 걸작들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시킴

2) 문화재 관련 법률

(1)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선보물고적명승천천연기념물보존령(1933.08.09.)을 폐지하고 1962년 새로이 제정된 법률임(「문화재보호법」(법률 제961호) “신규제정 이유”)
- 해당 법률은 문화재를 ①유형문화재, ②무형문화재, ③기념물, ④민속문화재로 구분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함

[표 2-5] 「문화재보호법」 주요내용

구분	내용
법률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문화재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함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됨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함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종합적인 기본계획(문화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해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음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함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수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 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국가 지정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한 것을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시도 지정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위원회를 둠

자료: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065호).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해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제정됨
 -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체결되고, 2005년 우리나라도 해당 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던 중, 2011년 중국이 조선족의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에 직면함
 -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기 전 까지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하에서 보호·관리되었고, 이는 무형문화재를 포함한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둠
 -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이 “원형 유지”를 보호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무형문화재의 창조적 계승 및 발전이 저해, 사회적 수요 감소로 공예기술 등의 전승단절 위기가 고조되고, 사회 환경변화로 인한 도제식 전수교육의 효용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었음(「무형문화재법」(법률 제13248호) “신규제정 이유”)
- 「무형문화재법」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으로 전형 유지,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제시함(「무형문화재법」(법률 제15173호) 제3조)
- 동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2-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구분	내용
법률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무형문화재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함(㉔전통적 공연·예술, ㉕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㉖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㉗구전 전통 및 표현, ㉘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 ㉙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㉚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민족 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이 포함되어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무형문화재 청장의 수립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국가 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함
시·도 무형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함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무형문화재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자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73호).

3) 세종시 문화재 관련 조례

(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조례 제1171호)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표 2-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주요내용

구분	내용
조례의 목적	·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함
세종시 지정 문화재의 정의	· 세종시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세종시장이 지정한 문화재를 말함
문화재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구성함
시지정문화재의 지정	·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 이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해야함
문화재자료의 지정	·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음 ·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는 오래되지 아니한 건조물이라도 향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음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 시장은 지정된 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정기조사 등의 위탁	· 시장은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제74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①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중에서 위탁할 수 있음
직권에 의한 조사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시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보호물·보호구역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이때, 소유자 등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함)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조례 제1171호).

- 조례는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관리·보호, 문화재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세종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한 특화된 조항이 조례에서 관찰되지는 않음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조례 제1006호)는 관내의 문화재 등 관련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됨
- 이 조례는 세종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에 대한 정의와 이것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규정함

【표 2-8】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주요내용

구분	내용
조례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관할구역내의 문화재 등 관련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문화재 등 관련시설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등 관련시설이란 ①관내에 소재한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중 소유권을 시에서 확보하고 있거나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문화재, ②초려역사공원, ③문화재의 보존·홍보·연구·전수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 그 밖에 세종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유산 보존시설 또는 교육관 등을 말함
관리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및 운영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유지 보수, 사용료 징수, 홍보 및 이벤트 업무 등과 관련된 전체적 업무를 말함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 및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조례 제1006호).

(3)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제1172호)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됨
-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구성, 시 무형문화재 지정·보호·육성, 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전수교육조교 인정·해제 등에 대하여 규정해 놓음

[표 2-9]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구분	내용
조례의 목적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정의	○ 세종시에서 전승되어 온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제14조(시 무형문화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함
무형문화재 위원회의 설치	○ 세종시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둠
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 시 무형문화재의 지정은 시장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음 ○ 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려면 시장은 제28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를 하고, 조사요청을 받은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 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은 시장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제5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중에서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 시장은 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함
전수교육조교 인정	○ 시장은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음
정기조사	○ 시장은 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시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시장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시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함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제1172호).

3. 문화재 정책 여건

1) 문화재청의 주요 문화재 업무 계획 및 사업

(1)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17~2021)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이에 문화재청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재 행정 추진 방향을 담은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17~2021)>(문화재청, 2017b)을 공표하였고, ‘문화재 보존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과 국민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기본계획 수립의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하였음
- 기본계획에 제시된 첫 번째 전략과제는 ‘문화재로 국민에게 다가가다’로, 일상에서 국민이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재 및 고궁 체험·관람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문화재 향유 및 소통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또한 문화재 이야기 자원 및 자연유산을 활용한 전통문화의 고부가가치 실현,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문화유산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문화재 수요를 창출하고자 함(문화재청, 2017b)
- 두 번째 전략과제는 ‘보존 패러다임을 바꾸다’로, 해당 과제의 진행을 위해 문화재의 체계적 지정, 상시 모니터링, 합리적 보존 방안 마련 사업 등을 추진함
 - 민간참여 활성화 및 제3섹터 역량 강화, 국내외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존을 위한 효율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문화재청, 2017b)
- 세 번째 전략과제인 ‘국가브랜드, 문화재로 만들다’는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통해 국가의 문화적 위상을 강화하고, 문화재의 국제 교류협력 강화 및 통일을 대비한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등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문화재청, 2017b)

[표 2-10]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17~2021)>의 주요내용

전략과제	핵심과제	세부과제	주요사업
문화재로 국민에게 다가간다	문화재 향유 및 소통기회 확대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강화	◦ 생생·향교·서원·관아·전통산사 문화재 향유 프로그램 운영
		역사문화자원 관광콘텐츠 육성	◦ 궁중문화축전, 창덕궁 달빛기행, 야간특별관람
		스마트한 문화유산 정보 서비스 구현	◦ 모바일 기반 문화유산 정보 체계 구축 ◦ 디지털 문화유산 전시 콘텐츠 구축
	교육을 통한 새로운 문화재 수요 창출	문화유산 교육진흥 활성화	◦ 체험·활동중심의 문화유산 공교육 강화 ◦ 영상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수요자 참여 확대
		전통문화교육원 연수교육 기능 강화	◦ 공무원, 문화재수리 종사자 업무역량 강화 ◦ 전통문화 보급 확산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문화유산의 지역발전 자원화	근현대 문화유산 보호 및 자원 발굴	◦ 근·현대 문화유산 보호제도 도입 ◦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문화유산 이야기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		◦ 문화유산 이야기 자원, 여행길 활용 ◦ 자연유산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운영 ◦ 민속행사, 문화행사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자립형 지역 경제기반 마련		◦ 지역무형유산 도시 운영 및 전수교육관 활용 활성화	
보존 패러다임을 바꾸다	유형별 문화재 합리적 보존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 동산 문화재 지정 및 보존처리 제도적 기반 완비
		사적지 보존관리	◦ 테마별 사적지정 및 정기조사 강화 ◦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보호
		천연기념물·명승 보존관리	◦ 자연유산 자원 발굴 및 지정 다양화 ◦ 유형별 보존·활용 증강기 관리방안 구축
		국가민속 및 등록 문화재 보존관리	◦ 주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국가민속문화재 ◦ 등록문화재 합리적 보존 및 범주 다양화
	보존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문화재보호 민관협력 활성화	◦ 기업의 문화유산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 문화재 지킴이 활동 활성화
		국내외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유관부처 협업체계 마련, 콘텐츠 공동활용확대 ◦ 국제적 거버넌스 구축 및 활용
지원을 통한 문화재지역 적극 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합리적 관리	◦ 지자체 역사문화환경 관리 행정의 효율화	
국가브랜드, 문화재로 만든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보존·활용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기록유산 등재 ◦ 세계유산 잠정목록 발굴 강화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홍보 강화	◦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홍보 강화 ◦ 유네스코 무형유산, 기록유산 활용·홍보 강화

전략과제	핵심과제	세부과제	주요사업	
문화재 기반을 튼튼히 하다	국제 교류협력 강화 및 남북교류 활성화	문화재 국제 교류 확대 및 국제개발협력 (ODA)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자·다자간 문화재 교류협력 확대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 확대 한반도 고대문화 네트워크 구축사업 확대 	
		국외소재문화재 조사·환수· 활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문화재 조사·연구 강화 다자적 협력을 통한 환수활동·강화 현지 활용·홍보 기반 적극 확대 	
		통일 대비 남북문화재 교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문화유산 남북 공동조사, 보존 지원 확대 남북문화재 통합기반 조성 남북문화재 국제활동 협력 강화 	
	고도유적 및 궁궐 복원 정비	고도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 복원 발굴현장 공개, 전시관건립, 관광컨텐츠 개발 	
		경복궁·덕수궁· 사직단 복원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복궁·덕수궁·사직단 	
		조선왕릉 능제회복·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왕릉 역사경관립 조성 및 관람환경 개선 	
	문화재 기반을 튼튼히 하다	기술변화 대응 및 기록정보 고도화	과학적·체계적 방재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활용 현장별 방재시스템 구축 고도화 문화재 종합방재기능 수행 전문기관 신설 문화재 안전방재 선제적 연구체계 구축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정보 활용기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 ↔ 소속·산하기관 간 클러스터 네트 워크 기반조성 문화재정밀실측 기록화·DB활용체계구축
		시대변화를 읽는 문화재 행정	문화재 자원관리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정문화재 보존 등 지자체 문화재 관리 기반강화 문화재보호기금 재정자립기반 강화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재 맞춤형 수리·관리체계 마련 문화재 돌봄지원법 법제화 추진 비지정문화재 체계적 보존관리 지속 추진 	
문화재 연구조직 기반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연구소 문화권별 허브연구기관 체계화 문화재 발굴기록자료 통합관리 기관 구축 	
연구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재 보존·활용 핵심 가치 연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인프라 확충, 보존·복원기술 연구개발 연구정보 아카이브 구축 및 개방과 활용 	
	전통문화 인력양성 교육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문화재 교육지원 체계 구축 현장실무형 인재양성 교육체제로 대폭 개편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 체계 구축 		

자료: 문화재청(2017b),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17~2021)>, 37~86쪽 참고.

- 네 번째 전략과제인 ‘문화재 기반을 튼튼히 하다’는 기술변화 대응 및 기록정보 고도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문화재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전예방 방재체계 구축을 중점으로 운용될 예정임
- 다음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계획(2017~2021)>의 주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임

(2)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기본계획(2017~2021)

- 「무형문화재법」 제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이에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중장기 정책방향과 보존 및 전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였음(문화재청, 2017a)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기본계획(2017~2021)>의 기본원칙은 무형문화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로의 온전한 계승을 위한 맞춤형 전승체계를 확립하는 것임(문화재청, 2017a)
-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는 무형문화재의 생태계 구축, 시대변화에 적합한 전승체계 개편, 무형문화재의 향유 기회 확대임(문화재청, 2017a)
 - ‘무형문화재의 생태계 구축’의 첫 번째 추진전략 하에 다양한 무형문화재 보존, 문화자원 기반 구축, 무형문화재 네트워크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두 번째 추진전략인 ‘시대변화에 적합한 전승체계 개편’ 하에서는 종목 특성별로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무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사업들이 계획됨
 - ‘무형문화재의 향유 기회 확대’라는 세 번째 추진전략의 실행을 위해 무형문화재 가치 공유 기회 및 교육 제공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표 2-11]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기본계획(2017~2021)>의 주요내용

추진과제	핵심과제	세부과제	주요사업
무형문화재의 생태계 구축	다양한 문화재 보존	무형문화재 종합조사 실시	• 무형문화재 기초자료 조사 • 무형문화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생활 속의 무형 문화재 지정 확대	• 신규분야의 조사 및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공간 보호와 활용	• 전국 전승공간 실태 기초조사 실시
	문화자원 기반 구축	개방적, 체계적인 전수교육 환경 조성	• 전수교육대학 운영 활성화
		경쟁력 있는 이수자 양성 및 관리	• 공정한 이수자 심사제도 운영 • 경쟁력 있는 이수자 발굴·관리
		무형문화재 기록보존 지식 자원화	• 무형문화재 자료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확대
		전수교육시설 확충 및 활용 활성화	• 전수교육관 미입주 종목 지원 강화 • 전수교육관 활용 활성화
	무형문화재 네트워크 조성	무형문화재의 자생력 강화	• 전승공예품 은행 운영 • 전승자 창업·제작 유통지원
		지역무형문화재 협업체계 구축	• 무형문화재 협력체계 구축 • 전승주체와 다양한 협력 모색
	시대변화에 적합한 전승 체계 개편	종목 특성별 맞춤형 관리	무형문화재 국제 협력 강화
종목 특성별 분류 및 관리체계 도입			• 무형문화재의 맞춤형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근거) 마련 • 무형문화재 맞춤형 관리체계 및 지원방안 마련
시대변화에 맞춘 전승자 역할 재정립 및 전승자 예우방안 마련			• 전승자 역할 재정립 • 전승자 예우방안 마련
무형문화재 관리 고도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의 합리화	• 무형문화재 종목 특성별 분류에 따른 전승지원금 차별화
		보유자 인정조사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 보유자 인정 심사과정 투명성 확보 • 보유자 인정 조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강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관리	• 종목별 맞춤형 보육시스템 구축 및 지원
무형문화재의 향유 기회 확대	무형문화재의 가치 공유	무형문화재 전승자 체계적 관리	• 전승활동 모니터링 강화 • 국가 및 시도 간의 무형문화재 관리 체계 개편 검토
		무형문화재의 공연·전시 활성화	• 무형문화재 공연·전시 품질 향상 • 인간문화재 명예의 전당 구축
	무형문화재 교육 확대	무형문화재의 세계화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 전승자·전승공예품 국제교류
		맞춤형 무형문화재 교육 활성화	• 전문교육(전승자대상)·사회교육운영 • 지역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재외동포 협력 사업	• 재외동포 강습지원·초청연수

자료: 문화재청(2017a),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기본계획>, 12~30쪽 참고하여 작성.

(3) 2018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 2017년도 문화재청의 주요 정책 성과에는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체계 확립, 문화유산 활용 경쟁력 제고, 문화재 보존환경 합리화 및 시민 참여 확대, 세계유산 확대 및 국제위상 강화가 있었음(문화재청, 2018f)
- 문화재청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문화재 보존정책의 수용성 제고와 주민지원사업 확대, 문화재 수리의 정교화 및 방재정보의 과학적 수집·분석,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가치 향상 및 지역 확산, 문화재 환수 실효성 및 세계유산 등재절차기준 강화를 제시(문화재청, 2018f)
- 2018년 추진사업의 전략목표로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 및 전승’, ‘더불어 즐거운 문화유산 향유’, ‘안전하고 선진적인 문화재 관리’,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유산’을 제시함

[표 2-12] 2018 문화재청 주요업무 추진체계

비전	삶 속에서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			
전략 목표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전승	더불어 즐거운 문화유산 향유	안전하고 선진적인 문화재 관리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유산
성과 목표	역사성 복원과 고도·역사문화 환경 정비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강화 및 활성화 문화재보존 국민 수용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및 교육 진흥 문화유산자원 발굴 및 가치 확대 참여하며 즐기는 문화유산 보호활동	지진대응 강화 및 방재 인프라 고도화 문화재 상시관리 강화 및 수리체계 고도화 문화유산 관리체계 고도화	세계유산 확대 및 활용 강화 국외문화재 보호 및 활용 활성화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 다양화

자료: 문화재청(2018f), <2018년 주요업무계획>, 9쪽 참고하여 재구성.

-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전승’은 역사성 회복과 고도·역사문화 환경의 조성, 무형문화재 전승 여건의 악화, 문화재 관련 규제에서의 주민 친화적 방향 모색의 요구로부터 수립된 것임

-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시대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보수·정비,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강화 및 활성화, 규제 합리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다음으로 문화유산 활용의 중요성 증대, 자유학년제 도입에 따른 문화유산 교육수요 증가, 자발적인 민간참여형 문화재관리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두 번째 전략목표인 ‘더불어 즐거운 문화유산 향유’가 수립되었음
 - 문화유산의 향유가 즐겁고 다시 하고 싶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은 인기 활용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문화 유산 지속 발굴, 문화유산 교육 및 민간참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세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선진적인 문화재 관리’는 지진의 상시대 규모화에 따른 과학적·체계적 대응 요구의 증가, 문화재 훼손 최소화를 위한 상시적 관리 필요성 증대, 급변하는 화재환경에 대응하고자 수립되었음
 - 해당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지진 대응력 확보 및 재해 대책 강화, 돌봄사업 등 예방 중심의 보호 강화, 새로운 보호·활용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유산’은 세계유산 등재 환경 악화에 따른 대책 강구 요구, 문화재 환수 실효성 확보 난항이라는 어려움에 봉착해 수립된 전략목표임
 - 이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경쟁력 확보 전략 마련, 국외문화재 보호 및 활용 활성화 관련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표 2-13] 2018 문화재청 주요업무 내용

전략목표	성과목표	주요내용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전승	역사성 복원과 고도·역사문화 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적 가치 제고로 지역 정체성 및 발전 견인 전통적 품격을 갖춘 고도(古都) 보존·육성 변형·훼손된 궁·능 문화유산 복원·정비 문화유산 정비·복원을 통한 역사성 복원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강화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점진적 전환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지원 확대 무형문화유산 지식자원 축적
	문화재보존 국민 수용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보호제도의 주민 친화적 개편 지속·안정적 문화유산 일자리 창출
더불어 즐거운 문화유산 향유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및 교육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궁궐·왕릉의 세계 대표적 관광명소화 기반 마련 지역문화유산의 활용 확대를 통한 인문정신 함양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 확충 문화유산 교육 기반 강화 및 생활 속에서 즐기는 교육 실현
	문화유산자원 발굴 및 가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자원의 문화재 조사·지정 및 등록 확대 문화유산자원의 부가가치 증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유산관광 기반 확충
	참여하며 즐기는 문화유산 보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지킴이의 다양한 활동환경 조성 민관·다자간 문화재 보호 협력 지원 강화
안전하고 선진적인 문화재 관리	지진대응 강화 및 방재 인프라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지진 방재 연구와 현장 대응력 강화 문화재 방재 인프라의 양적·질적 성장 추구
	문화재 상시관리 강화 및 수리체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상시 돌봄 확대 및 조사결과 환류 강화 문화재 수리품질 향상과 현장 공개 강화
	문화유산 관리체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 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 지방 이양·위임·민간위탁 등 분권적 문화유산 관리체계 준비 국민 곁에 다가가는 문화유산 정보 서비스 4차 산업혁명과 문화유산의 융·복합 활용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유산	세계유산 확대 및 활용 강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유산 지속 등재 국내·외 홍보 강화로 우리 세계유산의 가치 향상
	국외문화재 보호 및 활용 활성화	국외소재문화재의 전략적 현지 관리·활용 국외문화재 보존·관리 영역 확대 및 활용 다변화 국외문화재의 효율적 환수 기반 강화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 다양화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 공동자산 보존 무형문화재 선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

자료: 문화재청(2018f), <2018년 주요업무계획>, 10-24쪽 참고하여 작성.

2) 세종시의 주요 문화재 업무 계획 및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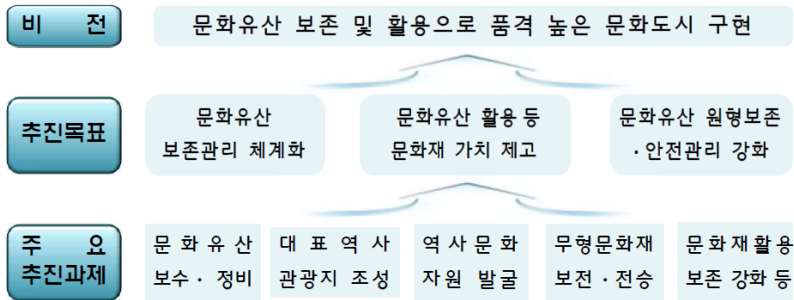
(1) 2018 세종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 2018년 <세종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은 「문화재보호법」 제 6조에 따라 수립된 문화재청의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을 참고하고 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수립됨
-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호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함(세종특별자치시, 2018b)

[표 2-14] <2018 세종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의 주요 추진사업

추진사업		세부계획
문화유산 보수·정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산동 향나무 주변 시민휴식공간(공원) 조성 • 「세종 부강리 고택」 보수 및 정비 •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 유지 및 복원을 위한 보수 및 정비 • 전의 비암사 괘불탱화 등 5개 사업 보수·정비
	향토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영재, 충렬사 경내 환경개선 등 향토문화유산 및 연화사·영평사 등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
대표역사관광지 조성	김종서장군 역사 테마공원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으로 육성 • 추모제향공간 및 전시관 등 역사 공원 조성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문화유산인 전의초수 활용한 역사공원 조성 • 세종시 역사인물공원 조성 및 수체험시설 마련
역사문화자원발굴	등록문화재 등재 추진 등 역사 문화 가치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한 등록문화재를 조사 및 발굴하여 문화재 등록 추진
	산성의 역사문화 자원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강지역 산성 10개소 탐방로 및 안내판 조성을 통한 관광루트 개발 조성 사업
무형문화재 보전 전승	무형문화재 전승 및 행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문화재에 안정적 정착 및 전승기회를 제공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및 공개행사비 지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통해 지역의 무형문화재 활용 및 향유 거점으로 육성
문화재 활용 및 보존 강화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생생문화재 사업」 및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등 추진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및 원형기록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문화재 복원 등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매장문화재 보호, 문화재위원회 개최 활성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조사 및 현장관리, 문화재위원회,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운영, 기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자료: 세종특별자치시(2018b),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10~23쪽 참고하여 작성.



자료: 세종특별자치시(2018b),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10쪽.

[그림 2-3] <2018 세종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의 추진방향

- 시행계획의 첫 번째 추진과제인 ‘문화유산 보수 및 정비’를 시행하기 위해 세종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및 정비와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지정문화재의 원형 유지 및 복원을 위한 보수 및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 두 번째 추진과제인 ‘대표 역사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김중서장군 역사 테마공원 및 전의초수 역사공원을 조성해 세종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자원으로 육성하고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음(세종특별자치시, 2018b)
- 세 번째 추진과제인 ‘역사문화 자원 발굴’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한 등록문화재를 조사·발굴하여 문화재로 등록함으로써 역사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산성의 역사문화 자원 발굴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산성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 한다는 계획을 담음(세종특별자치시, 2018b)
- 네 번째 추진과제인 ‘무형문화재 보전·전승’은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행사를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세종특별자치시, 2018b)
- 다섯 번째 추진과제인 ‘문화재활용 보존강화’는 문화재를 활용하여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창출하고,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및 원형기록을 보존하고자 계획됨(세종특별자치시, 2018b)

(2) 2018 세종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시행계획

- 세종시는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참고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2018 세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함(세종특별자치시, 2018a)
- 무형문화재 보존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계획이 필요하게 됨
- 이에 따라 세종시는 <2018 세종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세종특별자치시, 2018a)

[표 2-15] 2018 세종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시행계획

주요추진사업	세부계획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무형문화재인 ‘전의공인’, ‘용암강다리기’, ‘판소리 흥보가’의 전승보전·계승을 위해 시 무형문화재 3종목 보유자(보유단체) 및 전수조교를 대상으로 매월 전승지원금 보조 및 확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무형문화재인 ‘전의공인’, ‘용암강다리기’, ‘판소리 흥보가’의 전승보전·계승을 위한 공개행사를 통해 지역민에게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기초자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놀이로 행해지고 있는 「낙화」에 대한 옛 전통방식을 보존하고 제작방식과 장소복원 및 연구를 위한 역사 고증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해 지역의 무형문화재의 확장 및 활성화를 도모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통한 전승활동 개선·활용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추가 지정,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자료: 세종특별자치시(2018a),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 7~12쪽 참고해 작성.

- 2018년도 시행계획은 ①세종시의 무형문화재를 보존 및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통문화의 고품격화 추구, ②전통문화, 문화유산, 무형문화재 등을 연계한 세종시의 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역사·문화·환경조성 등 문화유산 기반구축, ③변화하는 무형문화재 보전·전승 환경에 맞춰 정책연구 및 발전 방안 모색, ④지역기반 문화유산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라는 4대 추진방향을 설정(세종특별자치시, 2018a)

- 추진목표는 ‘변화하는 문화재 보존·전승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및 발전 모색’, ‘무형문화재 관리체제의 안정적 정착’, ‘무형문화재 가치 공유로 인한 향유 기회 확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무형문화재 보존 및 활용’임
- 주요 추진사업에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기초자료 구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이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2018a)

4. 소결

□ 문화유산의 보호와 가치 제고를 위해 유네스코 협약에 가입

-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호하여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고자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보호에 관한 협약」,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
- 한국도 1988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2005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가입하였고, 이후 당사국으로서 문화유산을 보호 및 진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동 협약들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 및 등재 사업,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문화유산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회의와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보공유에 힘쓰고 있음(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및 시행

- 우리나라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해 오
-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유·무형의 문화재를 보호해왔으나, 2005년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하고, 무형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제도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15년 「무형문화재법」을 신규 제정하게 됨
 - 「무형문화재법」의 제정은 기존의 유형문화재에 초점에 맞추었던 「문화재 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형문화재 유형을 7가지로 구체화해 제시하였으며, 무형문화재 보호와 전승의 기본 원칙을 ‘원형’에서 ‘전형’ 유지에 초점을 두는 변화를 가져왔음
- 이러한 문화재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유·무형의 문화재 보호·관리·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특히 「무형문화재법」은 국제 협약 상 무형문화재 유형 분류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었으므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한국 무형문화재의 등재 가능성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음(최영화·민경선, 2016)

□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기본 계획> 수립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
- 가장 최근의 계획인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계획(2017~2021)>은 4개의 전략과제, 12개의 핵심과제, 36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문화재 보존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과 국민의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지님
- 또한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3대 추진과제, 12개의 핵심과제, 2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반영한 새로운 무형문화재 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전승자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진흥정책을 추진하고자 함(문화재청, 2017a)
- 문화재 및 무형문화재에 관한 기본계획은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법」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법정계획으로, 문화재청은 이에 제시된 과제 및 사업을 수행하여 효과적으로 유·무형의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하고자 함

□ 세종시 문화재 관련 조례 및 시행계획 수립

- 세종시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 관련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리시설 관리·운영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음
- 또한 세종시는 문화재, 무형문화재 보호와 진흥을 위한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세종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함

- 이처럼 세종시는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가치 높은 문화유산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체계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세종시 문화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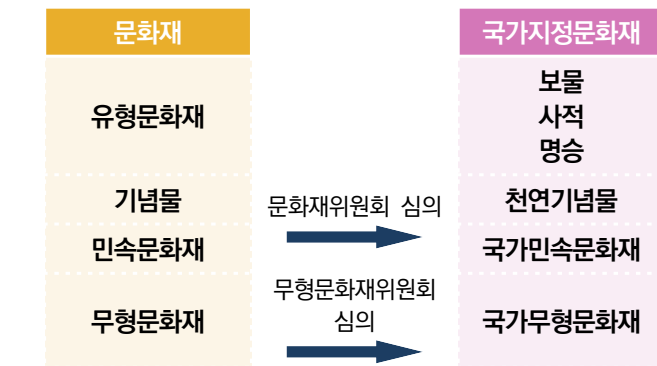
1. 문화재 일반 현황
2. 문화재 관리와 활용 현황
3. 소결

3장 세종시 문화재 현황

1. 문화재 일반 현황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또한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법」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자료: 「문화재보호법」 제23조~제26조.

[그림 3-1] 국가지정문화재의 유형과 지정 절차

- 2018년 4월 기준으로 세종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 2건, 천연기념물 1건, 국가민속문화재 1건으로 총 4건이 있음
- 세종시 보물은 1978년에 지정된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와 칠존불비상으로 모두 연화사가 관리하고 있음

[표 3-1] 세종시 보물

지정 번호	문화재명	지정일	시대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649	세종시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 (世宗市 蓮花寺 戊寅銘佛碑像 및 臺座)	'78.12.07	통일신라 (678년 추정)	연서면	연화사
650	세종시 연화사 칠존불비상 (世宗市 蓮花寺 七尊佛碑像)	'78.12.07	통일신라 (678년 추정)	연서면	연화사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지정 현황(2018.04.12.).



세종시 연화사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
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



세종시 연화사 칠존불비상

[그림 3-2] 세종시 보물

- 세종시 천연기념물은 1982년에 지정된 연기 봉산동 향나무로 조치원읍에 위치함

[표 3-2] 세종시 천연기념물

지정 번호	문화재명	지정일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321	연기 봉산동 향나무 (燕岐 鳳山洞 향나무)	'82.11.04	조치원읍	세종시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지정 현황(2018.04.12.).

- 세종시 국가민속문화재에는 1984년에 지정된 세종 부강리 고택이 있음

[표 3-3] 세종시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번호	문화재명	지정일	시대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138	세종 부강리 고택 (世宗 芙蓉里 古宅)	'84.01.14	조선 (1866)	부강면	백원기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지정 현황(2018.04.12.).

2) 시지정문화재

- 시도지정문화재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70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임(「문화재보호법」)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 2018년 4월 기준으로 세종시는 시지정문화재 총 27건을 보유(유형 문화재 13건, 무형문화재 3건, 기념물 11건)
- 세종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문화재에는 전의 비암사 극락보전, 연서 효교비, 전의 비암사 삼층석탑, 남평조씨 병자일기, 부강초등학교 강당, 전의 비암사 영산회 괘불탱화, 전의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류형 장군 호패, 고봉화상선요 등이 있음
- 전의면의 경우 4개의 유형문화재가 소재하고 있어서 세종시 내에서 가장 많은 유형문화재를 보유

[표 3-4] 세종시 유형문화재

지정 번호	문화재명	지정일	시대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1	전의 비암사 극락보전 (全義 碑岩寺 極樂寶殿)	`12.12.31	조선	전의면	비암사
2	연서 효교비 (燕西 孝橋碑)	`12.12.31	조선 (1773)	연서면	남양홍씨 종중
3	전의 비암사 삼층석탑 (全義 碑岩寺 三層石塔)	`12.12.31	고려	전의면	비암사
4	남평조씨 병자일기 (南平曹氏 丙子日記)	`12.12.31	조선	금남면	남대현
5	부강초등학교 강당 (美江初等學校 講堂)	`12.12.31	일제강점기 (1926)	부강면	세종시 교육감
12	전의 비암사 영산회 괘불탱화 (全義 碑岩寺 靈山會 掛佛幀畫)	`12.12.31	조선 (1657)	전의면	비암사 주지
13	전의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全義 碑岩寺 塑造阿彌陀如來坐像)	`12.12.31	조선 (17C 전반)	전의면	비암사 주지
14	류형장군 호패 (柳珩將軍 戶牌)	`14.6.30	조선	국립공주박물관	충렬사 운영 위원회
17	고봉화상선요 (高峰和尚禪要)	`14.6.30	조선 (1539)	장군면	영평사 주지
18	장군 영평사 목조나한상 및 복장유물 일괄 (將軍 永平寺 木造羅漢像 및 腹藏遺物 一括)	`14.8.20	조선 (1642)	장군면	영평사 주지
19	연동 황룡사 목조아미타 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燕東 黃龍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14.12.22	조선 (18C 전반)	연동면	황룡사 주지
20	금남 송림사 팔상도 초본 (錦南 松林寺 八相圖 草本)	`15.6.10	조선후기	금남면	송림사 주지
21	남양홍씨 연기파 종중문서 일괄 (南陽洪氏 燕岐派 宗中文書 一括)	`15.6.10	조선후기 ~ 일제강점기	연서면	남양홍씨 연기파 대종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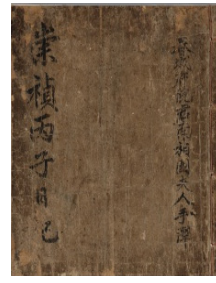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지정 현황(2018.04.12.).



전의 비암사 극락보전



전의 비암사 삼층석탑



남평조씨 병자일기



전의 비암사 영산회괘불탱화



류형장군 호패



장군 영평사 목조나한상 및 복장유물 일괄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그림 3-3] 세종시 유형문화재

- 세종시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는 전의 궁인, 용암 강다리기, 판소리 흥보가 총 3건임
- 향후 지역의 가치 있는 무형문화재가 법적인 체계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신규 발굴·지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3-5] 세종시 무형문화재

지정 번호	문화재명	지정일	보유자 / 보유단체		
			구분	성명	전승지
1	전의 궁인 (全義 弓人)	12.12.31	궁인	주장응	전의면
2	용암 강다리기	16.12.30	줄다리기	이광열	연서면
3	판소리 흥보가	17.3.30	명창	임영이	조치원읍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지정 현황(2018.04.12.).

- 세종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념물에는 운주산성, 김종서 장군 묘, 금남 백로 서식지, 이성, 금이성, 연기향교, 전의향교, 연기 세종리 은행나무, 부강 남성골산성 등이 있음
- 전동면에 운주산성, 이성, 금이성, 전동 박안생 묘가 위치해 있어, 세종시에서 전동면이 가장 많은 기념물이 소재함

[표 3-6] 세종시 기념물

지정 번호	문화재명	지정일	시대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1	운주산성 (雲住山城)	`12.12.31	삼국	전동면	국유/세종시
2	김종서 장군 묘 (金宗瑞 將軍 墓)	`12.12.31	조선	장군면	순천김씨종중
3	금남 백로 서식지 (錦南 白鷺 棲息地)	`12.12.31	-	금남면	평산신씨종중신상군
4	이성(李城)	`12.12.31	고려	전동면	전의예안이씨화수회
5	금이성(金伊城)	`12.12.31	삼국	전동면	국유/세종시
6	연기향교(燕岐鄉校)	`12.12.31	조선	연기면	세종시향교재단/ 연기향교
7	전의향교(全義鄉校)	`12.12.31	조선	전의면	세종시향교재단/ 전의향교
8	연기 세종리 은행나무 (燕岐 世宗里 은행나무)	`12.12.31	조선	연기면	부안임씨전서공파종중
9	부강 남성골산성 (美江 南城谷山城)	`12.12.31	삼국	부강면	국·공·사유/세종시
10	전동 박안생 묘 (全東 朴安生 墓)	`12.12.31	조선	전동면	순천박씨이조판서 공파종중
11	연기 척화비 (燕岐 斥和碑)	`16.02.11	조선 (1871)	연기면	연기향교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지정 현황(2018.04.12.).



운주산성



김종서 장군 묘



전의향교



연기향교



연기 세종리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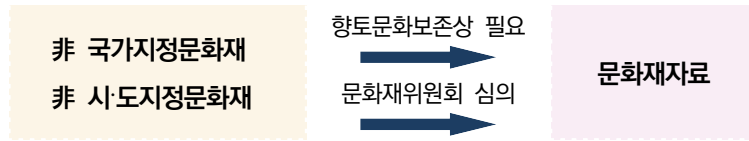
연기 척화비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그림 3-4] 세종시 기념물

3) 문화재자료

- 문화재자료는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를 말함(「문화재보호법」)
- 시도지사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음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함이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 때 시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재 지정절차 이행 및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함



자료: 「문화재보호법」 제70조.

[그림 3-5] 문화재자료 지정 절차

- 세종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자료는 금남 문절사, 연동 합호서원, 소정 대곡리 삼층석탑, 연동 송용리 마에여래입상, 조치원 봉산영당, 장군 덕천군사우, 금남 남산영당 등 총 13건임
- 장군면에 장군 덕천군사우, 장군 보광사 산신도, 장군 보광사 독성도를 보유하고 있어서 세종시에서 비교적 많은 문화재 자료가 소재하며, 세종시 문화재자료 중에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함



금남 문절사



소정 대곡리 삼층석탑



연동 합호서원



연동 송용리 마에여래입상



장군 보광사 독성도



장군 덕천군사우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문화재청 홈페이지.

[그림 3-6] 세종시 문화재자료

[표 3-7] 세종시 문화재자료

지정 번호	문화재명	지정일	시대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1	금남 문절사 (錦南 文節祠)	12.12.31	조선	금남면	창녕성씨학인공파종중
2	연동 합호서원 (燕東 合湖書院)	12.12.31	조선	연동면	순흥안씨합강종중
3	소정 대곡리 삼층석탑 (小井 大谷里 三層石塔)	12.12.31	통일신라	소정면	세종시
4	연동 송용리 마애여래입상 (燕東 松龍里 磨崖如來立像)	12.12.31	고려	연동면	결성장시좌랑공파문중
5	조치원 봉산영당 (鳥致院 鳳山影堂)	12.12.31	조선	조치원	강화최씨종중
6	장군 덕천군사우 (將軍 德泉君祠宇)	12.12.31	조선	장군면	전주이씨덕천군파종회
7	금남 남산영당 (錦南 南山影堂)	12.12.31	조선	금남면	남대현
8	나성 독락정 (羅城 獨樂亭)	12.12.31	조선	나성동 101	부안임씨전서공파종중
9	금남 모인당 (錦南 慕忍堂)	12.12.31	조선	금남면	회순최씨종중
10	부강 보만정 및 검담서원묘정비 (芙江 保晩亭 및 黔潭書院 廟庭碑)	12.12.31	조선	부강면	은진송씨동춘당 문정공파종중
11	장군 보광사 산신도 (將軍 普光寺 山神圖)	12.12.31	일제강점기 (1944)	장군면	보광사
12	장군 보광사 독성도 (將軍 普光寺 獨聖圖)	14.06.30	일제강점기 (1933)	장군면	보광사 주지
13	연서 학림사 신중도 (燕西 鶴林寺 神衆圖)	14.12.22	1891	연서면	학림사 주지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지정 현황(2018.04.12.).

4) 향토문화유산

- 2018년 4월 기준 세종시는 향토문화유산 총 68건을 보유하고 있음
- 세종시 향토문화유산에는 충신·효자·열녀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동네에 정문을 세워 표창한 ‘정려(旌閭)’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그 외에도 변응정 사당, 송모각, 병산사, 문목사, 충정사, 육영재, 송덕사, 어서각, 봉서재, 전의초수 등의 향토문화유산이 있음

[표 3-8] 세종시 향토문화유산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1	밀양박씨 오충 정려	연동면 예양리 20-4
2	충신 홍직 정려	전의면 서정리 산 85-2
3	효자 최희 정려	조치원읍 봉산리 138-1
4	효자 김백열 정려	연동면 내판2리 532
5	효자 임양문 정려	연동면 용호리 427-2
6	충신 민후건 정려	연서면 월하리 887
7	효자 김연 정려	연서면 청라리 317
8	효자 김종철 정려	연서면 쌍류리 산85
9	충신 김한정 정려	연서면 쌍류리 102-2
10	효자 성이복 정려	연서면 와촌리 산 93-1
11	전주이씨 삼효 정려	장군면 금암리 174-22
12	부안임씨 쌍효 정려	전동면 미곡리 산21-16
13	효자 임명즙 정려	연기면 나성리(해체보관)
14	효자 임수준 정려	연기면 세종리 644-194
15	효자 강협 정려	금남면 발산리 75
16	안동김씨 쌍효 정려	전의면 양곡리 286
17	효자 박이명 정려	전의면 달전리 산119-3
18	진주정씨 사효 정려	전의면 영당리 102-4
19	효자 김충열 정려	소정면 고등리 506
20	열녀 전주이씨 정려	조치원읍 봉산리 산54-8
21	열녀 언양김씨 정려	연동면 송용리 99-3
22	열녀 광산김씨 정려	연동면 응암리 산45-1
23	열녀 한양조씨 정려	연동면 노송리 292-2
24	열녀 밀양손씨 창녕 성씨 정려	연동면 내판리 271-1
25	열녀 경주최씨 정려	연서면 봉암리 229-1
26	열녀 부안임씨 정려	연서면 와촌리 1215-2
27	열녀 의성김씨 정려	연서면 부동리 213-5
28	열녀 창녕성씨 결성장씨 정려	장군면 당암초등학교(해체보관)
29	김해김씨 열녀문	LH 해체보관중
30	열녀 남양홍씨 정려	전의면 양곡리 산80-1
31	양주조씨 삼효 정려	전의면 원성리 50
32	열녀 나주나씨 정려	전동면 보덕리 133-3
33	열녀 기계유씨 정려	전동면 석곡리 산25-6
34	변응정 사당	전동면 청람리 201-1
35	송모각	연기면 세종리 88-4
36	병산사	금남면 달전리 351
37	문목사	전의면 관정리 산55-20
38	충정사	전동면 송성리 570-1
39	육영재	연동면 송용리 7-1
40	송덕사(덕성서원)	연기면 세종리 734-19
41	어서각	아름동 산68
42	임씨 가묘	나성동 101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43	봉서재	연서면 고북리 224
44	용호산제 및 관련자료	연동면 용호1리 산120
45	원수산제 및 관련자료	연기면 양화2리 산1-1번지
46	전의초수	전의면 관정리 147, 148
47	대곡리 장승제	소정면 대곡리 217
48	충신 유지걸 정려	장군면 송학리 253-3
49	효자 이면주 정려	장군면 용암리 154-1
50	국곡리 고인돌	금남면 국곡리 산10-5
51	국곡리 입석	금남면 국곡리 94-4, 95-9
52	이덕사 이태연 묘비	장군면 평기리 산42-13
53	류충걸 묘소 및 신도비	장군면 대교리 산1-1
54	성산성	부강면 등곡리 산138
55	테피산성	부강면 부강리 499 일원
56	성재산성	부강면 행산리 산64 일원
57	복두산성	부강면 및 남이면 일원
58	화봉산성	부강면 노호리 산1,2 일원
59	노고봉산성과 애기바위산성	부강면 등곡리 산47, 산19
60	등곡리 부도	부강면 등곡리 산20-1
61	이광흥 효자각	부강면 문곡리 산78
62	열녀 삼척진씨 정려	부강면 등곡리 298
63	열녀 진주정씨 정려	부강면 노호리 산113
64	박산리 작약골 쌍탑제	금남면 박산리 116-2, 217
65	윤각장군 묘	도담동 260-109
66	주당풀이	세종시 일원
67	충경공 류형 신도비	장군면 하봉리 산90-3
68	진주류씨 삼효열 정려	장군면 하봉리 산90-3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지정 현황(2018.04.12.).

5) 전통사찰

- 2018년 4월 기준 세종시에는 전통사찰 8개소가 위치해 있음
- 세종시에 위치한 전통사찰에는 세종시 유형문화재, 보물, 그리고 문화재급 전통건물 등이 있어 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음
 - 비암사에는 세종시 유형문화재인 ‘극락보전’, ‘3층 석탑’, ‘영산회 괘불탱화’,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이 있음
 - 연화사에는 세종시 보물인 ‘무인명불비상 및 대좌’, ‘칠존불비상’이 있음. 이 외에 영평사, 청안사, 황룡사, 학림사 등도 오랜 역사를 지닌 사찰로서 문화적 가치가 있음

[표 3-9] 세종시 전통사찰

지정번호	사찰명	주지명(법명)	소재지	종파
1	비암사	김상국(노산)	전의면	조계종
2	연화사	이종숙(운주)	연서면	조계종
3	관음암	민승홍(선타)	조치원읍	태고종
4	청안사	이인숙(청현)	전의면	조계종
5	신광사	금동순(혜원)	조치원읍	조계종
6	황룡사	황용회(선업)	연동면	조계종
7	영평사	이성구(광원 환성)	장군면	조계종
8	학림사	임말선(수환)	연서면	선학원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지정 현황(2018.04.12.).

6) 비지정 문화유산 현황

- 다음은 2018년 세종시가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로 등록시키고자 검토하고 있는 문화재 목록으로, 향후에도 이처럼 지역의 문화자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지정 심사 및 지정 여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세종시는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대상에 대한 검토를 지속해 오고 있음

[표 3-10] 2018년 문화재 지정 검토 대상

	대상문화재		시대	소재지	비고
국가지정	1	한솔동 백제고분군	백제	한솔동 1247	14기
	2	갈산리 고분군	백제	부강 갈산리 산27-11	6기
	3	세종리 은행나무	조선	연기 세종리 88-5	
등록문화재	1	장육진생가		연동 송용리 105-1	
	2	부강성당 및 수녀원	1957	부강 부강리 130-1	
	3	한림제지	일제강점기	조치원 남리 60-1	
	4	조치원정수장	일제강점기	조치원 평리 12-1	
	5	연기복싱체육관	1950년대	조치원 교리 25-4	
	6	전의역	1941	전의 읍내리 269-17	
	7	금강대도 삼청보광전	1945~1950	금남 금천리 297	
	8	부강리 김진호가옥	1900년대초	부강 부강리 128	
	9	옛 청주여관	일제강점기	조치원 평리 92-1	
	10	조치원읍 교리 10-1		조치원읍 교리 10-1	
	11	조치원읍 원리 4-1		조치원읍 원리 4-1	
	12	연기면 세종리 751		연기면 세종리 751	
시지정문화재	1	김수, 김태형 묘	조선초	장군면 대교리 산45	
	2	연기향교 고문서	조선	연기 연기리 34	
	3	육영재	1876년 이전	연동 송용리 7-1	
	4	육영재 고문서	조선	연동 송용리 7-1	
	5	류형장군 교지	조선	장군 하봉리 90-3	
	6	청안사탱화	조선	전의 양곡리 33-1	
	7	봉서재		연서 고북리 224	
	8	사관정		전의 관정리 산55-10	
	9	제산정		연기 세종리 644-139	
	10	남이웅 초상 일괄	조선		4점
	11	남이웅 유물 일괄	조선		8점
향토문화유산등	1	나성동 미륵불	고려	나성동 59-6	
	2	석연사 미륵불	고려	연기 연기리 7-1	
	3	미곡리 미륵불	고려	전동 미곡리 346-1	
	4	노송리 김창호가옥	일제강점기	연동 노송리 145	
	5	명학리 장수황씨 가옥	일제강점기	연동 명학리 261	
	6	산학리 민가	일제강점기	장군 산학리 267-8	
	7	평기리 민가	일제강점기	장군 평기리 210-20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문화재과 내부자료 “문화재 지정대상 목록(2018년)”



세종리 은행나무



장옥진 생가



육영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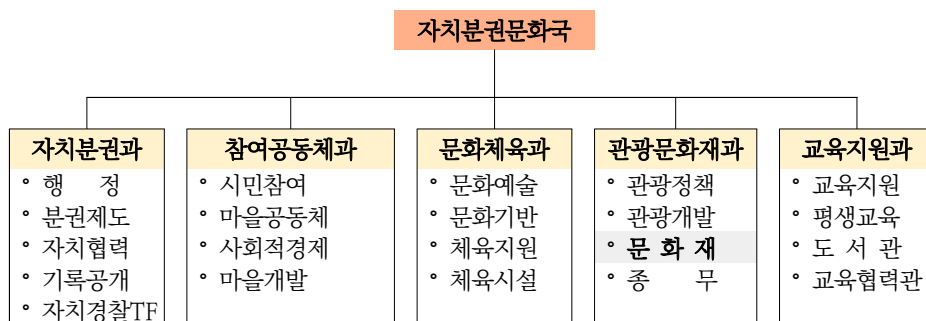
미곡리 미륵불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블로그 '세종스토리' 홈페이지

[그림 3-7] 2018년 문화재 지정 검토 대상

2. 문화재 관리와 활용 현황

-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은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문화체육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 중 세종시의 관광 및 문화재 업무 등을 총괄하는 '관광문화재과'는 관광정책, 관광개발, 문화재, 종무계로 업무가 구분됨
- 세종시 문화재 지정·보존·관리·활용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문화재'계임
 - 문화재계에서는 문화재 지정 및 해제, 매장 문화재 업무, 시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 문화재 돌봄사업,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 그리고 문화재 공모사업 등을 담당함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그림 3-8]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 조직

1) 2018 세종시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사업

- 세종시는 2018년 <세종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를 통한 역사문화 환경조성”이라는 정책사업 목표를 수립
 - ①국가·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②김중서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을 통한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가치 제고, ③문화재 보존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을 통한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 및 제고, ④문화유산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문화재 관광자원화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

정책사업목표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를 통한 역사문화 환경 조성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을 통한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가치 제고 · 문화재 보존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 추진해 문화유산 가치 발굴 및 제고 · 문화유산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문화재 관광자원화 추진

자료: 세종특별자치시(2018c), <2018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5쪽 참고.

[그림 3-9] 2018 세종시 문화재 정책사업목표 및 주요내용

- 2018년 세종시의 주요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사업은 크게 ①문화재 관리, ②국가지정문화재 정비, ③시지정문화재 정비, ④향토문화유산 및 충효 열시설물 정비로 구분됨(세종특별자치시, 2018c)
 - ‘문화재 관리’에는 문화재 보존·관리와 함께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등이 해당함
 -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의 세부사업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전통사찰 보수 정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구축이 포함되어 있음
 - ‘시지정문화재 정비’의 세부사업으로는 시지정 문화재 보수,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외에도 충렬사 보수정비 등을 포함한 향토문화유산 정비 사업이 계획됨

[표 3-11] 2018 세종시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사업

단위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문화재 관리	문화재 보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위원회 및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운영,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문화재 조사 및 민원업무 문화재유존지역 내 조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조사 등곡 낙화 연사 고증 학술연구용역 디지털세종문화대전 편찬사업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교·서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창출하는 교육·문화·체험·관광산업 프로그램 발굴·운영
	생생문화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지정 및 등록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창출하는 교육·문화·체험·관광산업 프로그램·발굴·운영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산사 문화재를 거점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가치 향유 및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문화재 돌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돌봄사업 경미한 보수정비 사업,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문화재 모니터링 등 상시관리 사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 부강리 고택 안내판 정비 봉산동 향나무 정비사업(봉산동 향나무 주차장 조성, 수관정비 및 영양공급 등) 봉산동 향나무 보수치료 사업(모니터링 6회, 병충해 방제 3회 등 유지관리 사업)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관리용역지원 및 방재시설유지관리 방범시설(CCTV 등) 설치
	전통사찰 보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화사 보수정비(삼성각 보수 및 주변정비) 영평사 보수정비(단청, 창호 보수, 화장실 개축)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화사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시지정문화재 정비	시지정 문화재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의 비암사 영산회 괘불탱화 보수 금남 문절사 보수정비 부강 산성 환경조성사업 문화재 안내판 정비 목조문화재 방재구축 부강 보만정 및 검담서원 묘정비 정비사업
	김중서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2015~2017년) : 묘역, 추모제향공간,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 등 2단계(2017~2020년) : 김중서 장군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
향토문화유산 및 충효열시설물 정비	향토문화유산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렬사 보수정비 열녀 밀양손씨 창녕성씨 정려 단청 보수정비 육영재 화장실 신축건립 문화재 등 소규모 유지관리

자료: 세종특별자치시(2018c), <2018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6~213쪽 참고.

- 특히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은 세종시가 역사적 인물 자원에 주목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화재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임
 - 1단계(2015~2017년)에서는 묘역 정비, 추모제향공간,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2단계(2017~2020년)에서는 김종서장군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계획되고 있음
 - 김종서장군의 추모 제향지원을 위하여 ‘김종서장군묘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김종서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김종서장군문화제추진위원회와 장군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의 주도로 진행되는 ‘김종서장군문화제’와 생생문화재 사업에 ‘김종서장군묘 답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표 3-12] 세종시 ‘김종서장군’ 관련 문화재 활용 사업

사업	사업내용
김종서장군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종서장군의 추모 제향지원 - 세종시는 ‘종교 및 제향지원’ 사업을 통하여 연기향교, 전의향교, 합호서원, 덕성서원, 충렬사 제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김종서장군묘제도 포함되어 있음
김종서 장군문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종서장군문화제는 조선시대 북방영토인 6진을 개척한 김종서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문화제로, 주민이 직접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는 세종시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였음 - 이 행사는 김종서장군문화제추진위원회와 장군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의 주도로 마련됨 • 2018년 제6회 김종서장군문화제는 ‘전야행사’와 ‘본행사’로 구성되었지만, 날씨문제(태풍 ‘콩레이’)로 전야행사는 취소되고, 본행사 프로그램만 진행됨 - 본행사 프로그램에는 기마행렬과 장군기, 북행렬, 풍물단, 마을기, 참가자가 줄을 지어 퍼레이드를 벌이는 장군면 걷기대회(장기초교~대교1리~행사장 구간)가 있음
김종서장군묘 성역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지정문화재(기념물 제2호)인 김종서장군묘의 성역화 사업을 통한 지역 문화유산 보존가치 제고는 물론, 세종시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자원으로 육성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1단계(2015~2017년) : 묘역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역 정비, 추모제향공간, 주차장, 편의시설 조성 • 2단계(2017~2020년) : 김종서장군 역사공원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종서 장군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 - 교육체험 및 휴게완충공간 등 역사공원 조성

자료: 세종특별자치시(2018b: 15, 21); 세종특별자치시(2018c: 205, 212); 세종특별자치시(2018.10.03)을 참고하여 재구성.

2) 2018 세종시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사업 예산

- 세종시의 문화재 관리, 시지정문화재 정비, 향토문화유산 및 충효열 시설물 정비에 대한 사업 예산은 2017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국가지정 문화재 정비 사업의 예산은 2017년 대비 감소함
- 2018년의 세종시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사업의 예산 중에는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김종서장군의 역사문화콘텐츠화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3-13] 2018 세종시 문화재 지원 및 활용 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단위사업	사업명	예산		
		2017년	2018년	증감
문화재 관리	소계	296	592	296
	문화재 보존관리	85	240	155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26	50	24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142	188	46
	생생문화재 사업	43	88	45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0	26	26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소계	1,453	1,345	△ 108
	문화재 돌봄사업	464	441	△ 23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세종부강리 고택 안내판 정비	0	5	5
	봉산동 향나무 보수정비 사업	371	68	△ 303
	봉산동 향나무 보수치료 사업	7	7	-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7	20	13
	전통사찰 보수 정비	452	668	216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52	136	△ 16	
시지정문화재 정비	소계	2,946	10,480	7,534
	시지정 문화재 보수	1,443	480	△ 963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사업	1,503	10,000	8,497
향토문화유산 및 충효열시설물 정비	소계	118	219	101
	향토문화유산 정비	118	219	101

자료: 세종특별자치시(2018c), 206~213쪽 참고.

3. 소결

- 세종시가 보유한 역사문화유산, 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세종시 문화재 업무 관계자 및 문화재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세종시 문화재 관리와 활용 현황에 대하여 진단함
- 세종시가 보유한 역사문화유산을 살펴보면 불교, 유교 관련 문화자산, 산성, 전통사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세종시 지역의 면적은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좁으며, 2012년에 출범한 신도시로 지정문화재 수 역시 적음. 또한 특정 주제로 묶을 수 있는 문화자산의 규모도 적어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문화재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됨
 - 예를 들어, 세종시와 인접해 있는 충청남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분포되어 있음
- 따라서 세종시가 보유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가치를 재발굴·제고하여 세종시만의 특화 문화재 활용 사업을 추진할 필요 있음
- 세종시의 문화재 현황을 크게 ①역사문화 자원 발굴, ②문화유산의 보수·정비, ③무형문화재 보전·전승, ④역사문화자원 활용 활성화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 ①역사문화 자원 발굴: 세종시는 타 광역 시·도에 비해 지정문화재 수가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함.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수로 지역 문화자산의 가치를 가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세종시의 지정문화재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만큼 지역의 가치 높은 문화유산들을 발굴하여 법적인 체계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총 997건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경북(670건) > 전남(383건) > 경남(308건) > 경기(302건) 순으로 많음. 반면 세종시는 총 4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광역 시·도에서 가장 적은 수입

- 서울은 총 198건의 등록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세종시는 등록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표 3-14] 지역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단위: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국보	164	5	3	1	2	1	2	-	11	
보물	682	45	69	27	12	12	7	2	165	
사적	67	5	8	18	2	1	5	0	69	
명승	3	2	0	1	1	0	0	0	4	
천연 기념물	12	7	2	14	2	1	3	1	19	
국가 무형 문화재	28	5	0	5	1	0	0	0	12	
국가 민속 문화재	41	2	6	-	3	2	2	1	22	
소계	997	71	88	66	23	17	19	4	302	
등록 문화재	198	18	11	8	15	21	6	0	78	
총계	1,195	89	99	74	38	38	25	4	380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국보	11	12	27	8	21	52	11	-	-	331
보물	79	95	125	93	184	337	164	8	-	2,106
사적	18	19	50	36	45	99	51	7	0	500
명승	25	10	3	6	19	15	12	9	0	110
천연 기념물	41	23	16	32	61	67	44	49	63	457
국가 무형 문화재	3	3	4	8	15	9	14	4	27	138
국가 민속 문화재	11	21	24	13	38	91	12	8	-	397
소계	188	183	249	196	383	670	308	85	90	3,939
등록 문화재	40	28	54	60	83	38	43	23	-	724
총계	228	211	303	256	466	708	351	108	90	4,663

자료: 문화재청(2018a),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16쪽.

[표 3-15] 지역별 시·도지정문화재 현황

(단위 :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시도 유형 문화재	383	174	75	68	29	55	34	13	263
시도 무형 문화재	49	24	18	28	20	24	5	3	67
시도 기념물	39	52	17	65	24	47	46	11	183
시도 민속 문화재	33	18	4	2	9	2	1	0	12
소계	504	268	114	163	82	128	86	27	525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시도 유형 문화재	161	307	187	229	237	442	550	36	3,243
시도 무형 문화재	29	27	53	83	50	36	39	21	576
시도 기념물	80	133	161	118	192	152	255	128	1,703
시도 민속 문화재	4	20	28	35	40	158	21	82	469
소계	274	487	429	465	519	788	865	267	5,991

자료: 문화재청(2018),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21쪽.

- 가장 많은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지역은 경남으로 총 865건이며, 그 다음으로 경북(788건) > 경기(525건) > 전남(519건) > 서울 504건 순으로 많음. 세종시는 총 27건의 시 지정문화재를 보유해 큰 차이를 보임
- 세종시는 문화재자료를 총 13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10건) 다음으로 가장 적은 수입. 문화재자료는 경남(627건) > 경북(555건) > 충남(314건) >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음

[표 3-16] 지역별 문화재자료 현황

(단위 :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문화재자료	63	98	52	25	30	58	30	13	172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문화재자료	143	88	314	156	238	555	627	10	2,672

자료: 문화재청(2018a),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21쪽.

- ②문화유산의 보수·정비: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 및 전통 사찰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이 이에 해당함. 향후에도 문화유산에 대한 보수·정비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③무형문화재 보전·전승: 무형문화재 전승 및 공개행사 지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추진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됨. 그런데 세종시에는 무형 문화재의 전승, 교육, 기타 활용 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전수교육관이 건립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건립 사업 추진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3-17] 시·도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2018년 2월 기준)

구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전수교육관수	전체	4	4	0	2	1	4	0	17	14	9	17	13	22	18	22	5	0	152
	국립지원건립	2	2	0	2	1	4	0	8	8	9	9	12	14	12	20	5	0	108
입주종목수	국가정	21	3	-	5	1	-	-	5	3	3	5	6	16	5	19	6	-	98
	시·도정	24	10	-	23	-	20	-	14	11	6	15	12	18	15	22	5	-	195
	계	45	13	0	28	1	20	0	19	14	9	20	18	34	20	41	11	0	293

자료: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2018.6.29.).

- ④역사문화자원 활용 활성화: 향토문화유산, 역사적 인물자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과 시민들이 지역의 문화자산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향교 및 전통산사 활용 사업이 이에 해당함
 - 예를 들어,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은 세종시가 '김종서장군 묘'를 기념물로 지정하고, 역사적 인물 자원에 주목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화재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임
 - 1단계(2015~2017년)에서는 묘역 정비, 추모제향공간,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조성계획이 이루어졌고, 2단계(2017~2020년)에서는 김종서장군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되고 있음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우수사례 조사

1. 해외사례
2. 국내사례
3. 소결

4장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우수사례 조사

1. 해외사례

1) 프랑스

(1) 프랑스 문화재 관리조직

- 프랑스는 국가에서 문화유산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는데, 2004년 「지방의 자유 및 책임에 관한 법률(Relative aux libertés et responsabilités locales, 2004.08.13.)」을 제정한 계기로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게 됨(이진우, 2018)
- 이에 따라 문화유산 정책도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음
 - 프랑스 문화부의 ‘문화재국(DAPA, Direction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국(DRAC,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및 ‘건축문화재과(STAP, Services Territoriaux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가 문화재 업무를 분담함(이진우, 2018)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는 레지옹(région) - 데파르트망(département) - 코뮌(commune)²⁾의 3단계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부는 각 지방지부에 레지옹 산하의 지방문화국(DRAC)과 데파르트망 산하 건축문화재과(STAP)를 두어 지방정부의 문화재 관련 업무

2) ① ‘레지옹’은 여러 개의 데파르트망을 묶는 지방행정 단위로 1982년 3월 2일의 지방분권 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지위가 부여됨. 레지옹은 총 26개(본토 22개와 해외 데파르트망 4개)가 있으며, 각 레지옹은 2~8개의 데파르트망으로 구성되며, 지역 의회(conseil régional)가 관할함.

② ‘데파르트망’은 프랑스 혁명 이후 만들어진 프랑스 국가지방행정 단위에서 주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일반의회(conseil général)’가 관할하는 자치단체임.

③ ‘코뮌’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의회(conseil municipal)’가 관할하는 자치구임. 코뮌은 역사적으로 교회의 교구(parish)에서 발달된 것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 교회의 영향력 축소 등을 이유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편성됨.

- 김용(2016), <교육선진국의 교육관련 조례 제정 현황 비교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로 활용하고 있음(문화재청, 2014)

-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문화재를 지정·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지방정부(레지옹·데파르트망·꼬뮌)위원회에서 지정 계획을 의결할 수 있음
- 지방문화국과 건축문화재과의 소속원은 지방 문화재 심의위원으로 활동함(문화재청, 2014)
- 프랑스는 문화유산의 통합적 관리 강화를 위해 문화부 부속기관인 ‘국가 문화유산센터(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 CMN)’를 두고 있음
- 국가문화유산센터는 2000년에 설립됐으며 문화유산의 보존·전시·홍보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통합운영자로서 프랑스 문화부의 과학적·기술적 감독 아래 문화유산이 낙후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념물 및 소장품을 보존·복원·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함(프랑스 국가문화유산센터 홈페이지)
- ‘국립박물관협회-그랑 팔레(La Reunion des musees nationaux-Grand Palais, Rmn-GP)’는 문화부 감독 하의 공공 문화기관임
 - 1895년 국가의 문화예술품 소장을 위해 설립되어 1990년에 공기업으로 전환된 ‘국립박물관협회(Reunion des musees nationaux: RMN)’와 파리만국박람회를 기념해 건립된 전시장이자 박물관인 ‘그랑 팔레(Grand Palais)’가 2011년에 합병된 것임(프랑스 국립박물관협회-그랑 팔레 홈페이지)

[표 4-1] 프랑스 문화부의 조직 구성

중앙정부	레지옹	데파르트망	꼬뮌
	레지옹 위원회 (Conceil régional) ⇨ 역사적 문화재(부동산) 지정·등록 제안	데파르트망 위원회 (Conseil général) ⇨ 역사적 문화재 지정·등록 제안	꼬뮌(시) 위원회 (Conseil municipal) ⇨ 역사적 문화재 지정·등록 제안
문화부 (Ministere de la 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문화유산센터 (문화부 부속기관) 국립박물관협회-그랑팔레(문화부 감독·상공문화기관) 	레지옹 지방문화국 (DR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재부 건축문화자산부 매장문화재부 	건축문화재과 (ST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문화자산 건축사(ABF)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문화재 관리를 위한 협의(조언, 감독, 보존제정 지원기관) </div>
역사적 기념물 국가 심의위원회 ⇨ 역사적 문화재 지정 심의	문화재자연문화유적지 레지옹 심의위원회 ⇨ 역사적 문화재(부동산) 지정·등록 심의	동산 문화재 데파르트망 심의위원회 ⇨ 역사적 문화재(동산) 지정·등록 심의	

자료: 문화재청(2014),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134쪽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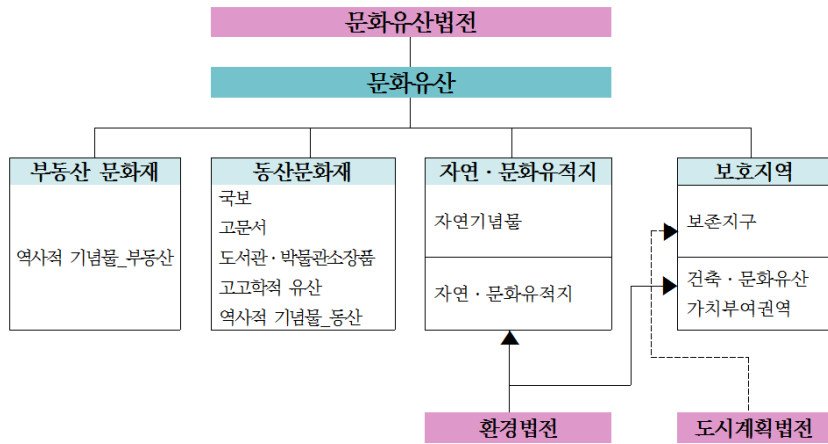
(2) 제도

- 프랑스의 문화유산 관련 제도는 1830년 프랑스 내무부의 ‘미술품과 고건축 조사를 통한 문화재 보호’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으며, 1841년에는 문화재지정제도가 도입됨(이승규, 2005; 신상철, 2017; 이진우, 2018)
- 그 이후 1887년 「역사유적의 보호에 관한 법률」, 1913년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법률」, 1930년 「자연적 기념물과 예술적·역사적·과학적·전설적 경관의 보호에 관한 법률」, 1962년에 「역사지구보존법(일명 Marlo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 「문화유산법전」을 제정해 문화재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던 법령들을 통합함

[표 4-2] 프랑스의 주요 문화유산 관련 법률

연도	법률	내용
1887	「역사유적의 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이 제정된 이후 문화재 지정대상의 확대와 보호 영역의 확장에 관한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었고, 이후 관련 법규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됨
1913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됨 예술상 가치가 높은 건축물, 미술공예품은 문화부장관이 역사기념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음 위원회는 건축·미술·고고·유적 등 3개 분과로 구성되고 지정문화재 목록을 작성함 국가는 건축물과 유적의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하며 현상변경을 규제함
1930	「자연적 기념물과 예술적·역사적·과학적·전설적 경관의 보호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
1943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기념물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1913년의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적과 역사기념물 주위 500m 이상 지역까지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함
1962	「역사지구보존법」 (일명 Marlo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초대 문화부 장관인 앙드레 말로(Andre Malraux, 1901~1976)는 보다 적극적인 문화유산 정책을 추진함 지역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고려해 지역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원형 그대로의 보존보다는 현대적인 활용을 권장함. 즉, 문화유산의 보존과 실생활에서의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추구함 이 법이 제정된 1962년을 기점으로 지정문화재의 주변(abord), 사이트(sites), 지역(secteur urbain)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전통적인 역사유적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일반 주택, 농촌 주거 공간, 산업 시설 등이 1960년대 이후 새로운 문화재의 유형에 포함됨
2004	「문화유산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에서는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별로 구분되어 있던 법령들을 2004년 문화유산법전으로 통합함 문화재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존과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함

자료: 이승규(2005); 문화재청(2014); 신상철(2017); 이진우(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자료: 문화재청(2014), 133쪽 내용 재구성.

[그림 4-1] 문화유산법전에서 정의하는 문화재의 유형 및 관련 타 법전

(3) 정책

- 프랑스의 문화유산 활용정책은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특성을 지님
 - 프랑스의 문화유산 정책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 방식을 통해 공공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며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접근을 이루고 있음(이진우, 2018)



자료: 그랜드 리옹(메트로폴 리옹) 공식 페이스북.

[그림 4-2] 2017년 ‘문화유산의 날’ 전경

- 198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날(La journee de la patrimoine)” 사업에서도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공공에의 기여라는 특징이 잘 드러남 (이진우, 2018)
- 프랑스는 매년 9월 세 번째 주말에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유산 관련 기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그 해에 설정된 주제에 따라 문화유산을 다양하게 해석한 전시·교육·교류·이벤트 등을 운영

(4) 기타 특성

□ 프랑스의 문화재 관련 교육기관

- ① 국립문화재학교(INP)
 - 프랑스 문화부 산하의 ‘국립문화재학교(Institut National du Patrimoine, INP)’는 학예사·보존전문가 양성기관임
 - 이는 1990년 학예사 양성기관으로 출범한 ‘국립유물학교(École national du patrimoine, ENP)’와 보존전문가 양성기관인 ‘국립미술품 보존연구소(Institut de formation des restaurateurs d’oeuvres d’art, Ifroa)’가 통합되어 2001년에 설립된 기관임(한승준·주효진, 2008)
 - ‘문화재 보존·복원학과(Department of conservators)’와 ‘큐레이터학과(Department of curators)’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학과 모두 미술사, 고고학, 역사, 언어 등 4년의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학생들로 입학 자격이 제한됨(국립문화재학교 홈페이지; 염지은, 2013)
- ② 파리 1대학 문화재 보존·복원학과
 - 파리 1대학 문화재 보존·복원학과는 1973년에 설립됨
 - 미술사·고고학·화학·박물관학 등의 수업은 소르본느·파리 공대, 국립 박물관문화재복원연구센터,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국립박물관연구소 등과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음(염지은, 2013)

[표 4-3] 프랑스의 문화재 관련 주요 교육기관

국립문화재학교(INP)	파리 1대학 문화재 보존·복원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문화부 산하의 국공립박물관 학예사 보존전문가 양성기관 ‘국립유물학교’와 ‘국립미술품 보존연구소’가 통합되어 2001년에 개칭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3년 설치된 파리 1대학의 문화재보존·복원학과 파리 1대학은 전세계에서 문화재보존·복원 학과가 있는 유일한 국립대학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보존·복원학과’와 ‘큐레이터학과’로 나뉘는데, 두 학과 모두 미술사·고고학·역사·언어 등 4년의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학생들로 입학 자격이 제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사·고고학·화학·박물관학 등의 수업은 소르본느·파리 공대, 국립박물관문화재복원 연구센터,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국립박물관 연구소와 연계하여 진행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학년 과정으로, 도자기·금속, 그래픽디자인, 섬유, 가구, 회화, 조각, 사진 등 7개의 전공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을 마스터하면 졸업증서가 주어져 바로 문화재 복원현장에 투입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보존·복원관련 ‘실기’에 강함 프랑스 ‘문화부’에 소속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학·인문학·역사 연구’에 강함 프랑스 ‘교육부’에 소속된 학과

자료: 프랑스 국립문화재학교 홈페이지; 염지은(2013); 한승준·주효진(2008)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 파리 건축 문화재 단지(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 건축과 문화재의 관계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샤흐요 궁(Palais de Chaillot) 동편 건물에 파리 건축 문화재 단지(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가 위치함(프랑스 관광청 홈페이지)
 - 기존 샤흐요 궁전 내부에 있던 문화재 박물관을 공사해 전시관을 정비, 소장 품목을 확충하여 2007년 파리 건축 문화재 단지로 개장함(네이버 지식백과 “파리 건축 문화재 단지”, 2018.06.20. 검색)
- 다양한 건축 자재, 건축 문화재 관련 자료·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는 대규모 단지로, 유서 깊은 주요 건축물들의 가치와 상징성을 되새기고 도시 환경 및 건축 문화재 보호에 관한 일반인들의 이해와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설립됨(프랑스 관광청 홈페이지)



자료: 파리 건축 문화재 단지 홈페이지.

[그림 4-3] 파리 건축 문화재 단지 내부

(5) 시사점

□ 문화재 보호·관리·활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

- 프랑스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부의 문화재국이 중심이 되어 지방정부의 지방문화국과 건축문화재과가 문화재 업무를 분담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그리고 문화재 보존에 관한 인식수준이 높아, 건축 및 건설관련 규제가 강해도 부처 간 갈등이 적은 편임(한승준·주효진, 2008)
- 문화부는 레지옹 산하의 지방문화국과 데파르트망 산하 건축문화재과를 통해 지역의 문화정책에 대한 자문, 통제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음
- 한편 지방정부도 자체 권한으로 문화재를 지정·등록하는 것이 가능하고, 문화재 지정을 위한 지방정부의원회의 의결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앙정부에 대한 통제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이진우, 2018; 문화재청, 2014; 한승준·주효진, 2008)

□ 효율적인 통합관리 방식의 문화재 관리기구 운영

- 국가문화유산센터는 소속 문화유산의 보존·복원·유지 등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국립박물관협회-그랑 팔레는 20여개의 미술관·박물관과 협력하여 전시, 운영, 홍보 등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프랑스 국립박물관 협회-그랑 팔레 홈페이지; 프랑스 국가문화유산센터 홈페이지)

- 이처럼 국립박물관협회-그랑 팔레와 국가문화유산센터는 자율적인 통합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며, 매년 발간하는 백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경영실적에 대한 자세한 통계자료 및 경영실적개선 결과를 제공함. 이를 통하여 문화재 관련 개별기관들에 대한 효율적·전문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한승준·주효진, 2008)

□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전문가 양성 기관의 운영

- ‘문화재 보존·복원학과’와 ‘큐레이터학과’로 구성되어 있는 국립문화재 학교와 파리 1대학의 ‘문화재 보존·복원학과’에서 문화재 분야 전문가가 양성되고 있음
- 이 교육기관들은 문화재 관련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재 복원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문화재 보존에서의 전문성을 높여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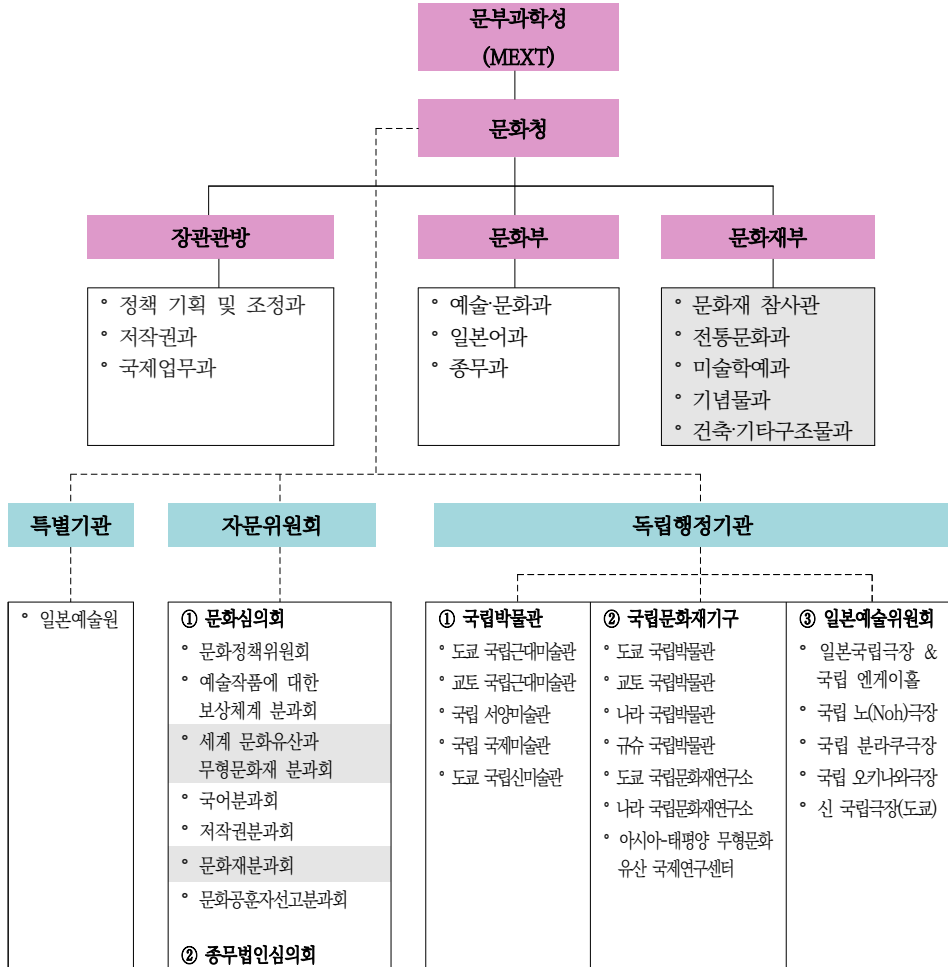
2) 일본

(1) 일본 문화재 관리조직

□ 중앙정부

- 일본의 문화유산 정책은 문화과학성의 '문화청'에서 주관함. 문화청은 1968년 '문화국'과 '문화재보호위원회'가 통합돼 창설된 조직임
- 문화청 내의 '문화재부'는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을 담당함
 - 문화청의 '문화재부'는 ①전통문화과, ②미술학예과, ③기념물과, ④건축·기타 구조물과로 조직됨(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 독립 행정기관으로 '국립문화재기구', '국립박물관', '일본예술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기관은 특성에 맞게 문화재 관리·활용 업무를 수행함(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 국립문화재기구에는 4개의 박물관(도쿄국립박물관, 교토국립박물관, 나라국립박물관, 규슈국립박물관)과 3개의 연구소(도쿄문화재연구소, 나라문화재연구소,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연구센터)가 있음
 - 국립박물관에는 5개의 미술관·박물관(도쿄국립근대미술관, 교토국립근대미술관, 국립서양미술관, 국립국제미술관, 도쿄국립신미술관)이 속함
 - 일본예술위원회에는 5개의 극장(일본국립극장 & 국립 엔게이 홀, 국립 노 극장, 국립 분라쿠극장, 국립 오키나와 극장, 신 국립 극장)이 있음
- 문화청 산하 특별기관에는 '일본예술원'이 있고, 자문위원회에는 '문화심의회'와 '종무법인심의회'가 있으며, 이 중 문화심의회 안에 '세계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 분과회'와 '문화재분과회'가 속함
- 문화청 외에도 중앙정부의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외무성 등은 필요에 따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연계기관으로서 법률제정 및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데 참여함(문화재청, 2014)

[표 4-4] 일본의 문화청 조직



자료: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 지방공공단체

- 지방공공단체의 경우는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중앙의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의 자체 문화재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보존 사업을 추진함(문화재청, 2014)
- 교육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문화재 보존 관련 업무를 행정기관과 독립된 각급 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표 4-5] 일본의 문화재 관리 관련 기관

기관	소속 부서	과	주요 업무	특징
문화청	문화재부	문화재참사관 (건조물 담당)	역사적 건조물 보존·지정	지정문화재 선정 및 해당 문화재 보존 지원
		전통문화과	무형민속문화재의 보존·지정	
		미술학예과	고미술품, 고고자료, 역사자료 보존·지정	
		기념물과	사적 보존·지정	
		건축·기타 구조물과	건축·기타 구조물 관리	
독립행정 법인 국립문화재 기구	국립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통합		문화재보관·소장	문화재 보관 기관의 일원화
			문화재전시·연구	문화재 전시 기관의 일원화
			문화재보존·수복	문화재 수복 기관의 일원화
지방 (도도부 현) 공공단체	교육위원회		매장문화재 발굴	국가기관 등과 문화청이 필요시 별도로 발굴 가능

자료: 문화관광부(2007), 124쪽 참고하여 재구성.

□ 민간조직

- 2000년대부터 일본은 지역과 민간이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활 문화를 강조함. 이는 문화유산 활용정책에도 반영되어 지역민에게 친숙한 경관이나 전통예능을 보호·육성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이진우, 2018)
- 문화재 관련 민간조직으로 ‘건조물문화재 수리 전담 조직’, ‘유적 보호를 위한 민간 조직’, ‘문화재 지원사업 민간조직’ 등이 있음
 - 건조물문화재 수리 전담 조직: 교토부, 나라현, 시가현의 세 곳에서만 자체 교육위원회에서 건조물 문화재 수리를 담당. 나머지 지역의 수리 공사를 담당할 기술자의 확보, 고용 안정과 대우 개선, 보존기술의 향상, 연수 양성, 자료 수집 등을 목적으로 1974년 6월 ‘재단법인 문화재 건조물 보존기술협회’가 조직되었고 현재는 공익재단법인이 됨. 이 기관은 국보·중요문화재·기타 건조물문화재 등의 보존 수리공사의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담당함(문화재청, 2014)

- 유적 보호를 위한 민간 조직: 유적의 발굴조사·화학 분석·사적정비 등에 관한 민간조사기관이 모여서 결성한 조직임. 일본 내각부가 인정한 공익사단법인으로 ‘일본문화재보호협회’가 있음(문화재청, 2015)
- 문화재 지원사업 민간조직: 대표적인 문화재 지원사업 민간조직으로 ‘공익재단법인 문화재보호·예술연구구성재단’, ‘공익재단법인 내셔널 트러스트’가 있음(문화재청, 2015)

□ 전문가 네트워크 조직

- 2006년 6월, 일본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은 이 분야의 국제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같은 해 일본의 독립행정기관인 도쿄 국립 문화재연구소 내에 설립됨(일본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 홈페이지)



자료: 일본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그림 4-4]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 조직도

- 이 조직은 국제협력을 통해 문화유산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국제 협력을 지원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간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유산의 국제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해 옴(일본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 홈페이지)
-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의 사무국은 도쿄문화재연구소가 문화청으로부터 위촉받아 운영하고 있음(문화재청, 2014)
 -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은 회원 간의 정보 교류와 공유를 촉진하고, 해외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력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보급·계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문화재청, 2015)

(2) 제도

□ 일본의 주요 문화재 관련 법률

- 1871년 「고기구물보존법」이 제정되었으며, 1897년 제정된 「고사사 보존법」은 일본의 역사자산 보전을 위한 본격적인 법 제정의 출발점이 되었음
- 그리고 1919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법」, 1929년 「국보보존법」, 1933년 「중요미술품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호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1950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그로부터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일본의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 자리 잡음(이진우, 2018; 문화재청, 2014)

□ 고도보존과 마을만들기

- 「문화재보호법」 체계는 고도를 적절히 보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로부터, 1996년 「고도의 역사적 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고도보존에 관한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문화재청, 2015)
 - ‘고도(古都)’란 과거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갖는 도시를 말하며 교토시, 나라시, 가마쿠라시 등이 해당됨

- ‘역사적 풍토’란 역사상 의미있는 건축물, 유적 등이 주변의 자연환경과 일체를 이루어 고도의 전통과 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토지의 상황을 의미함
- 보존지구의 유형은 ①역사적 풍토 보존구역, ②역사적 풍토 특별보존 지구로 나뉘며 전자는 국가가, 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함

[표 4-6] 일본의 주요 문화재 관련 법률

제정 연도	법률	내용
1871	「고기구물보존법」	◦ 1871년 미술공예품 등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
1897	「고사사보존법」	◦ 신불(神佛)분리령의 발단인 불교배척에 의한 사원몰락과 구체제(에도막부)의 상징인 성곽파괴, 문화재 해외 유출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제정됨 ◦ 이 법을 근거로 사찰의 보호를 위한 지정, 고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보물류의 유지와 수리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등이 가능해짐
1919	「사적명승천연기념물법」	
1929	「국보보존법」	◦ 보호대상의 범위 확대와 건축물 이외에 역사적 환경 보호제도가 마련됨
1933	「중요미술품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	
1950	「문화재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유형 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뿐만 아니라 근대문화재, 전통적 건축물군, 문화적 경관 등으로 대상이 확대됨 ◦ 이 법은 「국보보존법」, 「사적명승천연기념물법」, 「중요미술품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재에 관한 법률의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임 <p>[문화재 보호법 개정 연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4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창설, 무형문화재 기록선택제도 창설, 매장문화재 및 민속자료가 유형문화재로부터 독립, 매장문화재 포장지 발굴의 사전신고제 등의 실시, 국가민속자료 지정제도, 무형민속자료 기록선택제도 창설 등 ◦ 1968년: 문화청 발족, 문화재보호심의회 설치 ◦ 1975년: 매장문화재·민속문화재 제도 정비,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역 제도 신설, 문화재보존기술 보호제도 신설 ◦ 1996년: 문화재등록제도 창설 ◦ 1999년: 문화심의회로 개혁, 등록유형문화재제도 도입 ◦ 2004년: 문화적경관과 민속기술을 새롭게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여 보호대상의 범위 확대, 근대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이외의 유형 문화재에 ‘문화재 등록제도’를 적용

자료: 이진우(2018); 문화재청(2014)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

[표 4-7] 일본의 역사적 경관 유지를 위한 법률

제정 연도	법률	내용
1966	「고도의 역사적 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은 고도보존법이라고도 하며, 고도(古都)의 역사적 풍토를 후세에 계승하고 국민의 공동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자 국가가 강구하는 조치를 규정한 법
2004	「경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도시, 농산어촌 등의 경관 형성, 경관계획 수립, 기타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를 형성, 운택한 생활환경 창조, 개성있고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 경관법에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에 일정의 제약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점에서 규범적 의의가 있음
2008	「지역의 역사적 풍치유지 및 향상에 관한 법률(약칭: 역사마을 만들기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환경을 유지 및 향상시켜 후세에 계승하기 위해 제정 일본의 마을에는 성이나 신사, 불전 등의 역사상 가치가 높은 건조물이 있고, 그 주변에는 마치야(상가 겸용 주거)나 부케야시키(사무라이 거주지) 등의 역사적 건조물이 남아 있음 이러한 곳에서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공예품의 제조·판매, 제례행사 등을 진행하여 지역고유의 풍취와 정서, 분위기를 형성하게 됨

자료: 이진우(2018); 문화재청(2014)을 참고하여 작성.



교토시

나라시

자료: 이경훈(2017.01.04.); 일본 나라시 관광협회 홈페이지.

[그림 4-5] 일본 고도(古都) 전경

(3) 정책

□ '일본 유산' 인증 사업

- 일본 문화청은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재의 기원이 된 스토리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지역, 명소를 '일본 유산(Japan Heritage)'으로 인증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스토리에 필요한 매력적인 유·무형의 문화재군을 지역이 주체가 되어 종합적으로 정비·활용하고, 국내·외에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문화재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일본 시가현 관광 공식홈페이지)
- 이 사업은 2015년에 시작되어 2020년 '도쿄 올림픽'이 개최될 때까지 100건을 인증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 중이며, 문화유산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매력과 특색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스토리, 이야기성을 중시함(일본유산 미토쿠 산 미사사 온천 홈페이지)



자료: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일본 유산 팜플렛(영어판)'.

[그림 4-6] '일본 유산' 인증로고

- '일본 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은 ①역사적으로 독특한 전통이나 관습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짐, ②해당 지역의 매력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며, 여기에는 구조물, 고고학 유적지, 관광지, 지역 축제와 같은 문화유산이 포함될 수 있음, ③단순한 지역 역사의 요약이라기 보다는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이야기가 포함됨(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일본 유산 팜플렛(영어판)')

[표 4-8] '과거 문화재 정책'과 '일본 유산 정책' 비교

과거 문화재 행정	일본 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유산을 '장소(Site)'로 지정하여 보존 • 갑옷 ← 국보, 중요문화재 • 사당, 절 • 성(castle) • 고고학유적지 <p style="text-align: center;">경치가 아름다운 사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공연예술 ← 무형/민속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문화유산 진흥을 위해 각각의 이야기, 거주지, 문화유산을 연결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활용'에 집중 • 지역브랜드 홍보·지역정체성 인식제고

자료: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일본 유산 팸플렛(영어판)' 2쪽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 '일본 유산'은 각 유산을 '장소'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보존'에 치중하여 지역의 호소력을 잘 전달하지 못했던 과거의 문화재 정책과 달리, 일본 유산의 진흥을 위해 각각의 이야기, 거주지, 문화유산을 연결하고, '장소 활용'에 집중하여 지역브랜드 홍보 및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일본 유산 팸플렛(영어판)')

□ 문화재 지정기부를 통한 '세제 우대' 정책

- 국보·중요문화재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하는 경우에 문화재의 소유자(=수리 사업자)가 일반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수리비의 일부를 충당하기도 하는데, 이 때 기부한 법인이나 개인이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는 '지정기부금'이라는 정책이 있음(한승준·주효진, 2008)
 - 법인이나 개인이 지정기부금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에 기부를 했을 때 받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는 ①법인의 경우(법인세) 통상의 손실금 산입의 한도액과는 별도 기준으로, 기부한 금액의 전액을 손실금에 산입할 수 있고, ②개인의 경우(소득세) 「기부한 금액(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40%를 한도)-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음(한승준·주효진, 2008)

(4) 기타 특성

□ 일본의 전통공예 도시 ‘가나자와’

- 전통공예 도시로 잘 알려진 가나자와 시의 중심에는 장인공장이 집중되어 있고, 이 곳에서는 전통적 방식의 공예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에도시대 ‘마에다 가문’이 공예를 장려한 결과임
 - 가나자와에는 전통 금박기술을 활용한 금박지, 도자기, 카가유젠(기모노 염색)을 중심으로 한 섬유산업, 오동나무 수공업 등 26개의 전통산업이 발전되어 있으며, 전통공예분야의 인구 1인당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숫자가 일본에서 제일의 많음(김숙경, 2016)
- 또한 가나자와는 2009년 6월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가장 잘 이뤄진 창조도시’로 선정됨(김숙경, 2016)
- 공예도시 가나자와를 향한 도시정책과 문화행정은 공예교육에서부터 시작됨(김후련, 2012)
 -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과 ‘우다쓰야마 공예 공방’이 있음

[표 4-9] 가나자와의 전통공예 교육기관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우다쓰야마 공예공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6년 설립 • 칠, 염색, 도예분야 등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많은 인간국보와 예술분야의 제일선에 활약하는 예술가 양성 • 가나자와 지역의 전통공예산업과 연대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교육거점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설립 • 도예, 칠예, 염색, 금속공예, 유리공예의 5개 분야에서 연수생을 받아서 창작활동을 지원함 • 연구비는 가나자와 시로부터 보조받으며, 이 곳 수료자들의 약 절반정도가 수료 후 가나자와에 정착하여 가나자와 공예산업의 자립에 큰 기여를 함

자료: 김후련(2012)을 참고하여 작성.

- 그리고 가나자와 구시가의 활성화와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도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가나자와 마치 박람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됨(오정심, 2015)

- 2018년 가나자와 마치 박람회(Kanazawa City Life Expo 2018)는 봄 행사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개최되었고, 여름 행사로는 7월 21일에서 8월 26일까지 열림
- 가나자와 마치 박람회는 일반적인 박람회와는 다르게 가나자와 도시 전체를 전람회장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리고 가나자와 지역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전통문화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그 이유는 전통문화의 전승에서 지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오정심, 2015)
- 또한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문화지도 서비스’를 제작하여, 가나자와를 10개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문화유산, 전통 볼거리, 먹거리 등의 정보를 제공함(오정심, 2015)

[표 4-10] 2018 가나자와 마치 박람회 개요

구분	내용
축제명	◦ 2018 가나자와 마치 박람회(Kanazawa City Life Expo 2018)
장소	◦ 가나자와 중심시가지 주변
날짜	◦ 봄 철: 2018.04.01~2018.04.20 ◦ 여름철: 2018.07.21~2018.08.26
주최	◦ 가나자와 도시엑스포 2018 개최위원회
특별협력	◦ 북극신문사
후원	◦ 이시카와 현, 가나자와 시 ◦ 가나자와 경제 동우회, 상공 회의소, 청년 회의소, 상가 연맹, ◦ NHK가나자와 방송국, 호쿠리쿠 방송, 라디오 가나자와 등

자료: 가나자와 마치 박람회 홈페이지 참고.



자료: 가나자와 마치 박람회 홈페이지, ‘가나자와 마치 박람회 2017사업보고서’.

[그림 4-7] 2017 가나자와 마치 박람회

(5) 시사점

□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조직 간의 긴밀한 협력

- 일본의 문화재관리를 위한 정부기관인 문화청의 문화재부는 전통문화과, 미술학예과, 기념물과, 건축기타구조물과로 부서를 세분화하여 운영됨. 그리고 국립문화재기구를 독립행정법인으로 두어 박물관과 연구소를 관리·운영함
-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여러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해 문화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독립된 각급 교육위원회는 문화재 보존정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문화재청, 2015)
- 한편,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건조물문화재 수리 전담 조직, 유적 보호를 위한 민간 조직, 문화재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 조직, 그리고 해외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문화재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민간조직이 활약하고 있음
- 이처럼 일본은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높여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 관리 방안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구축해나감(한승준·주효진, 2008)

□ 스토리 자원을 활용해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전

- 일본 문화청은 문화재의 기원이 된 스토리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지역과 명소를 ‘일본 유산’으로 인증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매력과 특색이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일본의 문화재 정책은 일본이 문화재 자체에 대한 관리·활용에서 나아가 역사적 경관과 지역 문화재의 특색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문화재 스토리 자원까지 문화재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 관리·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2. 국내사례

1) 서울시

(1)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조직

- 서울시 문화본부는 박물관과, 문화시설과,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디자인정책과,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과로 구분됨. 이 중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업무는 역사문화재과에서 담당함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정책팀	사업소
한성백제팀	서울역사편찬원
문화재연구팀	한성백제박물관
국가문화재관리팀	
시문화재관리팀	
세계유산등재팀	

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그림 4-8]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조직

- 역사문화재과에는 6개팀(역사문화재정책팀, 한성백제팀, 문화재연구팀, 국가문화재관리팀, 시문화재관리팀, 시문화재관리팀, 세계유산등재팀)과 2개 산하 사업소(서울역사편찬원, 한성백제박물관)가 조직되어 있음
 - 역사문화재정책팀은 문화재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문화재 보호 조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역사도시 서울’ 관련 업무, 무형문화재 관련 업무,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문화재 야행 사업, 지역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 한성백제팀은 한성백제유적 관련 업무와 한성백제왕도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백제문화권 교류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
 - 문화재연구팀은 매장문화재·동산문화재·부동산문화재 관련업무, 문화재위원회 구성·운영, 문화재 매매업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함

[표 4-11]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주요업무

조직 구분		업무
역사문화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 문화재 보호 조례 운영 •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운영 • 무형문화재 관련 업무 •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자연유산 민속행사지원 • 지역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등
한성백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성백제왕도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운영 • 백제문화권 교류협력 관련 협의 등
문화재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지정 통계자료 작성 및 대외공개 • 문화유적 정밀 지표조사·보존방안 수립 •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지표조사·발굴조사 협의 등
국가문화재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시문화재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위원회 운영 • 시지정문화재 관리 업무(긴급보수, 보수복원·현상변경 등) • 시문화재 관리 관련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 전통문화 발굴지원 사업 •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 등
세계유산등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총괄조정 • 기타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인류무형유산 발굴 • 역사문화유적지 표석 정비, 사료조사 등
산하 사업소	서울역사 편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편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편찬서 발간 - 서울역사학술대회, 관학협동 학술대회 개최 추진 - 서울역사자료실 총괄 운영 - 소장자료 DB 구축·관리 등
	한성백제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과 • 전시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개최 및 운영, 관련 홍보물 발간 • 교육홍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교육, 문화행사 및 홍보 등 • 유물과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과학실 운영, 수장고 관리, 훈증고 운영 등 • 백제학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학술회의 기획·운영, 연구서 간행 - 백제학 DB 구축 - 서울의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기초연구 사업 - U-전시안내시스템 관리 및 운영 등

자료: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국가문화재관리팀은 문화재 정기조사 사업, 문화재 방법·방재시설 설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재 돌봄사업, 서울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천연기념물 관리 등을 담당함

- 이 외에 시문화재관리팀은 시지정문화재관련 관리 업무 등을, 세계유산 등재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정, 기타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인류무형유산 발굴 등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음
- 사업소에 해당하는 서울역사편찬원에서는 각종 시사편찬서 발간, 서울역사학술대회 개최, 기록물 관리 업무, 서울역사자료실 운영, 소장자료 DB 구축·관리 등을 담당함
- 한성백제박물관은 5개의 부서(총무과, 전시기획과, 교육홍보과, 유물과학과, 백제학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백제학연구소에서는 정기학술회의 기획·운영, 백제학 DB 구축, 유물 발굴관련 업무,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기초연구 사업 등을 추진함(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역사문화재과는 총 37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 7명의 학예연구직이 포함되도록 하여 업무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함(서울특별시 문화본부, 2018)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2018년 총 예산은 약 1,821억 원이고, 문화재 보존 복원(일반회계) 약 348억 5천만 원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약 671억 원 증액됨(서울특별시 재정포털 홈페이지 “문화재관리 서울시 문화본부 2018 예산”)

[표 4-12]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17	2018	증감
문화본부 총계	450,296,449	472,587,598	22,291,149
역사문화재과 소계	114,977,811	182,105,046	67,127,235
문화재 보존·복원(일반회계)	38,108,926	34,857,449	△3,261,477
문화재 보존·복원(특별회계)	60,000,000	132,242,857	72,242,857
문화재 지정 관리(일반)	2,949,020	2,637,700	△311,320
전통문화시설 운영(일반)	3,212,561	3,358,290	145,729
전통문화 활성화(일반)	9,140,448	8,437,997	△702,451
기본경비(일반)	66,856	70,753	3,897
보전지출(일반)	1,500,000	500,000	△1,000,000

자료: 서울특별시 재정포털 홈페이지 “서울특별시(2018a), 문화재관리 서울시 문화본부 2018 예산”.

- 역사문화재과 2018년 예산 중 91.8%의 예산이 문화재 보존·복원(일반, 특별회계)에 책정되어, 서울시의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에 역사문화재과 대부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제도

- 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소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재 향유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됨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조례 제6314호))
 - 본 조례는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문화재의 지정,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표 4-13]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주요내용

구분	내용
조례의 목적	·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소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향토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 시장은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문화재 기초조사	· 시장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음
문화재 정보화 촉진	· 시장은 시민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
화재 및 재난 방지	·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지정문화재 등 소유자, 관리 주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지정문화재	· 시장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보존·관리할 수 있음
문화재 자료	· 시장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음
문화재위원회	·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여러 사항을 조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둠
문화재 수리 등	·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문화재수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

자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조례 제6314호).

- ②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에서 전승·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및 활용해 서울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제6851호))
 - 해당 조례는 무형문화재 위원회 운영, 서울시 무형문화재 및 보유자 지정, 정기조사, 전수교육, 전승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표 4-14]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구분	내용
조례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에서 전승·유지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및 활용해 서울시민의 문화적 향상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무형문화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해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둠
시무형문화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정 문화재가 아닌 무형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
시긴급보호 무형문화재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①시무형문화재가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②시무형문화재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는 등의 이유로 전승이 어려워진 시무형문화재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 전승자 발굴, 전승 활동 등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음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시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해야 함. 다만,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특성상 특정한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정기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무형문화재의 전승실태 등에 관해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 ○ 정기조사 대상은 ①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능·역할 현황, ②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③전승자 현황임
전승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자료: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제6851호).

(3) 정책

- 서울시는 <2018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에서 ‘2천년 역사가 살아 있는 “역사도시 서울” 구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 확립 및 가치 확산, 한양도성을 세계인이 사랑하는 서울의 대표 유산으로 확립한다는 목표를 수립함(서울특별시, 2018b)
- 서울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은 6가지 추진 방향(① “2천년 역사도시 서울” 브랜드 홍보 강화, ② 역사문화자원의 지속적·체계적 보존·관리 추진, ③ 전통문화유산의 활용·재현을 통한 시민참여·체험 확대, ④ 이코모스(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세계유물 및 유적지 협의회)의 자문실사를 거쳐 한양도성의 세계유산등재신청재추진, ⑤ 한양도성의 유산가치공유를 위한 노력 지속시행, ⑥ 시민과 함께하는 한양도성 보존·관리 체계 강화)을 갖고 이행되고 있음(서울특별시, 2018b)

비전	2천년 역사가 살아 있는 「역사도시 서울」 구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 확립 및 가치 확산 · 한양도성을 세계인이 사랑하는 서울의 대표유산으로 확립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천년 역사도시 서울」 브랜드 홍보 강화 · 역사문화자원의 지속적·체계적 보존·관리 추진 · 전통문화유산의 활용 및 재현을 통한 시민참여 및 체험 확대 · 이코모스 자문실사를 거쳐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신청 재추진 · 한양도성의 유산가치 공유를 위한 노력 지속 시행 · 시민과 함께하는 한양도성 보존·관리 체계 강화

자료: 서울특별시(2018b), 2018년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1쪽.

[그림 4-9] 2018 서울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서울시 중점과제는 총 82개로, ‘문화재 발굴·지정 확대’ 영역에서 5개 과제, ‘지속적·체계적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영역에서 32개 과제, ‘문화유산 활용·활성화’ 영역에서 22개 과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서 23개 과제가 있음

[표 4-15] 2018 서울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의 주요 중점과제

구분	중점과제
문화재 발굴·지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지정 조사 및 자료 관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전통문화 발굴 지원 등
지속적·체계적 문화재 보존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 정기조사 및 이수자 심사 서울시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학술용역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시지정문화재 보수, 문화재 긴급보수 문화재 방법·방재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지원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무형문화축제 한성백제유적 학술조사 및 연구 생생문화재, 문화재야행 사업 전통산사 문화재활용 및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사업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지역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양도성 학술회의 개최 한양도성 모니터링 및 변형구간 정밀계측 한양도성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망 구축 한양도성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주 : 「2018 서울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에서 제시하는 82개 중점과제 중 일부를 요약적으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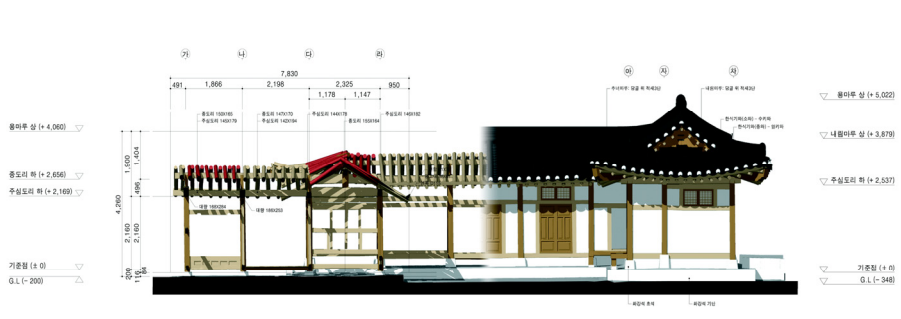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2018b), 2018년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4) 기타 특성

- 서울시는 시민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 9월 서울·수원·화성시 공동 개최로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을 최초로 재현하였으며, 이외에도 서울무형문화축제,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남산 봉수의식 등을 개최함(서울특별시, 2018b)
- 서울시는 과학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한양도성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양도성 성벽 변형구간 정밀계측 실시,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망을 구축함(서울특별시, 2018b)
- 2016년에는 전국 최초로 문화재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3D 도면을 작성하였음
 - 문화재 보존과 기록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산골

한옥마을 대표 가옥 3채(김춘영 가옥, 이승엽 가옥, 옥인동 윤씨 가옥)를 정밀실측 하여 통합건축정보(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을 적용한 3D 도면을 작성함

- 이를 통해 정밀한 문화재 정보의 통합 확보가 가능해짐. 또한 다른 문화재 정보 기록에 확대 및 교육·연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도 개방하고자 함(서울특별시 문화 관광 체육 디자인 홈페이지)



자료: 서울특별시 문화 관광 체육 디자인 홈페이지.

[그림 4-10] 서울시가 문화재 관리에 활용한 3D도면

(5) 시사점

- 서울시의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역사문화재과는 역사문화재정책팀, 한성백제팀, 문화재연구팀, 국가문화재관리팀, 시문화재관리팀, 세계유산등재팀, 2개의 산하 사업소(서울역사편찬원, 한성백제박물관)로 구성됨
 -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와 세계유산을 분류해 각각의 팀에서 관리하는 등 문화재 업무에 대한 역할분담이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 한편 세종시의 경우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업무는 자치분권문화국의 '관광문화재과'에서 담당. 관광문화재과는 ①관광정책, ②관광개발, ③문화재, ④종무로 나뉘어 있으나, 문화재계 담당업무가 하위 팀으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담당 사업의 폭이 비교적 넓지 않다고 판단됨

- 서울시는 과학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더불어 전국 최초로 문화재 관리 활용에 BIM 기술을 적용한 3D 도면을 적용함
- 세종시도 문화재 보존·관리에 과학기술을 선진적으로 도입하고,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제공해 문화재 활용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임

2) 부여군

(1) 부여군 문화재 관련 조직

- 부여군에서는 2개 실과(문화관광과, 백제왕도복원사업단) 및 1개 사업소(문화재사업소)가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함
- 문화관광과는 전통 민속의 육성·지원, 백제문화재추진위원회 운영, 백제 역사문화 탐방·관광 관련 업무를 수행함
- 백제왕도복원사업단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지구(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능산리고분군, 정림사지, 나성)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조직되었고, 역사지구 내 재산 및 시설의 운영과 관리, 세계유산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유·무형 문화재 세계유산 추가등재 추진, 역사지구의 보존·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음

문화관광과	백제왕도복원사업단	문화재사업소
문화예술팀	기획운영팀	문화재정책팀
문화축제팀	세계유산팀	문화재관리팀
관광마케팅팀	보존정비팀	문화재시설팀
관광개발팀		고도보존육성팀
체육진흥팀		문화재활용팀

자료: 부여군 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

[그림 4-11] 부여군의 문화재 관련 실과 및 문화재사업소

- 부여군에서는 문화재사업소가 부여의 역사와 문화, 문화재를 총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부여군 문화재사업소’의 내부 조직과 담당 업무를 상세히 살펴봄
- 문화재사업소는 문화재정책팀, 문화재관리팀, 문화재시설팀, 고도보존육성팀, 문화재활용팀으로 조직되어 부여군의 문화재 정책 수립, 보존 및 관리, 그리고 활용의 실질적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표 4-16]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주요업무

조직 구분	업무
문화재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정책 수립 • 천연기념물 관리 • 백제고도문화재단 지원 및 감독 • 무형문화재·향교·서원·사우제향기로연 지원 • 매장문화재 처리 업무 • 국가·도·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 • 지정·비지정 문화재 조사
문화재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관리업무 •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규암 근대문화마을) • 문화재 돌봄사업 업무, 문화재 안내판 정비 • 문화재구역 관리
문화재시설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보존육성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 국가지정문화재·전통사찰·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보수 정비 및 관리 •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유지보수·관리 •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관리
고도보존육성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보존육성 업무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토지매입, 정비사업 • 주민공감정책사업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 위원회 운영
문화재활용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교 및 유림업무 • 문화시설운영·위탁(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여흥 민씨 고택 운영, 군수리 고택 운영) • 특별보존지구 토지매입(관북리, 구아리, 쌍북리) • 백제기와문화관 운영 • 생생문화재, 산사, 서원향교 활용 사업 • 우리마을 보물창고 사업

자료: 부여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문화재정책팀은 문화재정책 수립, 천연기념물 관리, 백제고도문화재단 지원 및 감독, 무형문화재·향교·서원 등 지원, 국가도·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 지정·비지정 문화재 조사 등을 담당함
 - 문화재관리팀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사비마을 이주단지조성사업, 문화재 돌봄사업, 공립박물관 관리, 문화재 시설(물) 사용허가, 문화재 구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문화재시설팀은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 국가지정(동산, 석조) 문화재·전통사찰(건조물)·도지정(건조물)문화재·향토유적(건조물) 보수정비 및 관리,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및 관리 사업 등을 담당
 - 고도보존육성팀은 고도보전육성 관련 업무와 주민공감정책사업,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 위원회를 운영함
 - 문화재활용팀은 문화시설 운영 및 위탁, 백제기와문화관 운영, 생생 문화재·산사·서원향교 활용, 우리마을 보물창고 사업을 수행
- 부여군 문화재사업소의 2018년도 예산은 항목은 크게 ①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②고도보존 및 육성, ③행정운영경비로 나뉨

[표 4-17] 2018년도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17	2018	증감
문화재사업소 총계	29,223,291	29,748,630	525,339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소계	15,434,629	26,623,340	11,188,711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8,791,714	6,026,714	△2,765,000
세계유산 관리	1,700,000	14,548,700	12,848,700
도지정문화재 정비	412,200	812,400	400,200
문화재 보존 정책	1,891,081	1,752,781	△1,388,300
무형문화재 관리	207,200	187,200	△20,000
전통사찰 관리	506,300	642,120	135,820
향토유적 관리	384,000	100,000	△284,000
충효열시설물 관리	80,000	20,000	△60,000
문화재 및 주변시설(물)관리	1,462,134	2,533,425	1,071,291
고도보존 및 육성 소계	12,222,424	1,282,571	△10,939,853
행정운영경비(문화재사업소) 소계	1,566,238	1,842,719	276,481
인력운영비(문화재사업소)	1,290,187	1,542,248	252,061
기본경비(문화재사업소)	276,051	300,471	24,420

자료: 부여군 홈페이지 “부여군(2018),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화재사업소”.

- 문화재사업소 2018년도 총 예산인 약 297억 원은 2017년 대비 약 5억 2천만 원 증액된 것으로, 전체 예산의 89.5%인 약 266억이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에 배정되었으며 고도보존 및 육성과 행정운영 경비에는 각 4.3%와 6.2%의 예산이 책정됨(부여군 홈페이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화재사업소”)

(2) 제도

- ①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지정문화재, 문화재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2014년에 제정되었음(「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조례 제2374호))
- 조례는 문화재시설의 범주, 관리 및 운영, 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표 4-18]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 주요내용

구분	내용
조례의 목적	· 지정문화재, 문화재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문화재시설 정의	· 문화재시설은 ①부여현관아, 홍산현관아, 석성동헌, 백제관 등 근현대 전통건조물, ②정립사지박물관, 송국리유적자료관, 부여서동문화관 등 박물관, 자료관, 문화관을 말함
관리·운영	· 지정문화재·문화재시설은 일반에게 공개·개관하는 것이 원칙 · 문화재시설·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박물관운영 위원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의 심의사항과 박물관 등의 자료수집·조사·보존·전시·관리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여군 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둠 · 이 위원회는 「부여군 향토문화 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위원회에서 대행하며, 부여군 향토문화 유산 위원회를 준용하여 운영함

자료: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조례 제2374호).

- ②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보존 및 전수교육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2014년 제정되었음(「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조례 제2361호))
 - 조례는 전수교육관의 기능과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관이 운영의 취지를 살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됨. 그러나 전수교육관이 전문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전문가 등의 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4-19]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주요내용

구분	내용
조례의 목적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보존·전수교육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전수관의 기능	•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 • 무형문화재의 공연·재현 및 후계자 양성 •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 • 그 밖에 전수관의 설치목적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운영	• 전수관은 부여군수가 관리·운영함. 다만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할 시, 전수관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음
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도감독	•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음

자료: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조례 제2361호).

(3) 정책

- 부여군은 문화재 관련 시책을 ①정비사업, ②보존사업, ③조성사업, ④ 활용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따라 종합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개발·추진해 오고 있음(부여군 홈페이지)

[표 4-20] 부여군 문화재 관련 주요추진시책

주요시책	내용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 체계적 관리 및 보존의 안정성 확보, 효율적인 보수·정비 사업으로 문화유산 중요성 제고 ◦ 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 철저한 관리 및 보존의 안전성 확보, 보수·정비 사업을 통한 문화재의 인식제고 ◦ 전통사찰, 충효열, 향토유적 정비사업: 효율적 보존관리 ◦ 역사문화중심 궁남로 정비사업: 역사문화 중심 공간의 콘텐츠를 담은 상징거리 조성
보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고도보존사업 추진: 사비왕궁터 발굴조사 및 부소산 경관 정비 등을 통한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내 고도의 정체성 회복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사비마을 조성 사업: 한옥을 모티브로 하는 이주단지 조성을 통한 고도경관회복 ◦ 백제사비왕궁원 조성사업: 백제사비왕궁터의 자원활용을 통한 명소 조성 및 문화 경쟁력 확보
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역사문화자원 활용사업: 고도 부여의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 경쟁력 확보 ◦ 연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백제정원 관리: 궁남지 인공정원의 문화공간 우수성 홍보, 연지관리 및 자연생태환경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

자료: 부여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구성.

- 부여군은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관리와 활용의 분야를 발전·연계시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한 예로, 부여군은 성곽 유적의 보존·관리에 대한 체계적 기록과 보존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곽 유적의 보존·활용을 위해 발굴현장 공개, 유적 탐방코스 및 백제 문화유산 역사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전칠수, 2017)

[표 4-21] 부여군 성곽유적 보존관리 및 활용

구분	내용
부여군 성곽유적 보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곽유적 보존활동: 주민이 참여하는 성곽보존활동은 크게 ①세계유산보존협의체, ②민간자원봉사단체가 있음. 세계유산보존협의체에는 부여군민들로 구성된 ‘부여세계유산보존협의회’와 ‘부여고도보존·세계유산관리주민협의회’가 있음 성곽유적 기록보존: 일반인들에게 백제유산의 가치를 알리고자 도서 발간사업을 해 오고 있으며, 크게 성곽분야 학술도서와 기록화 도서로 구분됨. 2012년~2014년까지는 주요발굴도면을 디지털화(CAD File)하여 정리함
부여군 성곽유적 보존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적 발굴 정비 현장 공개적 활용: 부여군은 중요 유적의 발굴 및 정비 현장을 특정한 시기에 일반인들에게 공개함 유적 탐방코스 운영: 사비도성을 둘러볼 수 있는 ‘사비길’과 ‘백마강둘레길’ 등의 역사탐방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산 가치 홍보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 행사 진행

자료: 전칠수(2017), 세계문화유산 백제성곽의 보존관리와 활용사례에 관한 문화재행정적 접근방안 연구, 325~327쪽을 참고하여 작성.

○ 마지막으로 부여군은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2017년도 충청남도 문화재 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

- 부여군은 문화재지정실적, 도 지정무형문화재 공개행사실적, 문화재 안전관리, 문화재 활용실적 및 문화재관련 시군자체사업 추진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 특히 백제 왕흥사 창건 14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과 사비567년 능사 창건 콜로키움 등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백제 역사를 널리 홍보하였고, 각종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운영했으며, 부여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됨 (이정복, 2017.12.15.)

(4) 기타 특성

- 부여에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박물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위치해 있음. 비록 부여군이 설립한 기관은 아니지만 지역 내 문화재 연구, 전시, 교육 시설이 위치함에 따라 기관 간 연계 사업 추진이 타 지역보다 유리하다는 특성을 지님

- 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백제문화권 지역의 주요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조사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익산 미륵사지 발굴조사단'을 모체로 1990년 발족하였음(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 ①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문화유적의 학술조사 연구, ②백제문화권 내의 중요 문화유적 지표 및 발굴조사 연구, ③출토 유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 ④국제교류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연구소의 주요 임무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백제도성·백제사찰 학술조사와 백제유물 심화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산에 대한 보존과 연구, 전시를 병행하여 문화자산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

[표 4-2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주요추진업무

구분	내용
백제도성 학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 왕궁리 유적 발굴조사 • 부여 관북리 백제 유적 발굴조사 • 백제도성 유적지도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 부여지역 백제고분 지표조사 • 출토유물 보존처리 등
백제사찰 학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 폐사지 종합학술조사 • 백제사찰 학술조사 연구 • 부여 왕흥사지·정림사지·군수리사지 유적 발굴조사 등
백제유물 심화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사비기 기와연구 • 부여 왕흥사지 출토 유리구슬 정밀분석 • 고고직물연구
출토유물보관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토된 유물을 신속하게 공개하여 많은 연구자들의 학술연구에 도움을 주고, 일반인들에게는 문화재를 보다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전시실 운영

자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

- 특히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준비단'과 함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함

[표 4-23] 부여군 백제왕도 핵심유적 개요

구분	유적명	종목	소재지	비고
왕궁유적	관북리 유적	사적 제428호	부여읍 관북리 33외	세계유산
	화지산 유적	사적 제425호	부여읍 동남리 105외	
제의유적	능산리 고분군	사적 제14호	부여읍 능산리 15	세계유산
	능안골 고분군	사적 제420호	부여읍 능산리 75-7외	
관방유적	부여 나성	사적 제58호	부여읍 엽창리	세계유산
	부소산성	사적 제5호	부여읍 쌍북리, 관북리, 구교리	세계유산
	가림성	사적 제4호	임천면 성흥로97번길 167	
불교유적	정림사지	사적 제310호	부여읍 동남리 254	세계유산
	왕흥사지	사적 제427호	규암면 신리	
	군수리 사지	사적 제44호	부여읍 군수리 95	
생활유적	정암리 와요지	사적 제373호	장암면 정암리 47	
	구드래 일원	명승 제63호	부여읍 쌍북리 산1	

자료: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준비단·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16),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기본계획, 143쪽.

[표 4-24] 부여군 핵심유적별 기본구상

구분	내용
부여 왕흥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터만 남아 있는 부여 왕흥사지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전형적인 백제가람 형태 복원 및 철저한 고증을 거쳐 옛 나무를 재현 및 수상교통의 요지로 활용
부여 관북리 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관 등 경관저해요소 정비 사비시대의 왕궁을 찾아 관북리 유적의 정당성을 확보 및 발굴현장을 공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세계유산방문자센터를 건립해 관람객에게 안내·정보제공
부여 부소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성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수목 정비, 탐방로와 산책로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위한 정비 문지의 사역범위 확장과 발굴조사
부여 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성 유구와 월함지 성격규명을 위한 토지매입·발굴조사 백제성벽의 단면절개구간 노출전시
부여 능산리 고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서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 능산리 사지 및 나성의 통합 안내시설 건립 백제시대 왕의 무덤에 대한 연구 진행
부여 정림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4D체험이 가능한 박물관 전시시설 추가와 리모델링

자료: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준비단·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16),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기본계획, 153-154쪽 참고하여 작성.

- 문화재청과 5개 광역·기초자치단체(충청남도·전라북도·부여군·공주시·익산시)는 2014년 12월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한 백제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정비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준비단’을 구성(정찬욱, 2015.3.20.)
- 부여군에 분포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에는 유적지에 대한 보존·복원, 연구·연구, 시설보완, 다양한 활용계획이 담김

② 국립부여박물관

-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국립부여박물관은 1929년에 발족된 부여고적 보존회로 시작되어, 1945년 10월 국립박물관 부여 분관으로 출범하였고, 1975년 8월 국립부여박물관으로 승격, 1993년 8월 현 박물관으로 이전하여 개관함(국립부여박물관 홈페이지)
- 백제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할 뿐만 아니라, 유적·유물의 전시와 조사 연구, 문화교육, 국제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과 연령에 맞는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함(국립부여박물관 홈페이지)

[표 4-25] 국립부여박물관 주요업무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박물관 특성화 육성사업 • 상설전시실(제1전시실~제3전시실)·기증유물실 관리, 전시실 방호 및 안내 • 각종박물관 홍보, 박물관 브랜드화 사업, 전시 앱서비스 관리 • 수장고 관리, 소장품 관리(임시이관대여 및 촬영, 열람 등), 기자재 관리(Hard X-ray설치, 분석 장비 등) • 소장품 및 전시품 보존처리(토기, 도자기, 금속, 목재), 소장품 및 전시품 조사 및 분석, 전시품 3D조사 • 어린이박물관 운영(주말프로그램, 방학프로그램, 학교연계프로그램, 문화나눔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인·전문가 대상 프로그램) • 학예실운영(학예 민원 등), 자원봉사자 운영 및 교육, 국립부여박물관회 운영 • 국제교류, 사비마루 문화행사 및 야간개장, 문화재그림 그리기 대회 등

자료: 국립부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특히 국립부여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과 사비마루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지역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이처럼 지역 내 전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공연장 운영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복합문화시설로서의 박물관이 위치해 있어서 지역민들이 문화유산을 체험 및 향유하며, 이를 통한 문화 및 학술상의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역할을 함
- ③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민족자존 문화창달’을 위해 2000년 3월 개교했으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대학임(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표 4-2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개설학과

단과대학/대학원		학과(전공)		비고/세부연구분야
단과대학	기술과학대학	전통건축학과		학사·석사 연계과정
		전통조경학과		
		문화재보존과학과		
	문화유산대학	전통미술공예학과		
		무형유산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융합고고학과		
대학원	일반대학원	전통건축학과		학사·석사 연계과정
		전통미술공예학과		
		문화유산융합학과	(문화재 관리학)	
	(고고학)			
	(무형유산학)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건축·조경·도시)	건축문화재, 문화재조경, 도시유산·세계유산
(보존·복원)			보존과학, 지류회화	
문화유산산업학과		(문화기술)	디지털 영상처리, 디지털 문화유산	

자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크게 기술과학대학과 문화유산대학으로 구분됨
 - 기술과학대학에는 전통건축학과, 전통조경학과, 문화재보존과학과가 있으며 문화유산대학은 전통미술공예학과, 무형유산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융합고고학과로 구성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과정 중 일반대학원에는 전통건축학과, 전통미술공예학과, 문화유산융합학과가 있으며, 문화유산전문대학원은 문화재수리기술학과, 문화유산산업학과로 구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속기관인 전통문화교육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련 업계 종사자, 문화재수리기술자·발굴조사원 등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일반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
 - 전통문화교육원은 크게 ①전통장인 교육과정, ②집합교육과정, ③이러닝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이 중 전통장인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심화과정, 현장위탁과정으로 나뉘고, 집합교육과정은 직무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사회교육과정, 국제교육과정으로 세분화됨
- 이처럼 부여는 지역 내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서 지역의 문화재, 문화자산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시행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다른 지역보다 풍부하다는 이점을 지님

[표 4-27]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과정

	구분	내용	개설종목
전통장인 교육과정	기초과정	전통 기초기능 숙련 (전통 기법·도구·재료)	옷칠, 소목(창호), 단청, 배첩, 도금, 철물(장석, 대장간), 모사
	심화과정	전통 고급기능 숙련과 문화재 수리역량 배양	옷칠, 소목(가구), 단청, 배첩(보존 처리), 철물(장석, 대장간), 모사(불화), 보존처리(지류)
	현장위탁 과정	화재수리·보수현장에서 작업참여를 통한 기능숙련	한식석공(가공, 쌓기), 석조각, 한식 미장, 번외와공, 대목, 드잡이, 구들
집합 교육과정	구분	교육대상	내용
	직무 교육과정	국가·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전통문화, 문화재 관련 분야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향상,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인식을 제고 도모
	전문 교육과정	문화재 관련 전공자· 기술자, 초·중등 교원, 문화유산 방문교사 등	문화재 관련 전공자 및 종사자, 문화재 수리 관련 자격소지자 등의 전문성 향상 및 실무능력을 배양
	사회 교육과정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와 문화재의 우수성을 홍보 및 보급
	국제 교육과정	아시아지역 문화유산 담당자, 전문가 등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원 체계를 외국인들에게 소개·보급하고, 국가 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학술 연구 분야의 발전을 위해 실시
이러닝과정	열린 공부방	스스로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열린 공부방을 제공	

자료: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 참고하여 작성.

(5) 시사점

- 부여군의 문화재사업소는 문화재정책팀, 문화재관리팀, 문화재시설팀, 문화재활용팀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문화재 업무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분담해 처리할 수 있음
- 부여군의 문화재지정, 도 지정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문화재관련 부여군 자체사업, 문화재 안전관리 및 문화재활용에 대한 높은 실적과 각종 학술 대회 및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력은 2017년 충청남도 우수 문화재행정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가져옴
- 부여군은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과 고도육성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관련 자치단체(충청남도,

전라북도, 공주시, 익산시), 문화재청 및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련 박물관(국립부여박물관, 정림사지박물관), 문화재연구소(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백제세계유산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음

- 지역 주민이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에 참여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부여세계유산보존협의회)를 두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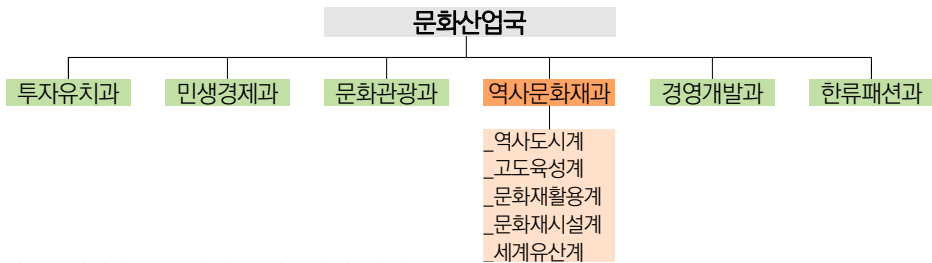
자료: 연구자 직접 촬영.

[그림 4-12] 부여군 내 백제문화단지 및 백제역사문화관 전경

3) 익산시

(1)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조직

- 익산시 문화산업국은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재과, 경영개발과, 한류패션과로 구분되고, 이 중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업무는 역사문화재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자료: 익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제작.

[그림 4-13] 익산시 문화산업국 조직

- 역사문화재과는 다시 역사도시계, 고도육성계, 문화재활용계, 문화재시설계, 세계유산계로 나뉘며, 문화재시설계와 세계유산계에 전문 학예 연구사가 배치되어 있어 전문성 높은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역사문화재과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이천년 역사문화도시 조성, 고도육성 및 보존, 국가·도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보수·정비, 비지정 문화재 관리, 무형문화재 보존·관리·육성, 무형문화재의 통합전수관 운영·관리, 전통사찰 및 향토유적 보수·정비·관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함(익산시 홈페이지)
 - 특히 역사문화재과는 비지정문화재 관리를 주요업무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가치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이 소실되지 않고 관리·유지·보존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외에도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문화재활용계를 두어 적극적으로 문화재 활용을 통한 진흥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표 4-28]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주요업무

조직 구분	업무
역사문화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 ◦ 이천년 역사문화도시 조성 추진 ◦ 고도육성 및 보존사업 관련 업무 ◦ 국가지정/도 지정/등록 문화재, 전통사찰·향토유적 보수·정비 ◦ 무형문화재 보존·관리·육성사업, 통합전수교육관 운영·관리 ◦ 비지정문화재 관리 ◦ 천연기념물 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 ◦ 문화재지정 및 해제 업무 추진 ◦ 발굴허가 및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존관리 ◦ 문화재 보호구역 관리 ◦ 문화재 재해복구 관련 사업 추진 ◦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운영·관리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업무 ◦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운영 지원
_역사도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 역사문화콘텐츠 사업 ◦ 역사문화자원활용 ◦ 백제왕도 핵심유적계획 관련 업무
_고도육성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보존육성 사업 ◦ 고도주민협의회 지원
_문화재활용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활용/세계유산 활용 정책개발 및 수립 ◦ 탐방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 체험프로그램 운영 ◦ 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관 관리 ◦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육성사업
_문화재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관리 ◦ 문화재 지정 및 해제 ◦ 천연기념물 관리 및 정비사업 실시 ◦ 문화재구역·보호구역 관리 ◦ 문화재 돌봄사업 ◦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_세계유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 종합계획·활용·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 세계유산 추가 등재 업무 ◦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업무 ◦ 세계유산도시지구 업무

자료: 익산시 홈페이지; 백제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 참고하여 제작.

- 역사문화재과 2018년 총 예산은 약 178억 원이며,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약 177억 원과 행정운영경비에 약 2천9백만 원이 책정됨(익산시 재정 홈페이지 “역사문화재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세부 예산항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63.5%, 고도보존 육성에 20.1%, 역사도시 조성에 16.3%의 예산이 배정되어 문화재 보존과 전승을 위한 사업이 활발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29]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17	2018	증감
역사문화재과 총계	17,119,512	17,816,499	696,987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소계	17,097,812	17,786,713	688,901
_문화재 보존 및 전승	11,539,204	11,319,082	△220,122
_역사도시 조성	2,663,410	2,895,296	231,886
_고도보존 육성	2,895,198	3,572,335	677,137
행정운영경비 소계	21,700	29,786	8,086
_기본경비	21,700	29,786	8,086

자료: 익산시 재정 홈페이지 “익산시(2018), 역사문화재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 제도

- ①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무형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익산시의 국가 무형문화재를 보존·전승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6년 제정됨(「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1599호))
- 통합전수교육관은 열악한 무형문화재 전수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국가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고자 2014년 착공을 시작으로 2016년 개관함

- 조례는 전수교육관이 담당해야 하는 주요 업무 및 기능, 교육관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여 교육관이 설립 취지를 살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됨

[표 4-30]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내용

구분	내용
조례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익산시의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존 전승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전수교육관 업무 및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전승,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과 보존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 국가무형문화재 각종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과 사회교육 및 공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 발전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수교육관 운영 위원회를 둠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위원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①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전수교육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③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함
개과 및 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교육관은 매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이나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을 제외 하고는 항상 개관하며, 전승활동, 공연·교육 및 행사 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음

자료: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1599호).

(3) 정책

- 익산시는 문화재 활용을 위하여 익산문화재 야행, 익산 생생문화재 사업,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고도육성사업, 학술회의를 개최함

[표 4-31] 익산시 문화재 활용

구분	내용
익산문화재 야행	• 백제왕궁 등 문화재를 활용해 체험·답사·공연 진행
익산 생생문화재 사업	• 드론과 함께하는 백제왕도 익산여행을 주제로 진행(2018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발굴·활용하여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 2018년에는 고도익산 디지털라이브러리, 익산 아카이브 왕도인, 청년 역사 “꾼” 고도LAB 등을 추진
고도육성사업	• 고도보존육성사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됨 - 고도육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고도보존주민협의회 운영, 고도육성기반사업추진(포럼, 아카데미, 홍보), 고도보존지구 지정, 고도육성관련 조례제정, 고도육성 복원정비사업 등
고도익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회의’	• 2017년 익산시가 주최하고,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주관하여 “6-7C 백제사에 이어서 익산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

자료: 배종윤(2018); 문이화(2016)를 참고하여 작성.

- 또한 익산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를 시정 중점 사업으로 삼음(익산시 홈페이지)

[표 4-32]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사업

구분	내용
교류협력 강화	• 세계유산도시기구(OWHC)·세계유산도시협의회와 교류협력
체계적인 보존관리	• 세계유산 발굴조사, 정비사업 추진 • 세계유산 지속적 모니터링 요원 양성 및 운영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 익산 역사문화도시 상징조형물 설치(예정) • 관광프로그램 개발
세계유산을 활용한 콘텐츠·마케팅	• 세계유산 스토리텔링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세계유산 관광상품 개발 및 유적지 경관조명 등 설치
지속적인 교육 홍보	• 세계유산 국내외 언론 홍보 및 전광판, 대중교통 광고 • 세계유산 시민 아카데미 운영, 사진전(교류)개최

자료: 익산시 홈페이지.

- 이를 위해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 Organization of World Heritage Cities)와 세계유산도시협의회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
- 세계유산의 관광활성화와 세계유산을 활용한 콘텐츠·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4) 기타특성

□ 익산시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기본계획'3)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서 익산시의 핵심유적으로 세계유산 2개소를 포함한 총 8개소가 선정됨(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준비단·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6)
- 익산시의 핵심유적은 왕궁유적, 제의유적, 관방유적, 불교유적으로 나뉨

[표 4-33] 익산시 백제왕도 핵심유적 개요

구분	유적명	종목	소재지	비고
왕궁유적	왕궁리 유적	사적 제150호	왕궁면 산80-1 일원	세계유산
제의유적	익산 쌍릉	사적 제87호	석왕동 산55, 산56	
관방유적	익산 토성	사적 제92호	금마면 서고도리 50-3	
	금마 도토성	전북기념물 제70호	금마면 서고도리 산14	
불교유적	익산 미륵산성	전북기념물 제12호	금마면 신용리 산124-1	
	미륵사지	사적 제408호	금마면 기양리 32-2	세계유산
	제석사지	사적 제405호	왕궁면 왕궁리 247-1외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45호	삼기면 연동리	

자료: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준비단·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16),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기본계획, 6쪽.

- 익산시는 기본계획에 따라 익산 왕궁리 유적의 후원 및 궁장 정비, 정원 유적 보호각 설치, 왕궁재현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익산 제석사지의 전시관 건립과 익산 미륵사지의 중원 회랑 부분복원, 그리고 배수로 및 관람로 정비 사업을 운영할 계획임(문화재청, 2016)

3) 앞서 언급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익산시도 부여군과 마찬가지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배경·목적, 단계별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내용은 부여군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익산시는 핵심유적인 익산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쌍릉, 토성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옴
 -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는 백제왕궁천년별밤 캠프,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전통한복 입고 어좌 체험, 왕궁리유적전시관 등을 운영(왕궁리 유적전시관 홈페이지; 배종윤, 2018)
 -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및 발굴이야기 세미나 운영, 미륵사지의 기단부와 강당지 앞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유적 정비, 미륵사지 유구정비 및 토지매입, 복원고증연구 등 진행(강명수, 2018b; 배종윤, 2018; 미륵사지유물전시관 홈페이지)

[표 4-34] 익산시 핵심유적별 관리 및 활용현황

구분	내용
익산 왕궁리 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왕궁천년별밤 캠프 운영 •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 전통한복 입고 어좌 체험 • 왕궁리유적전시관 운영 • 왕궁리 유적의 정원, 공방, 화장실 유구의 정비 • 왕궁리 유적의 후원의 발굴조사시의 화분분석 결과를 토대로 백제 전통조경의 모습을 회복할 계획
익산 미륵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운영 • 미륵사지 발굴이야기 세미나 진행 • 미륵사지 내 강당지, 동서 승방지, 동원 회랑 등의 기단부와 강당지 앞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유적 정비 착수 • 미륵사지 유구정비 및 토지매입, 복원고증연구 진행
익산 쌍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 쌍릉 발굴조사 중 대왕릉을 일반인에게 공개
익산 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 토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정비 •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자료: 강명수(2018a); 강명수(2018b); 김종순(2017); 배종윤(2018); 미륵사지유물전시관 홈페이지; 왕궁리 유적전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5) 시사점

- 익산시의 역사문화재과는 역사도시계, 고도육성계, 문화재활용계, 문화재 시설계, 세계유산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특히 전문인력인 학예연구사가 문화재시설계와 세계유산계에 배치되어 문화재복원고증 연구, 고도 익산의 역사문화적 가치 연구, 국립 박물관 관련 업무, 세계유산업무 등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익산시도 부여군과 마찬가지로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사업을 시정중점사업으로 삼고, 세계유산도시기구(OWHC) 및 세계유산도시협의회와의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해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세계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함

3. 소결

- 국내·외의 문화재 관리와 활용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문화재 조직의 담당 업무 세분화

- 서울시의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역사문화재과는 역사문화재정책팀, 한성백제팀, 문화재연구팀, 국가문화재관리팀, 시문화재관리팀, 세계유산등재팀, 2개의 산하 사업소(서울역사편찬원, 한성백제박물관)로 구성됨
- 부여군에서는 2개 실과(문화관광과, 백제왕도복원사업단) 및 1개 사업소(문화재사업소)가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함
- 익산시 역사문화재과는 역사도시계, 고도육성계, 문화재활용계, 문화재시설계, 세계유산계로 나뉘며, 문화재시설계와 세계유산계에 전문 학예연구사가 배치되어 있어 전문성 높은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세종시의 경우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업무는 자치분권문화국 관광문화재과의 문화재계에서 담당함. 향후에는 문화재계 담당업무를 하위팀으로 세분화하여 문화재 분야 정책 및 사업을 계획·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세종시 문화재 담당 조직에 학예사 등 전문가를 핵심 분야별로 배치하고, 이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할 필요 있음

□ 문화재 교육 지원

- 일본의 전통공예 도시로 잘 알려진 가나자와는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과 ‘우다쓰야마 공예공방’을 운영해 지역의 공예 분야 전문인력이 배출되도록 하여 공예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있음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분야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부여에 위치해 있어서, 부여는 지역의 문화재, 문화자산에 대한 연구·조사를 시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풍부하다는 이점을 지닌다고 판단됨

- 세종시와 부여는 지리적으로 멀지 않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양성된 문화재 분야 인재가 세종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 있음
- 또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속기관인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재 분야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재 관련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교육원과 연계해 세종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문화재 연구 활성화

- 부여에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되어 있고, 이곳에서는 문화유적의 학술조사 연구, 백제문화권 내의 문화유적 지표 및 발굴조사 연구, 출토 유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 국제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부여, 공주, 익산 등에 산재하는 백제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조사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된 곳으로, 세종시에 독립적인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기 보다는 이곳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시에 분포되어 있는 백제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연구를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임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에는 문화재연구팀도 조직되어 있지만, 사업소인 서울역사편찬원과 한성백제박물관에서도 연구 기능을 수행함
 - 세종시에서 독립적인 문화재 연구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이 세종시 관광문화재과에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문화재 활용 다각화

- 일본은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재의 기원이 된 스토리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지역, 명소를 ‘일본 유산(Japan Heritage)’으로 인증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익산시에서는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토성을 활용한 캠프·여행 프로그램, 각종 체험 프로그램, 전시관 운영, 세미나 진행 등 다양한 활용 사업을 운영되고 있음
- 세종시는 다른 광역 지자체와 비교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수나 특화 문화유산이 부족함. 때문에 ‘일본 유산’ 정책처럼 지역의 이야기, 장소, 문화유산을 연계한 활용 사업을 적용하고, 익산시의 사례처럼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캠프·여행 프로그램, 학술행사 개최 등으로 문화재 활용 사업을 다각화 할 필요 있음
- 또한 일본의 가나자와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을 위하여 가나자와 문화지도 서비스를 구축해 제공함
- 문화재청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indexMain.do>)’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지역별 문화유산 정보를 세부적으로 습득하기에 한계가 있음. 서울시는 자치구별 문화재 위치와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별도의 홈페이지(<https://gis.seoul.go.kr/CultureMap/KidsMap.html>)를 구축해 둬
- 세종시도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문화재 지도를 제작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세종시의 문화자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울 필요 있음

□ 지역 간 교류협력 활성화

- 서울시는 시민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 서울·수원·화성시 공동 개최로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을 최초로 재현함
- 지역 간 문화재 활용사업의 교류협력은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풍성하게 기획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문화재 향유·체험 기회 확대와 관광객 유입 효과를 낼 수 있음

- 세종시도 인근 지역과 협력적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을 기획·운영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세종시에는 백제 고분역사공원, 운주산성, 금이성 등 백제문화자산이 분포되어 있어서, 공주시·부여군·익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백제문화유산 탐방 코스와 연계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세종-공주 시티투어 등의 사업을 확장해 볼 수 있을 것임

□ 문화재 사업에의 주민참여 독려

- 부여군과 익산시는 지역주민이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에 참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부여세계유산보존협의회, 익산고도육성 세계유산보존관리주민협의회)를 두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 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함
- 현재 세종시에서는 현상변경과 관련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고,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주민이 문화재 관련 사업에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를 구축할 필요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도입하고 합리적인 간접 보상방안을 마련해 문화재와 주민이 공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8, 문화재청 (2018))

□ 과학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관리

- 2016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문화재의 과학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남산골 한옥마을의 대표 가옥 3채를 정밀실측하고, 통합건축정보(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을 활용하여 3D도면을 작성함
- 전라북도는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재난 대비 사전 예방활동을 도입하여 2017년 문화재청 주관 ‘문화재 안전관리 유공자 심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

- 시스템은 문화재에 설치된 연기감지센서, 동작감시센서 등을 통해 문화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소방본부와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통보되도록 함
- 세종시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소중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선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 있음

세종시 문화재 관리 및 가치제고 방안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전략
3. 추진과제

5장 세종시 문화재 관리 및 가치제고 방안

1. 기본방향 및 목표

- 본 연구는 세종시 문화재 현황과 국내외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세종시 문화재 업무 관계자 및 문화재위원과의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세종시의 효과적인 문화재 관리와 가치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 역사문화자원의 현황 검토, 세종시 문화재 업무 관계자 및 문화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세종시에는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보존·연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부족하다는 점, 보유 문화재가 풍부하지 않다는 점, 현상변경 등과 관련하여 주민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화재 관리와 활용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제약함을 알 수 있었음
 - 세종시는 보유 지정문화재가 적은 만큼, 문화재 정책의 관심을 지정 문화재에서 나아가 비지정 역사문화유산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국내외 문화재 관리 및 활용의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위와 같은 제약 사항을 완화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세종시 문화재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역사문화유산 활용으로 세종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설정하고, ①역사문화유산 관리·보존 체계의 전문화, ②역사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기회 확대, ③역사문화유산 활용 다각화를 3대 목표로 수립함

[표 5-1] 기본방향 및 목표

구분	내용
기본방향	역사문화유산 활용으로 세종시 브랜드 가치 향상
목표	① 역사문화유산 관리·보존 체계의 전문화 ②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 기회 확대 ③ 역사문화유산 활용 다각화

2. 추진전략

- 앞서 제시한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4개 영역(①관리·보존, ②발굴·지정, ③연구·교육, ④활용·향유)에서의 추진전략을 제안
 - 관리·보존: 문화재 유형에 따라 관리와 보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해 기존의 관리·보존 체계를 정비하고 문화재 진흥을 위한 시설 및 아카이브 운영
 - 발굴·지정: 지역의 비지정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 이를 통해 가치 높은 역사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지역 문화재로 신규 지정해 법적 체계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연구·교육: 연구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스토리를 발굴하고, 일반 시민·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역사문화자산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시민과 협력적으로 지역의 가치 높은 문화재 관리 및 활용 현황을 점검
 - 활용·향유: 세종시 특화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 간 문화재 교류·협력,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문화재 활용을 통해 문화재 가치 제고

[표 5-2] 추진전략

영역	추진전략
관리·보존	· 역사문화유산 관리·보존 체계 전문화
발굴·지정	· 비지정 역사문화유산 조사·발굴·지정 확대
연구·교육	· 역사문화유산 연구 및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활용·향유	· 다각적 역사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및 향유 기회 확대

3. 추진과제

○ 추진과제는 앞서 제시한 4대 추진전략별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표 5-3] 추진과제

영역	추진전략	추진과제
관리 · 보존	역사문화유산 관리·보존 체계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담당 조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담당 조직에 전문 학예사 확대 배치 - 문화재 담당 조직을 주요업무 단위로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인 문화재 관리·보존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분야(문화재·무형문화재) 법정계획 고도화 - 문화재 유형별 관리·보존 방안 마련 - 문화재 정기조사를 통해 관리·보존 현황 파악 -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관리·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통합관리·보존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DB화
발굴 · 지정	비지정 역사문화유산 조사·발굴·지정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지정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정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미래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유산 목록 작성 - 비지정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실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굴한 비지정 역사문화유산 보수 사업 확대 비지정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학술 연구, 자문단 심의 등을 통해 시 문화재로 지정 여부 검토
연구 · 교육	역사문화유산 연구 및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문화재 관련 기관·연구원·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관리·보존에서의 전문성 제고 - 역사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정기 학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별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역사문화유산 교육 교재 개발 - 시민 대상 역사문화유산 강좌 운영 - 공무원 대상 역사문화유산의 가치·관리·보존에 대한 교육을 운영해 문화재 행정의 효율화 도모 -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지원
활용 · 향유	다각적인 역사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및 향유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시민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주민협의회 운영 - 지역 역사문화유산 지도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발굴·개발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관광자원을 엮어 역사문화유산 홍보 - 역사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1) 관리·보존: 역사문화유산 관리·보존 체계 전문화

(1) 문화재 담당 조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① 문화재 담당 조직에 전문 학예사 확대 배치
-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인력의 직군을 ‘행정’, ‘기술’, ‘학예’, ‘전문경력관’, ‘기타’로 구분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2018년 3월 기준 행정인력 2명, 기술인력 3명, 학예인력 1명이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5-4] 지역별 문화재 관리 인력 현황(2018년 3월 기준)

시도	합계	행정	기술	학예	전문경력관 (별정)	기타
서울	64	26	15	13	0	10
부산	21	13	4	4	0	0
대구	7	4	1	2	0	0
인천	25	16	8	1	0	0
광주	7	3	3	0	1	0
대전	12	5	3	4	0	0
울산	7	5	1	1	0	0
세종	6	2	3	1	0	0
경기	38	23	8	7	0	0
강원	8	3	3	2	0	0
충북	7	3	2	2	0	0
충남	16	7	6	3	0	0
전북	24	11	7	6	0	0
전남	8	3	2	1	2	0
경북	17	12	5	0	0	0
경남	17	8	7	1	1	0
제주	86	29	47	4	1	5
합계	369	173	125	52	5	15

자료: 문화재청 내부자료.

- 세종시 문화재 업무 담당자의 수가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전남을 제외한 타 시·도와 비교해 가장 적은 것은 적은 지정 문화재의 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나, 세종시 행정구조의 경우 시·군 단위가 없는 단층제이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지정, 보존·관리, 활용 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문화재 업무는 문화재의 유형별로 지정, 관리, 보존의 방식이 상이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력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담당 조직에 전문 학예사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함
 - 현재 세종시 문화재 담당 조직에는 전문 학예사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2018년 3월 기준, 문화재청 내부자료), 세종시의 경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점진적으로 지정 문화재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업무 분야별 전문성을 높여 지역 문화재의 진흥을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 담당 조직에 전문 학예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함
- ② 문화재 담당 조직을 주요업무 단위로 세분화
- 세종시 역사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다각적 활용을 통한 역사문화자산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문화재 담당 조직의 확대·개편을 고려해야 할 것임

【표 5-5】 세종시 문화재계 담당업무

구분	내용
주요 업무	문화재담당 업무 총괄
	문화재 지정 및 해제, 매장문화재 업무 등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김중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공사감독), 돌봄사업,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문화재 공모사업 추진(향교서원, 생생문화재)
	초려기념관 갈산서원 운영 및 관리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조직 및 업무" 검색: 2018.10.26.).

- 현재 세종시는 관광문화재과의 문화재계에 속한 5명의 인력이 문화재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음
 - 문화재계 소속 5명이 분담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 지정 및 해제, 보수·정비 등 관리 업무, 공모사업 추진, 사업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8년 <세종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대표역사 관광지 조성’, ‘역사문화 자원 발굴’,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문화재 활용 및 보존 강화’ 등이 있는데, 현재 문화재계 조직의 규모, 예산, 업무 분담 현황을 봤을 때 시행계획 안에 담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업무 과중,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문화재 업무의 성격을 비교해 보고자 서울시와 서울시 종로구 및 송파구를 사례로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 관련 업무의 현황을 살펴봄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는 ‘역사문화재정책팀’, ‘문화재연구팀’, ‘한성백제팀’, ‘시문화재관리팀’, ‘국가문화재관리팀’, ‘세계유산등재팀’으로 구분되며, 종로구에서는 ‘문화과’의 ‘문화재관리팀’ 및 ‘문화재시설팀’이, 송파구에서는 ‘문화체육과’의 ‘축제진흥팀’이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는 시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며 보유 문화재에 대한 정기 조사 및 기록화사업을 수행함
- 또한 문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문화재에 대한 정밀 조사, 통계자료 작성을 수행하며 문화유산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의 업무를 담당함

[표 5-6] 서울시 문화재 담당 조직 업무 현황(2018년 10월 기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팀 구분	업무	팀 구분	업무
역사 문화재 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서울역사편찬원 및 한성백제박물관 지도 감독 남북교류사업 추진계획 수립 총괄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 총괄 역사도시 기본조례 운영 무형문화재 신규종목 발굴 및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 및 관리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기록화사업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운영 문화재 관련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관리 등 한성백제유적 복원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문화재 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적 정밀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수립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협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지원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 유적 점검 및 협의 부동산문화재 조사, 서울시 지정문화재 신규 지정 부동산문화재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근대유산 조사 및 등록문화재 등록, 보존 서울시 지정 문화재와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문화재 지정 통계자료 작성 및 대외공개 등 문화재수리업 등록·변경 관리, 행정처분 및 제증명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성백제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한성백제유적 학술조사 및 연구 풍납토성 복원사업 보상업무 추진 한성백제시민위원회, 풍납토성 주민간담회 운영 등 문화재 방법·방재시설 설치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서울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실계/개발) 문화재 실측 설계도면 제작 지원 및 관리/문화재 정기 조사 사업 서울소재 분묘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시 문화재 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 시지정문화재 매입·보수·현상변경 관련 업무 등
국가 문화재 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 방법·방재시설 설치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서울 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실계/개발) 문화재 실측 설계도면 제작 지원 및 관리/문화재 정기 조사 사업 서울소재 분묘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세계유산 등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총괄 조정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업무 근대역사 자료수집 지원사업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인류무형유산 발굴 등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검색: 2018.10.26).

[표 5-7] 서울시 종로구 및 송파구 문화재 담당 조직 업무 현황(2018년 10월 기준)

종로구 문화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팀 구분	업무	팀 구분	업무
문화재 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업무 • 문화재 경비인력 채용 및 운영 • 문화재 경비인력 근무명령 총괄 • 문화재 돌봄사업 현장관리 운영 •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업무 협의 • 문화재 안내판 및 시설안내 표지판 관리 • 문화재 지킴이 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성백제문화제 계획 수립 및 추진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 • 한성백제문화제 백제마을 구성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개최, 홍보, 평가 • 유적지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축제 관련 학술대회 운영 • 축제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주민 참여 방안 마련 등
문화재 시설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시 문화재 보수공사 • 문화재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 진통사찰 관리 등 	<p>축제 진흥팀</p>	

자료: 서울시 종로구 및 송파구 홈페이지(검색: 2018.10.26).

- 종로구에는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유·무형의 문화재 430건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기초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관리팀과 문화재시설팀 두 개 팀이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함
 - 종로구는 문화재 경비인력 관리, 돌봄사업 운영 등 문화재 관리, 보수, 운영에 관한 세부사업을 수행
- 한성백제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는 송파구에서는 축제진흥팀이 한성백제문화제의 계획과 추진을 담당하고 있음
 - 서울시는 한성백제유적의 복원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술조사 및 연구 등을 담당함
-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문화재 정책 개발 및 연구 수행과 함께 관리·운영·활용을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과 기반을 다진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종로구와 송파구는 관할지역 문화유산의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실무와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재 행정 구조를 지님
- 현재 세종시는 단층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와 관련한 업무의 많은 역량이 지정문화재 정비에 집중되어 있음
- 비록 세종시가 보유한 문화재의 수는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절대적으로 적으나 세종시 역사문화유산의 조사·발굴·관리·연구·활용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미래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재 담당 조직을 주요업무 단위로 세분화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의 도입을 제안함

(2) 합리적인 문화재 관리·보존 체계 구축

- ① 문화재분야 법정 계획 고도화
 -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639호)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7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및 무형문화재의 보호·관리·활용 등을 위한 5년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 현재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17~2021)>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기본계획(2017~2021)>, 세종시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2018))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시행계획(2018))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음

- 앞으로도 세종시 역사문화자원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세종시 실정에 맞는 법정 계획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킬 것을 제안함
- 기본계획과 현 세종시 시행계획의 내용을 비교해 시행계획 상의 부족한 부분을 내실화 해 나가는 것에서부터 법정 계획을 발전시켜 볼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세종시의 2018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시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등록문화재(“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 - ‘우리문화숨결’ 홈페이지) 등재 추진, 산성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무형문화재 보전 전승,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문화재청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시행계획에서 추가되어야 할 사항, 보완 및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들을 진단해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을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임
 - 문화재청의 기본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의 세종시 시행계획에서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지원 계획 내실화’, ‘대상별 문화재 교육 확대’, ‘세종시 근현대 문화유산 조사 및 발굴 방안 마련’, ‘세종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스토리텔링 개발’, ‘지역 간 문화재 교류 협력을 통한 가치 제고’, ‘문화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유입 방안 도출’ 등의 내용을 담화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임

[표 5-8] 세종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의 고도화 방향 제안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17~2021)의 주요내용	세종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2018)의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강화 • 역사문화자원 관광콘텐츠 육성 •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 근현대 문화유산 보호 및 자원 발굴 • 문화유산 이야기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 • 문화재 유형별 합리적 관리 • 문화재 국제교류 • 과학적·체계적 방재기반 확충 •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정보 활용 기반 내실화 • 문화재 행정 합리화 • 문화재 연구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대표역사관광지 조성 • 등록문화재 등재 추진 • 산성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 무형문화재 보전 전승 •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및 원형 기록 보존 • 매장문화재 보호, 문화재위원회 개최 활성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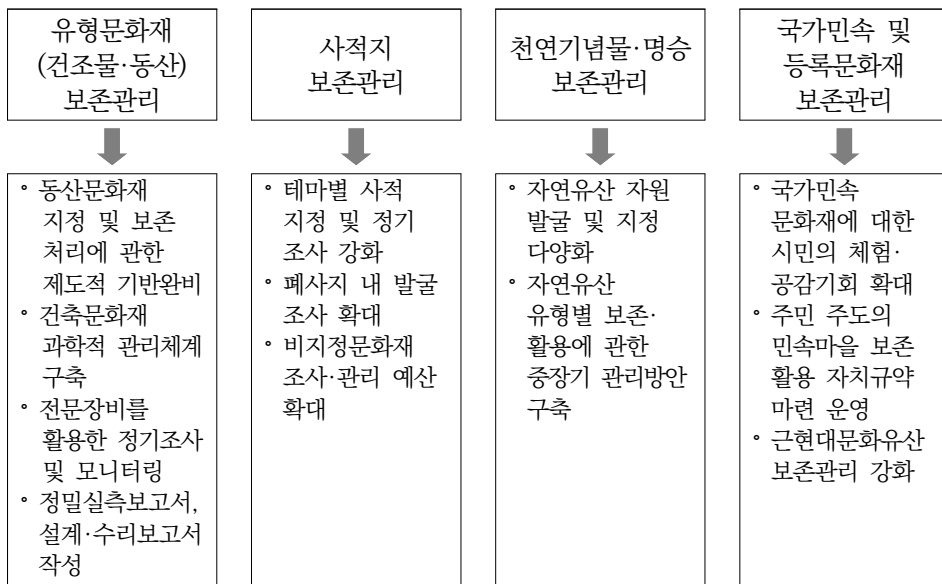


-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지원 계획 내실화
- 문화재 교육 확대(공무원·문화재수리 종사자 업무역량 강화, 체험·활동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 강화, 시민 대상 문화유산 교육 다양화)
- 등록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등재 사업 활성화
- 세종시 근현대 문화유산 조사 및 발굴 방안 마련
- 세종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스토리텔링 개발
- 유형별 문화재 발굴·관리·보호·활용 체계 구축
- 지역 간 문화재 교류 협력을 통한 가치 제고
- 과학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보호·활용 기반 내실화
- 문화재 행정의 합리화·전문화
- 문화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유입 방안 도출

자료: 문화재청(2017b); 세종특별자치시(2018b).

② 문화재 유형별 관리·보존 방안 마련

- 문화재청은 문화재 유형별 합리적 보존을 위해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사적지 보존관리’, ‘천연기념물·명승 보존관리’, ‘국가민속 및 등록문화재 보존관리’ 방안을 구분해 제시하고 있음(문화재청, 2017b)
- 비록 세종시가 보유한 문화재 수가 적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종시도 문화재청이 제시하는 문화재 합리적 보존 방향성을 반영한 유형별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 문화재청(2017b)의 내용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그림 5-1] 문화재 유형별 관리·보존 방안 제안

- 이 외에도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분류기준에 맞추어 차별화된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함(문화재청, 2017a)
 - 무형문화재 관리와 보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복합적 특성에는 ‘수요(소비) 정도’, ‘기예능 난이도·예술성·보편성’, ‘보유자·보유단체 고령화에 따른 기예능 실현의 변화’, ‘보유자·보유단체의 사회적 기반·역량 차이’ 등이 있음

○ 현재 세종시가 보유한 무형문화재는 3건으로 매우 적으나 향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발굴을 통한 추가 지정으로 지정 무형문화재 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종목별 특성, 전승환경의 차이 등을 고려한 무형문화재 발굴·관리·보존 방안 체계를 구축해 놓을 필요 있음

③ 문화재 정기조사를 통해 관리·보존 현황 파악

○ 지역의 가치 높은 역사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현 세대의 책무라고 할 수 있음

○ 역사문화자산의 합리적 보존·관리·활용·진흥은 지역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명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보존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예방적 보수·정비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관리 체계 구축에서 시작됨

[표 5-9] 「세종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조사 관련 개정 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조례 내용	제48조(직권에 의한 조사)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관리·수리·전승실태·기타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직권에 의한 조사)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공무원에게 시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보호물·보호구역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정기조사) : 시장은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2018.8.20., 전부개정
	- 2015.12.21., 일부개정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 세종시조례 제790호; 제1171호.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2018년 8월 개정이 있기 전까지 시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대한 5년 단위의 정기조사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필요시에 지정 및 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등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기조사에 대한 규정을 완화 하였음

- 개정된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171호)는 조사와 관련해서는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 위탁, 시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직권에 의한 조사만을 규정함
- 때문에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지정 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를 규정할 것을 제안함
- 5년 단위로 지정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 시 예산 및 인력 차원에서 어려움이 크다면 문화재의 유형을 구분하여 연차별로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임(한상우, 2018)

[표 5-10]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조사 관련 규정

구분	조례 내용
제5조 문화재 기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제27조 정기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문화재 등의 지정과 그 해제 2. 지정문화재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지정문화재 등의 수리 및 복구 4. 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5. 그 밖에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8조 직권에 의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자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서울시조례 제6916호.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조례 제6916호)는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관리, 수리,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의 결과를 문화재 지정·해제, 수리·복구 등의 관리에 반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에서 정기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둔 것은 문화재 현상 및 관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됨
 - 이 외에도 서울시는 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 직권에 의한 조사 등을 조례로 규정함
 - 세종시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호 조례를 참고하여 지역 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의 시행 방식과 주기 등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 있음
 - 이는 문화재의 멸실 및 쇠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역사 문화유산의 진흥을 위한 틀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임
- ④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운영
- 현재 세종시는 2021년 건립을 목표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수교육관은 무형문화재의 안정적 보존·전승 환경 조성과 효과적 홍보 및 진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나, 현재 세종시에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음
 - 2018년 6월 기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세종, 대구, 울산에서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문화재청 홈페이지 ‘2018년 상반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
 - 전수교육관은 전승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 문화재의 가치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인천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으로 ①무형문화재 기능·예능 전수, 전시 및 교육, ②후계자 양성 및 공연활동, ③기능·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조사·발굴 및 홍보, ④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⑤계승 발전 및 문화예술을 위한 사업 등을 명시해 두고 있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시조례 제5320호)

**[표 5-11] 「인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상
전수교육관 업무 및 기능**

구분	조례 내용
제4조 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문화재 기능·예능 전수, 전시 및 교육 2. 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 및 공연활동 3. 무형문화재 기능·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조사·발굴 및 홍보 4. 무형문화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5.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 및 문화예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

자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5320호.

- 예를 들어, 2018년 ‘강릉농악 전수교육관’은 일반시민, 유아 등을 대상으로 강릉농악과 관련 강습·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전라남도의 ‘염색장정관채 전수교육관’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천연염료 제조와 염색 강습 및 작품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함(문화재청, 2018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리플렛)
- 이 외에도 ‘고창농악 전수관’, ‘광양장도 전수관’ 등을 비롯한 전국의 전수교육관에서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무형문화재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문화재청, 2018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리플렛)
- 2018년 4월 기준으로, 세종시는 궁인, 줄다리기, 명창 종목에서 시지정 무형문화재 3건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무형문화자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정무형문화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시의 무형문화재의 진흥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나성동에 4,000㎡ 규모로 설립이 계획되고 있는 세종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 있음
- 무형문화재의 효과적 활용과 다양한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전문인력의 배치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표 5-12] 2018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사례

전수교육관	사업 내용
강릉농악 전수교육관	[국가] 제11-4호 강릉농악 : 대상별로 진행되는 강릉농악 강습과 공연 [강습/일반] NO!老!클럽-노인대상 강습 [강습/일반] UP!鼓!놀자-다문화가족대상 강습 [공연·체험/일반] 知樂클럽-단체관람객 대상 공연관람 및 체험 [공연/체험/유아] 우리 모두 농악인-미취학대상 공연 및 체험
고창농악 전수관	[지방] 전북 제7-6호 고창농악 : 고창농악(설장구, 팽과리, 사물놀이, 고깔소고, 태평소 등) 강습과 인문학 콘서트 및 전시 [강습/일반] 봄·여름·가을·겨울 전수학교 [강습/일반] 고창농악전통예술학교 [강습/청소년] 청소년을 위한 질풍노도 굿패 프로젝트 [공연/일반] 고창농악 인문학 콘서트 [전시/일반] 고창농악 인물 열전
광양장도 전수관	[국가] 제60호 장도장 : 호신용 또는 장신구로 사용하던 칼 장도의 제작과 전시 [공연/일반] 장도와 국악, 공예, 놀이의 만남 [강습/일반] 교원 대상의 전통공예 강습 [강습/청소년] 학생 대상의 무형유산 활용 강습 [전시/일반] 전통공예 및 지역 문화재 전시
염색장정관채 전수교육관	[국가] 제115호 염색장 : 천연염료 제조와 염색 강습 및 작품 전시 [강습/일반] 청-쪽염료 제조와 상품제작 [강습/청소년] 출-천연염색교육 [강습/일반] 어-직조교육과 생활용품 제작 [전시/일반] 랍-교육 수료생 작품 전시전시

자료: 문화재청, 2018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리플렛.

(3) 과학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관리·보존

- 문화재 통합 관리·보존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재 훼손 등이 발생해 복원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보존과학 기술 및 인력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전라북도는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에 설치된 연기감지센서, 동작감지센서가 문화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소방본부와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통보되도록 함

- 서울시도 남산골 한옥마을 대표 가옥 3채(김춘영 가옥, 이승업 가옥, 옥인동 윤씨 가옥)를 정밀실측해 통합건축정보(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을 적용한 3D 도면을 작성했으며, 이를 가옥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예를 들어,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 문화재 모습을 디지털 자료화 하면 문화재 훼손 시 수리·복원에 참고할 수 있으며, 문화재 교육 자료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음(최원석, 2013)
- 2018년 6월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도 구글(Google)과 협업하여, 우리나라 왕실 문화재와 무형유산을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 누리집에 ‘코리안 헤리티지(Korean Heritage, 한국의 문화유산)’라는 이름으로 구축하여 온라인과 모바일앱으로 전 세계에 공개함(문화재청, 2018.6.21.)



자료: 구글 아트 앤 컬처(<https://artsandculture.google.com/project/korean-heritage>)

[그림 5-2] 구글 아트 앤 컬처 ‘정조대왕 능행차’ 360°영상 캡처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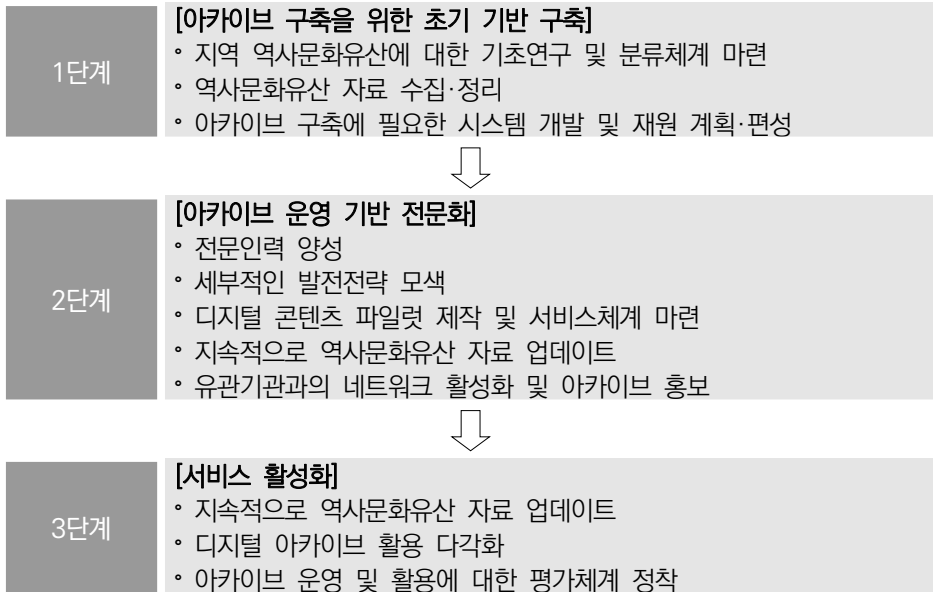
- ‘구글 아트 앤 컬처’란, 2011년부터 구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으로, 전 세계 문화유산과 예술작품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예술 프로젝트임

-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은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과 공예 기술 종목들을 전시목록으로 선정함
- 이 외에도 ‘구글 익스피디션(Google Expeditions: “교육용 가상현실 (VR)”로 초고해상도 카메라로 전 세계 유명 관광지나 박물관을 촬영해 구글 누리집에 공개하는 서비스)’ 360°영상을 통해 조선의 궁궐, 각종 전통 공예품 등을 실제로 보듯 관람할 수 있음
- 이처럼 문화유산 사업에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및 활용에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국립 문화재보존과학 센터와의 업무협약, 과학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관리·보존 분야에서 노하우를 축적해 온 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재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문화재보존과학 고도화의 사례를 벤치 마킹해 볼 수 있을 것임
- 세종시에서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충청 남도 부여군 소재)와 공주대학교에는 문화재보존과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이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전문인력들이 세종시에서 활동하며 지역 역사문화자산의 지속가능한 보호와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임

(4)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 지역의 가치 높은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자료의 수집·기록과 연구, 이것의 활용과 홍보를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세종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발굴 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의 유실과 쇠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가 필요함
-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분류와 정리는 독립적인 유산의 보존에서 나아가 역사문화유산 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내용적으로 엮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세종시 특화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됨
-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은 크게 ‘3단계 프로세스(초기 기반

구축→아카이브 운영 기반 전문화→서비스 활성화)로 구분할 수 있음
(오동욱, 2013)



자료: 오동욱(2013)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5-3] 역사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프로세스

- 이처럼 지역 역사문화유산 아카이브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과 합리적 절차 하에서 단계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종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기록, 연구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창의적 활용을 통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이에 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세종시의 근현대 역사문화유산 및 스토리 자원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함

2) 발굴·지정: 비지정 역사문화유산 조사·발굴·지정 확대

- **조사:** 세종시는 2012년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신도시로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문화유산을 파악해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 **발굴:** 이에 세종시가 지정문화재에 못지 않게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으나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여 멸실·훼손의 위기에 있는 지역의 비지정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보호할 것을 제안함
- **지정:** 발굴한 동산 및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수·정비,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전승 계획을 세워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심층적 연구를 통해 가치를 재발굴하고, 전문가 자문 심의 등을 통해 시 지정문화재로의 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가치 높은 역사문화유산이 지정문화재에 속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체계 하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 하고 멸실·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우리나라는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였고, 같은 취지 하에서 서울시는 2013년 ‘서울 미래유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으며(권채리, 2016), 경기도 파주시와 전라북도 전주시도 2017년 미래유산 보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표 5-13] 등록문화재의 개념과 범위

용어	정의
등록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말함 • 근대문화유산의 범위: ‘개화기’를 기점으로 하여 ‘해방전후’까지의 기간에 축조된 건조물 및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가 중심이 되며, 그 이후 형성된 것일지라도 멸실·훼손의 위험이 크고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경우 포함될 수 있음

자료: 어린이·청소년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 종류” (검색: 2018.11.01.).

[표 5-14] '미래유산' 관련 조례

지자체명	조례 내용
서울특별시	<p>「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2015.7.30. • 목적: 서울특별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유산: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함 - 서울시 미래유산: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함
파주시	<p>「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2018.9.28. • 목적: 파주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유산: 근현대 파주시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서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함.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함 - 파주시 미래유산: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파주시장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함 - 특화거리: 파주 미래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 중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구역을 말함
전주시	<p>「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 2017.4.28. • 목적: 전주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시민들이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시 미래유산: 근현대 전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함 - 건축자산: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함. 다만, 문화재는 제외함

자료: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조례 제5972호);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조례 제1447호);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조례 제3399호).

-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639호) 상 ‘등록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지정 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를 의미함
- 서울시, 파주시, 전주시도 지역의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미래유산’에 대한 정의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비지정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세종시의 경우 등록문화재를 단 한 건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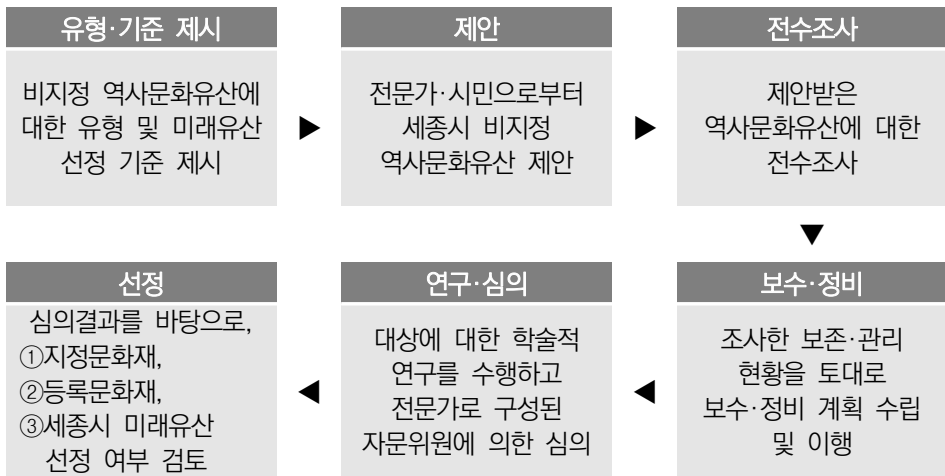
[표 5-15] 시·도별 등록문화재 현황(2018.10.31.기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수	777	200	19	11	8	19	20	6	0	84	40	29	60	68	99	46	44	24

자료: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통계 현황(2018.10.31.).

- 현재 세종시의 지정문화재 수 역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당히 적은 편으로, 지정문화재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지역의 가치 높은 역사문화유산이 법적인 체계 하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래유산’의 개념을 도입하여 근현대 시기의 역사문화유산까지 보호·관리·활용에 대한 관심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 있음
-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세종시 비지정 역사문화유산의 유형을 제시하고, 전문가 및 시민으로부터 비지정 역사문화유산을 제안 받아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례화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서울시의 경우 미래유산의 유형을 ①문화적 인공물(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산출된 유형의 물건), ②문화적 행위·이야기(문화적 활동을 통하여 산출된 행위·이야기), ③배경(문화적 인공물 또는 문화적 행위·이야기가 형성되는 물리적 배경)으로 구분함

- 조사 항목에는 대상의 개요, 입지 및 주변환경, 보존 필요성, 활용방안, 보존 현황, 활용 현황, 관리 현황, 소유자(관리자) 면담 등을 포함시킴 ('서울 미래유산' 홈페이지에서 미래유산 기초현황조사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 조사를 통해 비지정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필요성, 보존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해 보수·정비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해 시행하고, 시민과의 대화, 전문가에 의한 심의와 연구 등을 통해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세종시 미래유산으로의 선정여부를 결정
- 서울시는 ①중요한 인물이나 사건 등을 이해하는데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②서울을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하는 작품 또는 서울 사람들에 널리 알려진 기념물, ③특색있는 장소 또는 경관으로서 서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 ④서울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등으로 '미래유산 선정기준'을 제시함(서울 미래유산 홈페이지)



[그림 5-4] 비지정 역사문화유산 조사·보수·지정 절차 제안

- 나아가 향후에는 세종시의 비지정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축적, 창의적으로 활용

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사업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전주시는 ①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②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③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④미래유산 마을재생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건축자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5년마다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조례를 통해 정함(「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

3) 연구·교육: 역사문화유산 연구 및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1) 세종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역량 강화

-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유산의 가치 재발굴과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활용 및 교육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세종시가 보유한 역사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심층적 연구를 추진할 필요 있음
- 국내 문화유산 관련 기관, 연구소, 학교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종시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것을 제안함
- 세종시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청남도에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등이 위치해 있고, 세종시 내에는 세종향토사연구소와 문화유산융합학부가 개설되어 있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있음
- 세종시는 이와 같은 문화유산 관련 기관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추진해야 할 것임

[표 5-16] 역사문화유산 연구 기관

기관	소재지	특징
국립부여 문화재연구소	충청남도 부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여·공주·익산 등에 산재하는 백제의 주요유적에 대한 학술발굴조사 연차적으로 실시함 백제 도성의 복원 연구, 사비기 유물연구, 백제 문화유산의 국제성 연구 등 진행함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 목적대학임 기술과학대학(전통건축학과, 전통조경학과, 문화재 보존학과), 문화유산대학(전통미술공예학과, 무형 유산학과, 문화재관리학과, 융합고고학과) 등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충청남도역사 문화연구원	충청남도 공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의 역사문화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굴·조사·연구로 이를 현대에 재조명하고, 전시·보존·홍보를 추진함 연구사업은 크게 '백제·충남학 연구', '매장문화재 조사·연구', '문화유산 보존·관리', '역사 박물관 운영',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구분됨
세종향토사 연구소	세종시 조치원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지역 향토사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함 전통문화와 향토자료의 조사, 발굴, 연구, 보존, 사이버향토박물관 운영 등을 통해 세종지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세종시 조치원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융합학부'에는 '고고미술사학전공', '문화 ICT융합전공' 등이 개설되어 있음 문화유산융합학부는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연구와 기획 및 응용 역량, 유산과 기술의 융복합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 또한 유·무형문화재, 근현대문화유산 등에 대한 학술 심포지움, 포럼 등을 개최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역사문화 유산에 대한 시민의 인식 및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2) 대상별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① 대상별 역사문화유산 교육 교재 개발

-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성인에 따라 맞춤형 교재를 개발할 필요 있음
- 2015년 국립무형유산원은 ‘어린이를 위한 무형문화유산 교재’를 입문편, 예능편, 기능편으로 구분해 제작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쉽게 무형문화유산에 접근하고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함
 - 『처음 만나는 무형문화유산: 입문편』(국립무형유산원, 2015a)은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보호와 지정 및 해제, 전승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빛고 만들고! 즐겁게 배우는 무형문화유산: 기능편』(국립무형유산원, 2015b)은 국가무형문화재 중 기능종목에 대한 소개로, 『얼쑤! 흥겹게 배우는 무형문화유산: 예능편』(국립무형유산원, 2015c)은 국가무형문화재 중 예능 종목에 대한 소개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그림 5-5]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대상 교재

- 문화재청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재로 「꿈과 끼를 찾아 떠나는 문화유한 여행」을 개발해 2018년 130여개 중학교에 약 6,000부를 배포함
 -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 임(교육부 자유학기제 홈페이지)

<p>문화유산에서 꿈을 키우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 발굴-발굴과 물속의 터짐기술을 찾아서 2. 문화재 보존과학-문화유산을 치료하고 되살리기 3. 유네스코 세계유산 4. 문화재 환수-잃어버린 문화유산 되찾기 	<p>자연을 존중하고 사람을 이롭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하늘의 뜻과 천체의 움직임 13. 생활의 변화를 추구한 발명 14. 자연 탐구의 다양한 방법
<p>소망과 아름다움을 일상에 담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예방과 치유를 추구한 음식 6. 기술 혁신으로 만든 그릇 7.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과 건축 8. 소망을 담은 장식 	<p>미래를 설계하고 새 문화를 창조하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미래 설계의 의미 16. 이상을 실현하려는 노력 17. 변형으로 이룬 새 문화
<p>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원고 아끼는 마음의 표현 10. '다름'에 대한 열린 자세 11. '차이'를 넘어 함께하는 마음 행사 	

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 『꿈과 끼를 찾아 떠나는 문화유산여행 PPT』.

[그림 5-6] 문화재청 자유학기제 교재 구성

- 이처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교육대상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유산 교재를 개발하여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자유학년제 활용 교재로 문화유산 교육 교재를 개발해 배포하여 학생들이 문화재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지역의 가치 높은 문화유산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경기학연구센터는 『경기도 역사여행: 문화유산편』, 『경기도 역사여행: 인물편』을 본교재와 교사용지도서를 구분해 제작함
 - 교사용지도서 같은 경우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관한 토의와 현장학습을 연계해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가 담김

- 세종시교육청은 2018년 세종시 향토사에 대한 교사용 보조교재로 『알고 떠나면 재미있는 세종시 역사체험 활동』을 제작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바 있음
 - 여기에서 나아가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교재를 입문편, 심화편으로 구분해 제작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지역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② 공무원 대상 역사문화유산 교육 확대
- 아울러 일반 시민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은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련 분야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책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홈페이지)
 -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전통문화교육원은 국가 및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정’을 개설해 ‘자연유산 관리 과정’, ‘무형문화재 관리 과정’,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과정’, ‘문화재 GIS 활용 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세종시에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유산 교재 및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 할 수도 있겠으나, 우선적으로는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의 직무교육과정이 세종시에서 정기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유치할 것을 제안함
 - 전통문화교육원의 직무교육과정이 세종시에 개설·운영된다면 세종시 문화재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 정책 담당자도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때문에 세종시에서 전통문화교육원 공무원 대상 직무교육과정의 정기 강좌가 개설된다면 이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라 예상됨

[표 5-17] 전통문화교육원의 '직무교육과정' 개요

구분	내용
교육과정 명	◦ 직무교육과정
목적	◦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련 분야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향상 시키고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자 실시
교육대상	◦ 국가 및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 공공 기관 임직원 등
교육과정	◦ 창의리더 역사강화과정(I, II) ◦ 역사속에서 배우는 리더십 과정(I, II, III) ◦ 자연유산 관리 과정(I, II) ◦ 무형문화재 관리 과정 ◦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과정 ◦ 문화재 GIS 활용 과정 ◦ 문화재 보수정비와 현장관리 과정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 과정 ◦ 매장문화재 관리 과정 ◦ 문화재 수리기술 과정 ◦ 문화재 안전관리 과정 ◦ 문화재 행정실무 과정 등
교육장소	◦ 전통문화교육원 또는 외부

자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대학원 홈페이지, "직무교육과정".

○ 공무원 대상 역사문화유산 교육은 지역 유산의 가치와 문화재 정책 및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여 문화재 정책의 질 및 문화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지역 역사문화유산의 진흥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만큼 세종시에서 역사문화유산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함

③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지원

○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지역 중심의 문화유산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함

○ 문화재청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창의·인성을 함양,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공모를 통해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의 시행주체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됨

- 2019년 지역문화유산교육의 유형은 ‘문화유산 방문학교’, ‘문화유산 체험교실’, ‘테마문화재학당’으로 구분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유형을 선택해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

[표 5-18] 지역문화유산교육의 유형

유형	내용
문화유산 방문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을 소재 및 주제로 하는 유·초·중등학교와 연계한 교육 ◦ 자유학기제, 창의체험활동 등과 연계한 학교 방문교육을 권장 (학교교육과 연계한 현장답사 등 교육 가능) ◦ 지자체 및 소속·산하 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시행 주관
문화유산 체험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현장에 청소년 등이 방문하여 현장성 있는 문화유산 이해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예시: 문화유산 발굴·복원·수리 현장, 민속문화재)
테마문화재학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 또는 주제를 갖고 그 주제 관련 문화재에 대한 집중적 강의, 체험 및 답사로 운영

자료: 문화재청(2018.5.), 2019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공모 계획(안).

- 세종시에서도 문화유산 방문학교 유형의 지역문화유산교육을 기획하여, 공교육과 연계해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세종시의 대표적인 인물 역사문화자원인 김종서 장군을 주제로 한 체험, 답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 볼 수 있을 것임
-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지역에서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예산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재청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함
- 나아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심사기준에 문화재 사업을 맞춰나가는 과정 자체도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음
 - 2019년도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유산교육 공모사업의 심사기준은 크게 ‘사업내용의 우수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운영계획의 적절성’ 항목으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교육 대상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는가?’,

‘적합한 교재와 교구 등을 활용하는가?’, ‘지역 문화유산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가?’, ‘강사 등 교수인력의 전문성은 확보되었는가?’ 등의 세부 심사 기준 사항으로 나뉨

4) 활용·향유: 다각적인 역사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및 향유 기회 확대

(1) 지역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시민 접근성 제고

- ①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주민협의회 운영
- 세종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주민협의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함
- 충청남도 부여군과 전라북도 익산시는 지역주민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 사업 추진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부여세계유산보존협의회, 익산고도육성 세계유산보존관리주민협의회)를 조직해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문화재청은 문화재 명칭 및 안내판 내용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한다는 취지로, 안내판 정비방향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해하기 쉬운 안내 문안’,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의 유용한 안내 문안’, ‘지역 고유 역사문화를 이야기로 반영한 흥미로운 안내 문안’으로 정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재에 관심있는 교사, 학생, 문화유산 해설사, 문인 등으로 ‘문화재 안내판 시민 자문단’을 구성해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도재기, 2018.6.27.)
- 현재 세종시에서는 현상변경과 관련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고,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주민이 문화재 관련 사업에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로를 구축할 필요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도입하고 합리적인 간접 보상방안을 마련해 문화재와 주민이 공생할

수 있는 정책 필요함(문화재청, 2018a)

-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주민협의회를 두어 역사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에 대한 사업 제안을 받고, 세종시 문화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협회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면 한다면 역사문화유산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

② 역사문화유산 지도 제작

-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향상시키고, 세종시에 분포되어 있는 역사문화유산의 위치 등에 대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도록 역사문화유산 지도를 제작할 것을 제안함
- 경기문화재단연구원은 경기도 대표유산 100선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정보 습득과 방문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지도 위 쿵쿵 문화유산 줍줍>을 제작·배포하였음
 - 경기도에는 시·군별로 수많은 유산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경기도 내 지역별 형평성, 유형별 대표성을 고려하고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운영해 경기도 대표유산 100개를 선정함(경기문화재단, 2018)
 - 경기문화재단연구원의 <지도 위 쿵쿵 문화유산 줍줍>은 시·군별 가나다 순으로 구성하고, 문화유산을 일러스트로 표현해 유산들의 성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됨
 - 또한 개별 유산마다 접근성, 활용도, 공개여부 항목을 상-중-하의 수준으로 표기해 문화유산 관람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였고, 정보전달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개별 유산에 QR코드를 부여해 상세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음



경기도 대표유산을 찾아나서는 캐릭터들
 글씨는 경기문화재단, 그림은 경기문화재단 교육팀이
 표현하는 캐릭터입니다. **홍콩이는** 글자와 함께
 걸으면서 생각하고, **송이는** 지름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캐릭터입니다.



가이드북 구성



10000대 풍물 100가지 춤
 사업목적,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제별 경기도 대표유산 B.O.B

이용자들이 키워드로 참고할만한
 대표유산으로 구성했습니다.



경기도 대표유산 일러스트화

경기도 대표유산 100선으로 선정된 유산들의 성격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러스트로 표현했습니다.

사군별 가나다순 구성

본문 구성은 사군별 가나다순으로, 개별 대표유산의
 설명은 알파벳 순서로 배치했습니다.

참고자료 소개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원에서 발간한 '경기도 역사와
 문화' 시리즈의 '한눈에 이해' 시리즈로 활용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일러스트를 참조하는 홈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학원터 홈페이지
<http://digs.ggk.or.kr>
 홈페이지 - 센터자료실 - 발간자료
 뉴스정보 - 위키자료실 - 출판물
 pdf 파일 다운로드



가이드북 사용법

연령별

초·중·고등학생	지역별 대표유산 소개	경기도 대표유산 100선 소개
대학생	지역별 대표유산 소개	경기도 대표유산 100선 소개
일반인	지역별 대표유산 소개	경기도 대표유산 100선 소개
외국인	지역별 대표유산 소개	경기도 대표유산 100선 소개

QR코드

정확한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고, 이용자들이 편의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했습니다. 모바일로 QR코드를 찍고 세부 정보
 를 추가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QR코드 사용법

1. QR코드를 스마트폰에서
2. QR코드 스캔, 리더기 등 앱 다운
3. 100선 가이드북 바로가기

이런 설명

유네스코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으로 등
 재된 유산은 별도 아이콘을 표시하여 더욱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문자로 표기된 것은 경기도 소재
 한 12기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했습니다.

주요 지도, 네비게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재지

주요 시간 관광가능시간, 관람요시간

홈페이지에서 추가정보

이동통신 관할, 행정구역에 의해 정해진 정보

이전 홈페이지 위치, 주제, 유형별로 연결할 수 있는 유산

유형 별 대표유산의 사군, 관할, 대표, 지역별 배너 스티커
 마킹 등 주요 콘텐츠가 표기되어 있어 대략적인 위치
 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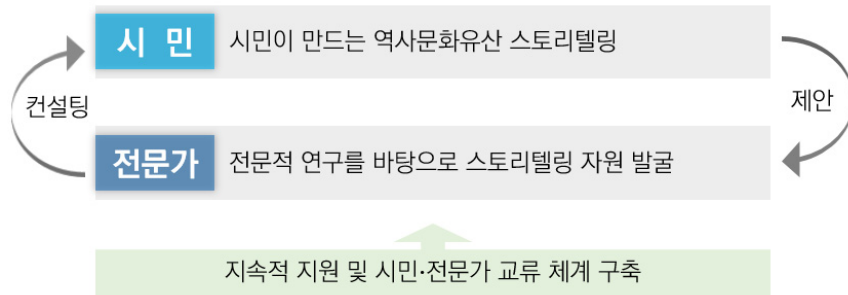
자료: 경기문화재단연구원(2018).

[그림 5-7] 경기도 <지도 위 쿵쿵 문화유산 줍줍>

- 세종시도 지역의 대표 역사문화유산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근현대문화유산의 유형별 대표 역사문화유산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내 책자 및 지도를 제작할 것을 제안함
- 이는 한 눈에 지역의 대표 역사문화유산의 분포와 내용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가치를 인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역사문화유산 교재 개발 및 관광자원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임

(2) 역사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 세종시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역사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발굴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지역 문화로부터 고유한 이야기를 발굴해내는 것은 지역 특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음



[그림 5-8] 역사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발굴 체계 제안

-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역사 문화적 사실과 장소를 연계하고, 이를 이야기화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전문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의 원천소재 발굴에 대한 지원을 하여 다양한 스토리텔링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

- ① 지역의 관광자원을 엮은 역사문화유산 홍보
 - 세종시의 경우 보유한 역사문화유산은 양적인 측면에서 타지역과 비교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역사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엮고, 이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할 것을 제안함
 - 앞서 살펴 본 사례 중,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재의 기원이 된 스토리와 연관지을 수 있는 지역, 명소를 묶어 '일본 유산'으로 인증하여 홍보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임
 - 문화재청이 매 월 발간하는 『문화재 사랑』에서도 강원도 춘천시의 '소양강'을 소개하면서 소양강을 보기 위해 춘천을 방문했을 때 무엇을 보고, 즐기고,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지역 홍보 효과 및 관광객 정보 습득 용이성을 동시에 높임
 - 이처럼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 전략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 요소인 만큼, 세종시의 역사문화유산을 관람, 체험하기 위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어떠한 다른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으며, 무엇을 먹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광객에게 제공할 필요 있음
 - 나아가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숙박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관광객 체류기간의 증가는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역사문화자원 관광 발전 전략의 하나로 기존의 숙박시설 정비 및 신규 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 참고할 만 한 사례로, 2008년 충청남도는 롯데그룹과 백제문화단지 내 민간자본유치사업 협약(MOU)을 체결하여, 백제문화단지 3,299천㎡ 중 1,654천㎡은 롯데에서 4,223억원을 투자하여 리조트, 아울렛, 테마파크 등을 조성해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1 김유정역과 김유정 문학촌

우리나라 사람치고 작가 김유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봄봄』과 『동백꽃』으로 대표되는 그의 작품들은 그만큼 한국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춘천은 작가 김유정에게 빛진 것이 많다. 때문에 경춘선 역에 김유정의 이름을 단 것은 적절한 일이라 할 것이다. 실제 마을에 조성된 김유정 문학촌에 둘러보자. 김유정의 생가는 물론 작품의 배경이 된 마을 곳곳을 설명과 함께 둘러볼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춘천시 신평면 살레길 25



2 강원도의 역사를 말해주는 국립춘천박물관

구석기시대 이래 강원도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 전시하는 박물관, 선사실과 고대실, 중세실, 근세실이 있다.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 동예, 삼국, 통일신라, 후삼국,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중세실에는 강원도에서 출토된 수준 높은 불교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한 번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강원도의 역사를 이해하기에 좋다.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70



3 국내 최장을 자랑하는 스키점령, 소양강 스카이워크

춘천의 랜드마크인 소양강교와 소양강 체녀상 옆에 자리한 총 길이 174m의 스카이워크. 바닥이 투명유리로 된 구간만 156m에 이르는 국내 최장 스카이워크 시설이다. 특수 강화유리 3장을 바닥에 깔아 하늘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며 소양강의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일출 후에는 오색 조영등이 커져 환상적인 풍광을 선사하니 저녁 시간에 둘러도 좋을 듯하다.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675



4 춘천 하면 닭갈비와 막국수

지금도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음식이 되었지만 춘천 하면 역시 닭갈비와 막국수다. 토막 낸 닭을 포를 뜯듯 도 통하게 퍼서 양념에 재워다가 아채와 함께 철판에 볶아 먹는 닭갈비.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국수물에 뽑아낸 면을 바로 삶아내어 김치나 동치미 국물에 말아먹거나 아채와 양념에 버무려 식초, 겨자 육수를 곁들여 먹는 막국수. 원재료인 메밀과 닭고기는 건강에도 좋으니 춘천에 들렀다면 자신들과 함께 푸짐하게 맛보시길 바란다.

*강원도 춘천시 일대



5 춘천 무형문화재 우경 박경수 필장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4호 우경 박경수 필장. 그가 만드는 붓은 화려하면서도 우아하다. 1974년 붓 제조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40여 년을 오로지 붓 만들기에 힘쓰며 살았던 필장. 소양강변 근처 그의 작업실. 경춘갈방에 들르면 1995년 의장특허를 받은 닭갈빗을 비롯하여 태종에서 나온 머리털로 만들었다는 배재머리 태모필, 족제비 털, 하얀 연소털로 만든 붓 등을 볼 수 있다.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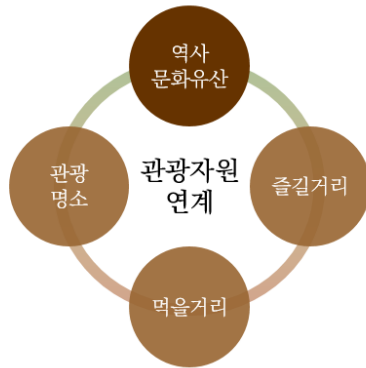
6 명승 제70호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소양강에서 배를 타고 호수의 북쪽에 다다르면 오봉산이 있고 그 산 안에 청평사의 도량으로 유명한 청평사가 나온다. 명승 제70호인 청평사 고려선원은 고려시대 선종조에 이자원이 입산하여 청평사 일대를 선원의 공간으로 다듬은 곳이다. 아름다운 폭포에 사각형의 못인 영지 실화화사문물이 어우러진 청평사 고려선원은 고려시대 정원에 관한 연모를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춘천시 북산면 오봉산길 80

자료: 문화재청(2018c), 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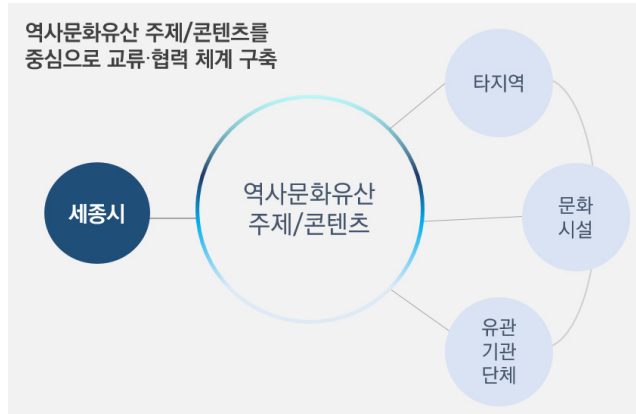
[그림 5-9] 문화재청의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강원도 소개



[그림 5-10] 관광자원 연계 요소

- ② 역사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 역사문화유산 관광 프로그램의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인근 지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서울시의 경우 한성백제왕도유적을 기반으로 공주·부여·익산시에 분포되어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의 확장등재를 추진하고자 하며, 경기도 수원시와 협력적으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를 운영해 오고 있음
 - 문화재청은 2018년 7월 8일부터 14일까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백제세계유산센터와 협력해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 왕도에서 ‘백제문화유산주간’을 개최함
 - 백제문화유산주간은 백제역사유적지구(8개소)가 세계유산으로 등재(2015.7.8.)된 것을 기념하여 백제 문화유산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을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임(문화재청, 2018b)
 - 2018년 백제문화유산주간에는 ‘함께 하는 백제문화유산 여행’을 주제로 가족들이 현장에서 백제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배우며 함께 즐길 수 있도록 8개 분야에서 26개 행사 등이 마련됨
 - 2018년도 백제문화유산주간은 2017년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추진단’의 출범과 함께 처음 시범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2019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문화재청, 2018b)
 - 또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에서 대전시,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는 ‘백제문화코스’ 여행을 신청해 선정됐으며, 선정된 4개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에도 ‘금강백제권역’을 알리기 위해 세계축제협회와 손잡고 백제문화여행코스 홍보, 금강백제권역만의 먹거리를 특화한 ‘금강식후경’ 브랜드의 효과적인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대전광역시, 2018.6.22.; 이상문, 2018.7.16.)

- 세종시에도 백제문화유산, 유교문화자원 등이 분포되어 있는 만큼, 인근 지역과 역사문화유산 교류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협력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함



[그림 5-11] 역사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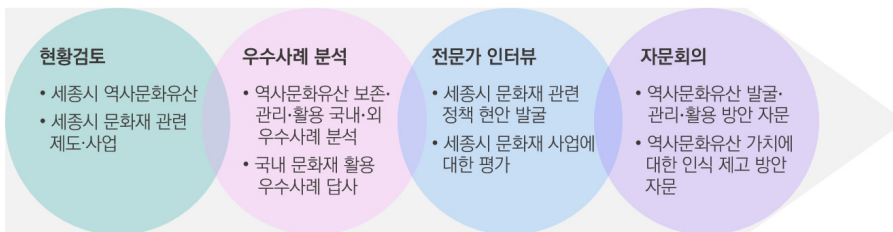
결 론

1. 연구결과 종합
2. 정책 제언

6장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 세종시 출범 이후 관내의 산재된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에 따라 세종시가 보유한 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여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음
- 이에 본 연구는 세종시 역사문화유산의 현황 검토, 국내·외의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의 사례 분석,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회의를 통해 세종시 문화재 관리 및 활용에서의 문제점과 앞으로 추구해야 할 세종시 문화재 정책의 기본방향, 목표, 추진 전략 및 과제를 도출하였음



[그림 6-1] 세종시 문화재 진흥 방안 도출 과정

1) 세종시 문화재 현황 분석

- 세종시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조례 제1171호),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제1172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조례 제1006호)를 제도적 기반으로 하여 문화재 보호와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사업은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권 관광문화재과의 문화재계가

중심이 되어 추진됨

-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세종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4건, 시지정문화재 27건, 문화재자료 13건, 향토문화유산 68건, 전통사찰 8개소 등이 있음
- 세종시는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에서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를 통한 역사문화 환경조성”이라는 정책사업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주요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사업을 크게 ①문화재 관리, ②국가지정문화재 정비, ③시지정문화재 정비, ④향토문화유산 및 충효열시설물 정비로 구분함. 이에 문화재 정비 쪽에 많은 정책 사업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문화재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종시는 근·현대시기까지 확대하여 역사문화유산을 폭넓게 발굴·연구하고, 전문적인 역사문화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다각적인 활용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음

2) 역사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본 연구는 국내(서울시, 부여군, 익산시) 및 해외(프랑스, 일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세종시 문화재 진흥을 위해 참고할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 **조직:** 세종시 문화재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 제고 및 확대·개편이 이루어 질 필요 있음
- **교육:** 대상별(시민·공무원·문화재 전문인력) 맞춤형 역사문화유산 교육을 시행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재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사문화유산 분야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할 것임
- **연구:**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만큼, 관내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학술 조사·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활용:** 세종시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유산은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상당히 적은 만큼, 지역의 이야기-장소-문화유산을 연계한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지도 서비스 등을 구축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역사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인근 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문화재 활용사업 기획·추진, 문화재 사업에서의 주민참여 독려, 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선진 과학기술 활용 등이 역사문화유산 진흥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음

3)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진흥 방안 제시

- 세종시 문화재와 관련 제도 및 정책 사업 현황 분석, 국내·외 역사문화유산 관리·활용 사례 분석, 전문가 인터뷰, 자문회의를 통해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3대 목표, 4대 추진전략을 제안함

[표 6-1]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방향 설정

구분	내용
기본 방향	역사문화유산 활용으로 세종시 브랜드 가치 향상
목표	역사문화유산 관리·보존 체계의 전문화
	역사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기회 확대
	역사문화유산 활용 다각화
추진 전략	(관리·보존) 역사문화유산 관리·보존 체계 전문화
	(발굴·지정) 비지정 역사문화유산 조사·발굴·지정 확대
	(연구·교육) 역사문화유산 연구 및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활용·향유) 다각적인 역사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및 향유 기회 확대

- 추진과제는 앞서 제시한 4대 추진전략별로 구분해 제시하였음
-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체계 구축과 다각적인 활용은 단기

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과제의 추진시기를 설계하고 단계적으로 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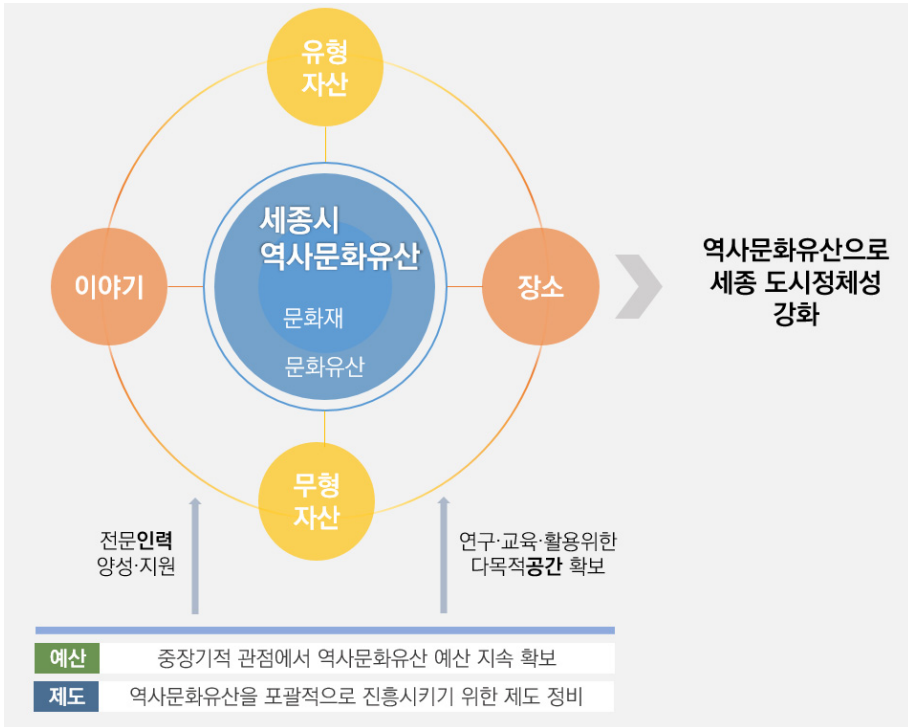
[표 6-2]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과제 및 추진단계 제안

분야	주요 제안사업	추진단계		
		단기	중기	장기
관리·보존	문화재 담당 조직에 전문 학예사 확대 배치			
	문화재 담당 조직을 주요업무 단위로 세분화			
	문화재 분야 법정 계획 고도화			
	문화재 유형별 관리·보존 방안 마련			
	문화재 정기조사를 통해 관리·보존 현황 파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운영			
	과학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관리·보존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발굴·지정	비지정 역사문화유산 조사·발굴·지정 확대			
	세종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역량 강화			
연구·교육	대상별 역사문화유산 교육 교재 개발			
	공무원 대상 역사문화유산 교육 확대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지원			
활용·향유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주민협의회 운영			
	역사문화유산 지도 제작			
	역사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지역의 관광자원을 엮은 역사문화유산 홍보			
	역사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2. 정책제언

1) 역사문화유산 진흥 사업의 지속성 확보

- 문화재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것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계획해야 함
- 그러나 세종시가 보유한 지정 문화재의 수는 타 지역과 비교해 상당히 적어서, 지역 특화 문화재 활용사업을 개발·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으로까지 문화재 정책의 관심을 넓혀서 세종시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함
- 발굴한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과 이에 얽힌 이야기 및 관련있는 장소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한다면, 비록 보유한 역사문화유산이 양적으로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 특화 역사문화유산 활용 방안이 풍성하게 기획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발굴하고 연계한 세종시의 역사문화유산을 장기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담보되어야 함
-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 관련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 문화재청 공모 사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내년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것이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 기획이 어려운 실정임(채경진, 2018)
- 따라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사업의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의 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함
- 세종시 지역 실정에 맞는 역사문화유산 진흥 제도와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 계획의 토대 위에서 역사문화유산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해 이들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사문화유산 연구·교육·활용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6-2] 역사문화유산 진흥 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

- 이처럼 건강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역사문화유산의 폭을 확대하고, 이것의 활용·진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 전문인력 및 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세종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활용 역량 강화

- 현재 세종시에서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 돌봄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 운영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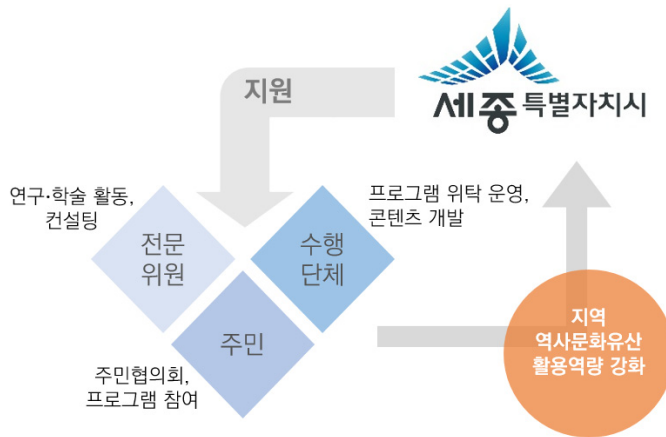
- 이와 같은 문화재 활용사업은 보존 및 관람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문화재 향유 방식을 전환하고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재창조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오고 있음(문화재청, 2018d)
 -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 활용 사업에서 지역 고유의 차별성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지 않은 프로그램이 기존의 프로그램을 답습하거나 문화재 활용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채경진, 2018)
-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은 개별 사업에 따라 심사 기준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콘텐츠 우수성’, ‘사업추진 체계·운영’, ‘발전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함
 - 예를 들어, 2019년도의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의 ‘시범육성형’ 시범기준을 살펴보면 문화재 진정성, 콘텐츠 경쟁력, 사업추진 체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결정함

[표 6-3] 2019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의 ‘시범육성형’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단기준
콘텐츠 우수성 (30점)	문화재 진정성	사업의 이해도, 문화재의 내재적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도록 문화재 특성 반영 여부, 문화재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여부
	콘텐츠 경쟁력	프로그램 기획의도·목적의 적정성 및 수요자 특성 반영 여부,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사업추진 체계·운영 (40점)	사업추진 체계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역할분담의 체계성과 협력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제고방안
	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적극성,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발전성 (30점)	활성화 기여도	지역활성화 기여 가능성, 지속발전 가능성

자료: 문화재청(2018e).

- 따라서 지역의 문화재 활용 사업이 지역 특색을 나타내면서도 내실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활용 사업 운영단체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문화재 활용 사업의 기획력 제고, 운영체계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업 수행을 통한 지역활성화 및 역사문화유산 진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단체’, 문화유산의 가치,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대한 연구와 컨설팅을 제공할 ‘전문가 단체’, 그리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이를 평가할 ‘주민’을 연결하고, 이들 간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관의 역할이 필요함
- 이에 세종시-문화재 활용 사업 수행 단체-전문가(문화재 전문위원)-주민(역사문화유산 주민협의회)으로 구성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이들 간 교류협력을 지원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활용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그림 6-3]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역사문화유산 활용역량 강화

3)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담당 조직 확대와 정책 전문성 제고

- 마지막으로 세종시 역사문화유산 담당 조직의 확대·개편을 통한 정책 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제안함
- 본 연구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대한 국내·외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세종시의 역사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다양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나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 세종시 문화재계(2018.11월 기준)의 인력으로는 제안한 신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현실적 제약이 클 것이라 판단됨
- 따라서 문화재 업무의 유형을 큰 틀에서 구분해 업무 특성에 따라 팀을 구분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조직에 배치되어 정책 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종시 문화재 업무 담당 조직의 정비와 인력 충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함

참고문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 2015.03.27. 제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34호), 2016.12.20. 일부개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73호), 2017.12.12. 일부개정.
- 「문화재보호법」(법률 제961호), 1962.01.10. 제정.
-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065호), 2017.11.28. 일부개정.
-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639호), 2018.06.12. 일부개정.
-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2257호), 2016.06.30. 제정.
- 「부여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조례 제2361호), 2017.09.29. 일부 개정.
- 「부여군 문화재시설 관리운영 조례」(조례 제2374호), 2017.11.10.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제6851호), 2018.03.22. 타법개정.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조례 제6314호), 2016.09.29.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조례 제6916호), 2018.10.4. 타법개정.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조례 제5972호), 2015.7.30. 제정.
- 유네스코(1972),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 유네스코(2003),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조례 제1172호), 2018.08.20. 제정.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조례 제790호), 2015.12.21. 일부개정.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보호 조례」(조례 제1171호), 2018.08.20. 전부개정.
-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1599호), 2016.09.28. 제정.
-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조례 제3399호), 2017.4.28. 제정.
-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조례 제1447호), 2018.9.28. 제정.
- 경기문화재단연구원(2018), 지도 위 쿵쿵 문화유산 줍줍.
- 권채리(2016), “비지정문화재 보호의 모색-프랑스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21권 제2호. 297-323.

- 국립무형유산원(2015a), 처음 만나는 무형문화유산: 입문편.
- 국립무형유산원(2015b), 빛고 만들고! 즐겁게 배우는 무형문화유산: 기능편.
- 국립무형유산원(2015c), 얼썬! 흥겹게 배우는 무형문화유산: 예능편.
- 김숙경(2016), “문화기반의 도시재생에 관한 비교연구 : 글래스고와 가나자와를 사례로”.
〈로컬리티 인문학〉 제15권. 123-156.
- 김 용(2016), 〈교육선진국의 교육관련 조례 제정 현황 비교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 김후련(2012), “가나자와형 창조도시 발전전략 연구 : 문화와 산업의 연계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8호. 81-108.
- 문이화(2017),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지역활성화 전략 : 익산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 제30권. 5-34.
- 문화체육관광부(2007), 〈국가유물(동산문화재)의 관리·활용 조직과 업무영역에 관한 연구〉.
- 문화재청(2010), 〈주요국 문화재보호 법제 수집·번역 및 분석〉.
- 문화재청(2014),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 문화재청(2015),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연구(2017~2021)〉.
- 문화재청(2016), “2016년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사적-건축-세계유산) 제2차 회의 결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안) 검토회의 결과알림〉.
- 문화재청(2017a),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2017~2021〉.
- 문화재청(2017b),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017~2021〉.
- 문화재청(2017c), 〈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137건 지정명칭 변경〉. 2017.02.23. 고시.
- 문화재청(2018a),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 문화재청(2018b), 〈문화재사랑〉, 통권 제164호.
- 문화재청(2018c), 〈문화재사랑〉, 통권 제168호.
- 문화재청(2018d), 〈2018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기본계획〉.
- 문화재청(2018e), 〈2019년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계획(안)〉.
- 문화재청(2018f), 〈2018년 주요업무계획〉.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준비단&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16), 〈백제왕도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기본계획〉.
- 부여군(2016), 〈부여군 문화재지정 현황〉.
- 부여군(2018),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화재사업소〉.
- 서울특별시(2018a), 〈문화재관리 서울시 문화본부 2018 예산〉.
- 서울특별시(2018b), 〈2018년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2018), 〈주요업무보고(2018.2.)〉.

- 세종특별자치시(2018a), <2018년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
- 세종특별자치시(2018b), <2018년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 세종특별자치시(2018c), <2018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 세종특별자치시(2018d),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지정 현황>. 2018.04.12.
-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문화재과(2018), <문화재 지정대상 목록(2018년)>.
- 박신의(2016), “문화유산 활용과 가치 제고 전략”.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와 미래 전략 심포지엄>(2016.12.2.). 5-26.
- 신상철(2017), “프랑스 문화재 보호정책의 역사와 세계문화유산 등재 제도의 의미”. <미술사학> 제34권. 143-163.
- 오동욱(2013), “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공연 분야를 중심으로”. <대구 경북연구> 제12권 제1호. 99-112.
- 오정심(2015), <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한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전승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규(2005),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진우(2018), <문화유산활용의 이론과 활성화 체계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익산시(2018), <역사문화재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 전라북도(2017), <2017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 전칠수(2017), “세계문화유산 백제성곽의 보존관리와 활용사례에 관한 문화재행정적 접근방안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8권 11호. 321-329.
- 채경진(2018),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현황과 과제”, <웹진 문화관광> 2018년 9월.
- 충청남도(2018), <2018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 최영화·민경선(2016), <인천시 무형문화재 진흥 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최원석(2013), “역사를 숨 쉬게 하는 문화재 보존과학”. <TTA 저널> 2013.05. 16-17.
- 한상우(2018), <경남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필요성 및 관리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한승준·주효진(2008), “프랑스와 일본의 문화재 관리방안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12. 1-23.
- 김종순(2017.08.25.). 사적 제92호 익산토성 탐방객 편의시설 정비. <전라일보>.
URL: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20123>
- 강명수(2018.04.03.). 일반에 공개된 익산 쌍릉 발굴현장. <Nwesis>.
URL: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403_0000129020
- 강명수(2018.04.30.). 익산시, 미륵사지 기단부 배수시설 개선 유적정비착수.

- 〈Newsis〉. URL: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300000295761_&cID=10808&pID=10800
- 대전광역시(2018.6.22.).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금강백제권역’ 우수권역 선정.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URL: 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jsessionid=a1QjrhraVswrrXsVdilhzWXi1Zcqu1CMswHc3vSDlpIjvtd104EuiwDnpa0jISDL.WEB1_servlet_engine1?boardId=normal_0189&menuSeq=1632&pageIndex=1&ntatcSeq=1108930305
- 문화재청(2018.6.21.). 한국의 문화유산, 구글에서 실물처럼 본다. 〈문화재청 보도자료〉. URL: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jsessionid=zaRr7qrrWAUdnnxZ11eqeXkzi0Q4PoX3j3iHSUwuV9uMnN3c0Ot31Kz1c14SdZSq.new-was_servlet_engine1?newsItemId=155700855§ionId=b_sec_1&pageIndex=1&pageUnit=10&strWhere=&strValue=&sdate=&edate=&category=&mn=NS_01_02
- 배종윤(2018.04.28.). 익산시, 역사가 시민의 삶 속에 공존하는 ‘백제의 마지막 왕도’. 〈프레스리안〉. URL: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474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세종특별자치시(2018.10.03.). 세종대표 축제 김중서장군문화제 구경오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언론보도자료〉. URL: http://www.sejong.go.kr/cop/bbs/BBSMSTR_00000000091/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91&nttId=77635
- 염지은(2013.11.20.). [파리 박물관을 가다] (1) 문화재 보존, 기술보다 ‘윤리’. 〈News1〉. URL: <http://www.news1.kr/articles/?1416020>
- 이경훈(2017.01.04.). 일본 최초의 수도이자 천년고도였던 교토. 〈시사뉴스〉. URL: <http://www.sisanew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
- 이상문(2018.7.16.). 금강백제권역 지자체 관광 손잡아. 〈중도일보〉. 지역 06면.
- 이정복(2017.12.15.). 부여군, 충남도내 문화재행정 우수기관 선정. 〈대전투데이〉. URL: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725>
- 정찬욱(2015.03.20.).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준비단’ 발단. 〈연합뉴스〉. UR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0/0200000000AKR20150320115300063.HTML>

- 가나자와 마치 박물관(<http://www.machihaku.com>)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http://sejong.korea.ac.kr/kr>)
- 교육부 자유학기제(http://www.ggoomggi.go.kr/page/new/page_new_main)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http://nrch.go.kr/buyeo>)

국립부여박물관(<http://buyeo.museum.go.kr>)
 그랜드 리옹(메트로폴 리옹)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legrandlyon>)
 네이버 지식백과, 파리 건축 문화재 단지 검색(<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99836&cid=40942&categoryId=34684>)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미륵사지유물전시관(<http://iksan.museum.go.kr>)
 부여군(<http://www.buyeo.go.kr>)
 백제세계유산센터(<http://www.baekje-heritage.or.kr>)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세종특별자치시 공식 블로그 '세종스토리'(<http://sejongstory.kr>)
 서울특별시 문화 관광 체육 디자인(<http://sculture.seoul.go.kr>)
 서울특별시 재정포털(<http://openfinance.seoul.go.kr>)
 세종문화원 사이버향토박물관(<http://sejongcult.cafe24.com/default/index.php>)
 세종특별자치시(<http://www.sejong.go.kr>)
 서울미래유산(<http://futureheritage.seoul.go.kr>)
 왕궁리유적전시관(<http://www.iksan.go.kr/wg>)
 어린이·청소년 문화재청(<http://kids.cha.go.kr/depart/KidsIndex.action>)
 우리문화숨결(<http://palaceguide.or.k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센터(<https://whc.unesco.org>)
 유네스코와 유산(<http://heritage.unesco.or.kr>)
 유네스코 한국위원회(<https://www.unesco.or.kr>)
 익산시(<http://www.iksan.go.kr>)
 익산시 재정(<http://www.iksan.go.kr/budget>)
 일본 나라시 관광협회(<https://narashikanko.or.jp/ko>)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http://www.bunka.go.jp>)
 일본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www.jcic-heritage.jp)
 일본 시가현 관광 공식홈페이지(<https://kr.biwako-visitors.jp>)
 일본유산 미토쿠 산 미사사 온천(<http://spa-misasa.jp/japan-heritage/ko>)
 전통문화교육원(<https://nuch.ac.kr/ectc>)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http://www.cihc.or.kr/kor/main/main.do>)
 파리 건축 문화재 단지(<https://www.citedelarchitecture.fr>)
 프랑스 국가문화유산센터(<https://www.monuments-nationaux.fr>)
 프랑스 국립문화재학교(<http://www.inp.fr>)
 프랑스 국립박물관협회-그랑 팔레(<https://www.rmngp.fr>)
 프랑스 관광청(<http://kr.france.fr>)

프랑스 문화부(<http://www.culture.gouv.fr>)
한국전통문화대학교(<https://www.nuch.ac.kr>)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08
www.dsi.re.kr